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작게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2월 1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4 · 11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불교계 접촉이 잦아지고 있다. '불교 표밭 갈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차제에 참된 교우, 사람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참된 교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마땅히 지혜많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나가서는 부드러운 안색이 되고 들어와서는 기쁨을 함께 하여 서로 존경해 아버지인 듯 형인 듯 대하며, 상대를 제 몸과 다름없이 여겨 마음으로 늘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 〈출요경〉

여기저기 벗을 구해도 저와 같은 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차라리 홀로 선을 닦을지언정 어리석고 악한 자를 짝할 이 없도록 하라. 〈사분율〉

차라리 적이나 백정과 친구가 될지언정 그릇된 말을 하는 악한 견해를 지닌 사람과는 잠시도 동거하지 말라. 〈대법유타라니경〉

현자가 사람들을 감화함은 향을 가까이하는 것과 같다. 지혜에 머물면서 선을 익혀 행동이 깨끗하고 향기롭게 해 준다. 〈법구경〉

선지식에는 네가지 부류가 있으니, 첫째는 싸우려는 친구를 만류할이요 둘째는 악지식을 따르려하는 것을 간해 그치게 할이요 셋째는 일하지 않으려는 것을 가르쳐서 믿게 함이다. 〈육방예경〉

어리석은 자와 같이 종사를 하지 말고 의담 선지식이나 지자와 사귀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본래 악이 없는터이나 악인을 가까이 하면 뒤에 가서 반드시 악인이되어 악명이 세상에 두루 퍼지게된다. 〈중일아함경〉

악한 벗에는 네 부류가 있다. 첫째는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도 겉으로는 억지로 벗인체 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그 앞에서는 좋게 말하지만 배후에서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앞에서는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듯 가장하지만 배후에서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넷째는 겉으로는 친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음모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육방예경〉

도리에 맞지 않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항상 바른 가르침의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법집요송경〉

벗 사이에는 세가지 긴요한 일이 있다. 첫째는 과실을 보면 서로 깨우쳐 충고함이요 둘째는 공덕되는 일을 보면 깊이 따라서 기뻐함이요 셋째는 불행에 있을 때 서로 버리지 않음이다. 〈인과경〉

관련기사 3면

법공양페이지 포함 20면 발행
역대정권 종교 편향 정책 2면
석가모니 탄생지 공식 선포 14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종교편향 규탄 전국 확산

승 · 재가 한 목소리… 해인총림 산중회의 '교권수호 천명'

김영삼대통령의 국방부 중앙교회 예배참석으로 빚어진 종교편향에 대한 교계의 공개사과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가운데 지역불자들이 대통령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있어 교계의 대통령종교편향 규탄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대전지역에서 수행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스님들의 모임인 조계종승가회 소속 회원스님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종교활동을 위해 타인의 종교활동을 방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고 규정하고 종교편향 재발을 막기위한 사태접수창구(042-253-7654)를 개설, 종교편향정책의 시정에 들어갔다.

동안거 결제중인 해인사 총림도 지난 2일 이례적으로 산중회의를 열고 타종교인의 교권을 유린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해인총림의 대통령공개사과 촉구는 산중에서 수행중인 수좌들이 교권수호를 위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천명으로 안거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전국의 선, 강원을 중심으로 대통령종교편향 규탄의 열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부천 불교연합회등 전국의 사암 및 재가신행단체들도 즉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편향된 종교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역불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김대통령의 군교회 예배참석은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선교정치, 장로정치의 표본이다"며 "불교가 아무리 자비의 종교라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종교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관계자의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하고 있는 전북, 제주, 김원, 춘천, 공주, 완주사암연합회등 시 도단위 승, 재가 단체들도 간담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중앙종무기관의 지침에 따라 종교편향정책 시정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러한 불교계의 요구에 정부 여당은 김윤환(신한국당)제표, 이양호 국방장관등을 내세워 사태의 본질을 축소하며 조기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해결의 당사자인 청와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통령종교편향 시정을 요구하는 불자들의 대응이 조직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종교편향정책중단과 교권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비상대책위(위원장 효림스님)는 7일 조계종 총무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대통령의 공개참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신한국당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비대위는 또 8일 김대통령의 공개참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조계사에 달고 3월초 범불교도 대중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관련기사 2 · 3면

국방부원광사 방문 월주스님, 장병위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건과 관련, 국방부 호국원광사를 방문, 군법사 및 불자 장병들을 위로했다.

월주스님은 "대통령의 교회 예배를 계기로 불자장병들은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종교 편향정책중단과 교권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조계사 앞에 김대통령의 공개참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비대위는 앞으로 전국 1천7백여개 사찰에 현수막을 설치할 방침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고속철 경주통과 즉각 취소" 촉구

종교 · 예술 · 여성등 각계대표 '결의문' 채택

경부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여성계 대표들이 도심통과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13면〉

한국불교재가회의 등 불교계 18개 단체와 한국고고학회 등 관련 17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고속철도 경주통과 반대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 주최로 열린 각계지도자 간담회의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경주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겨레와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 △도심통과 계획의 즉각 취소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가꾸기 위한 장기적 · 종합적 대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강원룡 크리스찬아카데미이사장, 안호상 대종교교령, 최근덕 성균관장, 한광도 천도교종무원장, 류달영 상천문화재단이사장, 류승국 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손봉호 경실련공동의장, 안병무 전한국신학연구소장, 임창순 문화재위원회위원장, 홍라희 호암미술관장 등 30여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또 각자 소속된 분야에서 경주도심통과반대 여론조성과 개선방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과 각계 저명인사 3백명의 참여를 권유, 함께 성명서를 발표키로 결의했다.

18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경주도심통과 반대서명운동에 참가한 가운데 각계대표들이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경주도심통과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회의장 앞에서는 경주에서 버스편으로 상경한 고속철도 경주확정역사사수 시민단체협의회(공동회장 김상수 경주시의원) 소속회원 37명이 고속철도 경주통과를 정부안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계종 승가대학령 확정

학년정원 12명이상 설립 인가… 이달말 입법예고

개별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가대학이 종단의 공공교육기관으로 전환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지난 8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5차 승가교육 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승가대학(강원)령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승가대학령에 따르면 교육원이 승가대를 지정하고 지정된 승가대는 반드시 설립인가를 신청, 교육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승가대 지정 요건으로 학년정원 12인이상 총학인정원 50인 이상으로 정해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승가대는 전문학림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원은 이같은 내용의 승가대학령을 총무회의에 상정, 빠르면 이달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승가교육 개혁추진위는 행자교육개선을 위해 계단위원, 교수사, 교육위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신설, 행자교육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신도증 교부시작

조계종, 등록진행 활발

조계종포교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도등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8일 현재 전국 13개 본사에서 1만여명의 신도가 등록서류를 포교원에 제출했다. 포교원은 이달말께 신도증 교부를 시작한다.

신도증을 휴대한 신도는 조계종단의 관람료 징수사찰 무료입장 및 종단시설을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의 베스트셀러 금강제화 상품권—
선물은 역시 금강제화 상품권입니다.


■ 변하지 않는 선물의 대명사
■ 최고만을 고집하는 토탈패션
■ 적정가격대의 다양한 선택
■ 서울에서 제주까지 편리한 사용
랜드로바 비제바노 매장에서도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권 문의전화
●서울 : 02) 567-9292 / 02) 310-9292 / 02) 538-2442 / 02) 776-4466 ●부산 : 051) 245-9292 / 051) 241-4333~4 / 051) 246-0545 / 051) 245-7928 ●대전 : 042) 252-9292 / 042) 252-5292 / 042) 255-8231 ●대구 : 053) 422-9292 / 053) 421-6596 / 053) 421-3692 ●광주 : 062) 227-9292 / 062) 226-4334 / 062) 222-1232 ●울산 : 0522) 44-9292 / 0522) 45-3117 ●인천 : 032) 762-3221 / 032) 548-6016 ●수원 : 0331) 42-2488 / 0331) 251-3437
토탈패션의 名家
금강제화(株)

사 설

귀순동포에게 '자비의 품' 열자

북한의 학정을 피해 귀순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다. 식량난이 심화되고 압제가 강해질수록 생존을 위해 이땅으로 날아드는 가여운 생명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그들을 도닥거려줄 너른 품이 필요하다. 각박한 그들의 고통과 바램은 어떤 것일지를 알고 그 실존에 무아와 무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그들에게 부처님의 음성을 전해줄 통로가 열릴 것이다. 〈남순지장회〉등에서 이 일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장회라는 이름이 너무나 적절하고 아련하다.

누구에게나 삶은 고통스럽다. 이 원론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교의 문지방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지만 삶 전체가 온통 고통의 바다라는 진실에 누가 쉽사리 동의할 것인가. 선정이 깊어지고 지혜의 눈이 닦여야 그 진리가 점차 밝아올 것이다. '삶이 고통이니 그것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마음에 천근 무게로 눌려, 잠을 자도 이 생각, 밥을 먹어도 이 생각에 사무쳐야 빗장을 돌파할 길이 열린다.

혼자 해결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은 남의 고통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라는 이중의 덕목을 안는다. 고통과 번뇌로부터 나를 건지는 등불이 지혜일 것이고 남을 건네주는 뗏목이 자비일 것이다. 지혜없는 자비는 맹목의 우둔이기 쉽고, 자비없는 지혜는 메마른 독선이기 쉽다. 이 중 어느 하나도 결여될 수 없다.

불교전통은 자연스럽게 '지혜'를 우선시 해 왔다. 그래서인지 수행자를 삭막하고 거만하게 만드는 병폐가 있다. 세계를 인간의 관심을 탈색시켜 보는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나, 오온(五蘊) 또한 법집(法執)이라 타파하고자 공을 역설한 중관(中觀)에 심하게 중독되어서 그런지 중생을 조립장난감의 비인격으로 보려는 못난 불자들이 있다. 약이 독하면 병이 되는 법이다. 일상의 애욕과 번뇌부터의 초연을 과시하고자 하는 빗나간 권위의식인가. 존경과 외경심으로 고개를 조아리는 신도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지나쳐 화택번뇌에 휩싸인 하잘것없고 불쌍한 무리로 내려다보는 아만을 쉽게 목도한다.

지혜가 곧 자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눌 스님도 지(智)와 함께 비(悲)를 끊임없이 키워나가라고 권면해 마지 않았다. "자리와 이타로 비지를 증장시켜 위대한 보리를 구하라!(自利利他 增長悲智 求大菩提-결사문)" 애욕과 공포로 상(相)을 떠났다면 그 자리에 무량의 자비가 들어서야 한다. 지장보살은 "무간지옥의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지 않으면 지옥을 나서지 않겠다"는 원을 세웠다고 한다. 그 눈물겨운 서원이 섬뜩하게 다가온다.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함에 압도되는 탓이다.

불교는 이 위대한 서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뻣뻣하고 고압적인 자세로는 대중에게 다가설 수 없다. 지혜를 통해 나를 비울 때 상대방의 고통과 번민은 빈 거울에 비치는 영상처럼, 너의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것이 된다. 아픔이 일체된 교감에서 서로를 막고 있던 의식과 정서의 벽이 사라진다. 고매한 진리, 팔만대장경의 교학을 가르치기 이전에 이 위대한 공감과 동정의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는가. 중생의 고통은 수도 없이 많다. 그 아픔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 고통 자체에 다가가지 않고 삼계 너머의 열반의 세계를 설교하고 있어서는 불교의 진리가 먹혀들 리 없다.

현재 적지않은 수의 귀순자들이 대부분 타종교를 믿고 있다. 그들의 외로움 어려움을 함께 해준 결과인 것이다. 앞으로 귀순자들이 더욱 급속히 늘것으로 보인다. 천수천안 가운데 적절한 눈과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부처님의 큰 가르침 근처로 이끌기를 합장 기원한다.

열 린 마 당

역대정권 종교정책

대통령의 군교회 예배과정에서 빚어진 종교편향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종교편향은 대통령중심제 정권에서 정책으로 반영될수 있는 여지를 안고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동안 이땅에서 일어난 종교편향정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편향적 교권침해 다반사

정권예속화…초파일 공휴일 20년 걸려

국정 교과서도 기독교적 사고로 편찬

해방이후 편향된 종교정책은 현정권뿐 아니라 헌정사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불교계는 정책적으로 무시되거나 정권의 예속과 탄압, 기독교편향정책, 군내의 불교탄압등으로 교권이 침해 받아왔다.

정책에서 불교가 무시된 사례가운데 '85년 남북이산가족 상호교환 방문시 남한측 대표로 목사 신부가 포함된 반면 불교계가 제외됐던것이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당시 방문단은 북한에서 예배와 미사를 갖고 "북한에 기독교나 천주교가 없는 것은 비인간적 사회다"며 불교계의 이산가족을 외면하고 기독교를 선전했다.

'45년 미군정때부터 예수탄신일인 12월25일이 경축일화하기 시작했으나 부처님오신날은 불교계가 20여년동안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75년에야 공휴일로 제정된바 있다.

대통령의 종교편향으로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불교의 정권예속화'가 대표적이다. 54년 '대처승은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대통령담화는 비구 대처싸움으로 비화되었고 사찰접수를 둘러싼 유혈투쟁과 법정싸움은 결국 한국불교 1천6백년사에 씻을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다. 당시 기독교인이었던 이대통령의 담화는 불교의 정화나 발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승만정권의 정치적목적을 위한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통령의 종교편향이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79년에 일어난 10. 27법난도 정치적 실현을 위해 정권핵심부가 불교를 제물로 삼았던 사례이다.

위정자들의 종교편향가운데 기독교위주의 정책은 사회 문화등 전분야에 걸쳐 펼쳐지고있다. 특히 초, 중, 고,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왜곡은 종교편향의 절정에 이른다. 초중고 음악교과서의 경우 크리스마스 캐롤, 영가, 찬송성가곡 일색으로 기독교 교과서로 착각할 정도다. 또한 도덕 국민윤리교과서에는 많은 부분에서 불교를 낡은 사상으로 간주하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사고혼란에 혼란을 주어 '종교는 기독교'라고 연상할 정도다.

이밖에도 사찰앞에 교회건축 허가, 천년고찰 경내에 도로개설등 종교편향정책은 대통령에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사회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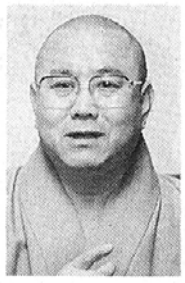
이같은 종교편향정책에 대해 종교인들은 "종교 편향은 사회악으로 바른종교인의 행위가 아니다"며 "국민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종교편향을 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지난 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북한방문 때 남한측 대표로 목사 신부가 포함됐으나 스님만 제외됐다. 사진은 그해 9월 북한을 방문한 남한 목사 집전으로 종교의식을 갖고 있는 장면.

종교편향대책위원장 법 타 스님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기회균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편성을 잃은 종교정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번 김영삼대통령의 군교회 예배 참여를 계기로 더 이상 편향된 종교정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종도들의 뜻을 모아 장단기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31일 발족한 종교편향정책 시정을 위한 대책위원장 법타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종교편향정책이 절정에 다다른 듯 하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대책위발족은 단순히 대통령의 군교회예배를 규탄하기보다는 국정 전반에 걸쳐 펼쳐지고 있는 종교편향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대책위가 상설기구임을 밝혔다.

대정부 창구통해 '교권수호' 힘 모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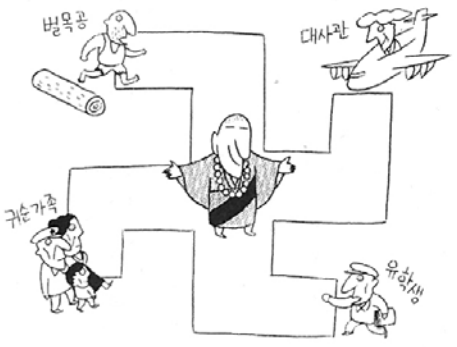
스님은 또한 "최고 권력자들이 편향된 종교활동을 할 때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파사현정의 기치로 종교편향정책을 시정하는 불사를 단행하자"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계가 받고 있는 종교편향정책 가운데는 최고 권력자들 뿐 아니라 정부관료, 행정실무자들의 편향정책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종무실장과 대화창구를 개설한 법타스님은 "앞으로 대책위는 종교편향정책사례를 수집해 대정부 창구를 통해 시정해 나가겠다"며 "대정부 관련 불교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로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종교편향정책 시정은 곧 교권을 지키는 불사다"라고 정의하고 "종교편향정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불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종교편향을 영구히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인재양성과 대사회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엽〉

현대만평 박구원



어디서 오든 한 가족이예요

목어

드라마 속의 어머니

최근 인기상승하고 있는 한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다. 그 집에는 과년한 딸이 3명이나 있다. 맏딸은 결혼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둘째 딸은 아직 인연을 못만나 애를 태우고 있다. 딸들의 혼기 문제로 고민하는 엄마는 어느날 막내로부터 "결혼하기로 했어요"라는 전화를 받는다.

어머니는 수화기를 든 채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한다. 이때 저녁식사 중이던 둘째가 식탁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친다. "그렇게 좋아요" 당황한 어머니는 나중에 "미안하다"며 둘째 딸의 등을 어루만진다.

김영삼대통령이 국군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볼때 기독교인 장사병들의 사기는 어떠했을까. 그런 신자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기분도 흐뭇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같은 영내의 또다른 쪽에서는 대조적으로 울적해 하는 장병들이 있었다. 법당출입이 통제되고 일직·당직을 바꿔서만은 아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라면 국방부장관 사과로 불자들은 화를 풀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장로 안기부장과 국방장관이 배석한 그날의 예배장면이 TV화면과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기독교 신자들은 득의양양하고 다른 종교인들은 위축되는 그런 불행이 한 나라안에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거기다 '邪敎퇴치론'까지 거론됐다니 아연실색할 수 밖에.

불자들은 바라고 있다. "나의 종교가 중요한 만큼 남의 종교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 김대통령이 불자들의 편편찮은 정서를 읽어주길.

어느 기독교인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불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말겠지."

딸 셋을 둔 드라마 속의 어머니는 둘째 딸이 '화내다 말 길' 기다리지 않고 자애를 보여줬다. 경전에서도 국왕(대통령)은 부모에 비유되고 있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선근을 심어라

양사성에 장자의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묘체였다. 나이 겨우 여덟 살인 연꽃 모습은 단정하고 넋빛은 고우며 모든 모양이 잘 갖추어져 보는 사람들이 기뻐했으니, 일찌기 과거에 한량없는 제불들을 가까이 모시면서 공양하여 여러 선근을 심었었느니라.

〈대보적경〉

협찬 정토사 주지 설 산

생활속의 불교 ⑥1

모든 이에게 주어진 행복 초대장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원하기에 노력을 한다. 불철주야로 애쓰는 사람도 많다.

누구에게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기에 추구한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행복을 내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제 노력으로 벅차다 싶으면 他力을 빌어서라도 손에 넣기를 바란다.

그러나 왠지 행복은 쉽사리 손에 잡히질 않는다. 아직은 때이른 봄소식처럼 먼발치에서 가물거리는 경우가 더 많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원치도 않는 불청객, 고통과 불행이 불쑥 덮쳐들기도 한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통탄해마지 않을 경우도 만나게 된다.

때로는 꽉 잡았다 싶었던 행복이 어느 틈엔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 빠지듯 떠나가 버리기도 한다. 어찌 보면 행복과 불행은 낮과 밤이 갈마드는 모습을 닮은 듯하다. 왜 그럴까?

언제나 행복감에 젖어 지낼 수는 없는 것일까, 늘 편안하고 늘 건강하고, 늘 즐겁고 늘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 늘 안전하고 늘 평화롭고, 늘 풍족하고 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릴 길은 없는 것일까? 있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행복의 길은 열려 있다.

있다! 행복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에의 초대장은 쥐어져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통과 불행은 탐·진·치 삼독심에서 비롯되고 행복과 즐거움은 집착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삶을 원하면서도 서로를 죽이고 미워한다.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사람들은 안전과 평화를 바라면서도 다반사처럼 그것을 파괴한다.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사람들은 건강과 풍요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치고 빼앗는 일을 자행한다. 제 몫만을 챙기려는 삼독심 때문이다.



행복·불행의 열쇠는 내 마음에 있다.

'나'를 앞세우고 '내것'부터 챙기려 하면 행복이 쉽게 잡힐 것 같지만 행복 대신에 불행이 밤 도둑처럼 소리 없이 찾아온다.

반면에 '나'를 죽이고 '내것'을 놓으면 불행해질 것 같지만 행복이 봄기운처럼 나를 감싸 안는다.

"내가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라는 생각은 오직 관념의 허상일 뿐이다. 고로 나, 내것을 놓는 삶 속에 행복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행복은 놓아 버림에서, 불행은 집착에서 싹이 튼다는 말씀이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받기 전에 먼저 주어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남을 먼저 생각하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나를 위해 만들지 말고 나눠 주기 위해 만들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나를 위해 땀을 흘리지 말고 모두를 위해 땀을 흘려라.

행복이란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나'라는 개체의식이 사라지는 만큼 찾아오는 것이다. 완전한 방하착은 완전한 행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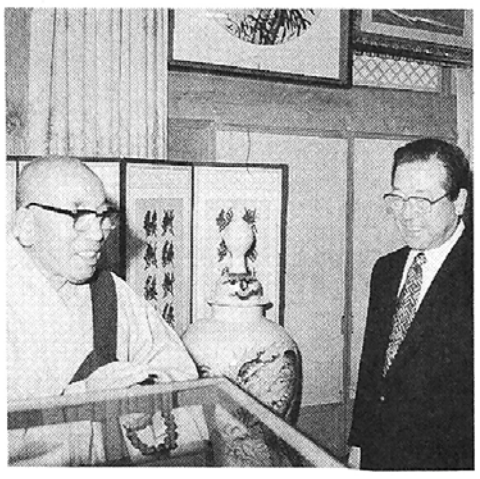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것은 진리이다. 부모자식간에도 그렇고 애인 사이에서도 그렇다.

나를 위해 수천 배 절을 하기보다 남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행복은 그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협찬 : 울산지원 법형제회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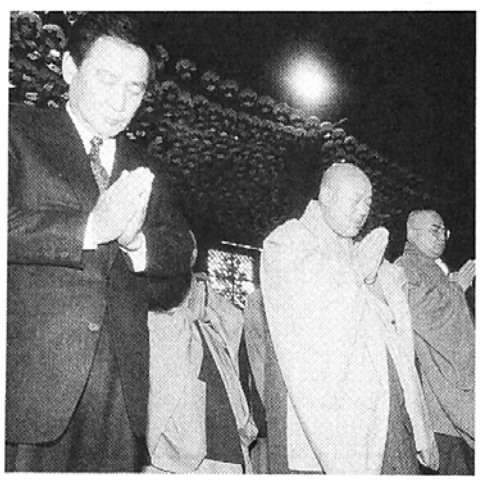
총선 임박 … 정치권 '佛心 잡기' 행보 바빠졌다



JP 월하종정 예방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지난 3일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예방을 받았다. 4·11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정치인의 방문을 접한 월하스님은 옛선사들의 가르침을 들려주며 물교교리를 설명했다. 이날 김총재는 법당을 참배하고 헌화했다.



DJ 월주스님과 환담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3일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불교의 중도사상에 입각해 정치, 사회, 통일부분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특히 통일문제에 여야 지도자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최근 정치권의 종교편향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윤환대표 신년하례에 신한국당 김윤환총재는 지난달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했다. 김총재는 법회에 앞서 송월주 조계종, 최혜초 태고종, 전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등 종단협 스님들과 환담을 나눴다.

해인총림 대정부관련 최초 산중회의 의미

"대통령 종교편향 안된다"

선원·율원·강원·산내암자 대표 '공개사과 촉구'

대통령의 군교회 예배과정에서 발생된 종교생활 침해 및 군 최고통수권자의 종교편향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있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가운데 해인총림에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결의, 급기야 김영삼대통령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산중에 까지 확산되고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지관)의 선원 율원 강원을 비롯 산내암자 대표 30여명은 지난 2일 해인사 청화당에서 산중회의를 갖고 '대통령의 종교이 어떻게 이럴수가'라며 격분했으나 결제기간임을 감안해 단체행동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교계의 요구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더이상 교권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인사에서 결재중 첫 대정부 관련 산중회의가 열린 것이다.

특히 금년은 불교자주화를 최초로 선언한 '해인사 9·7 승려대회' 10주년으로 안거가 끝나는 다음달 부터 총림을 비롯한 전국의 선, 강원 스님들이 대통령의 종교편향시정을 위해 앞장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해인총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개인 신앙생활을 탓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종교자유를 위해 타인의 종교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전재하고 "지난 1월 21일 김대통령의 국방부 중앙교회 예배과정에서 기독교인 장병의 참여를 높이기위해 타 종교인의 경계근무자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행위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행위로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과 윤리, 도덕, 종교적신념에 대해 심각한 염려를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해인총림은 또한 "지난 대선당시 전국 사찰을 돌며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퍼지게 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극구변명하며 불교도의 지지를 호소하던 김영삼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육군 17사단 군법당폐쇄, 부활절이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검정고시일자를 부처님오신날 이틀전으로 변경, 부처님오신날에는 국가자격고시실시등의 정책을 펼쳐 대통령이 특정종교를 우대, 종교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인총림은 따라서 편향된 종교정책으로 인한 종교간의 공존과 화합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대통령은 타종교의 교권유린에 대해 국민앞에 공개사과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보장, 준수 △지역감정과 종교를 정치활동의 수단활용 금지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이준엽 기자

3월실시 고교종합평가 '교계 비상'

전국조직 불교학생회 결성 시급

사찰 봉사활동 점수인정 안돼 불자학생 불이익

교육부 신교육과정에 따른 종합생활기록부가 96학년도의 시작인 내달 2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교계 차원의 대책마련이 늦어져 침체된 중·고교 불교학생회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올해 시행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종합생활기록부제도를 실시하며 기록인정을 문체부에 등록된 단체나 법인체에 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생활기록부란 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과외활동 장려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련, 봉사, 단체활동, 특별활동등 대내외활동이 기록되어 대입평가에 포함하는 제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광동여고 이학송교법사는 "불교학생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화하여 불자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불교종립학교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불교청소년의 해' 기획위원회가 전국의 중·고등학교및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는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1백72개교 사찰 3백34개 학생회등 총 5백35개 중·고교 신행단체로 밝혀졌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문체부에 가입했거나 법인화된 불교계단체는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이하 청교련)를 제외하고는 청년단체인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불교청년회, 진각종청년회등으로 청소년신행단체의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교계에서는 '청소년불자가 융성해야 불교의 미래도 예약할 수 있다'며 불교청소년단체활동의 종합생활기록부 점수인정과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청소년단체를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범종단적인 청소년단체가 빠른 시일내 결성돼 제반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있다.

이 어떻게 이럴수가'라며 격분했으나 결제기간임을 감안해 단체행동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교계의 요구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더이상 교권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인사에서 결재중 첫 대정부 관련 산중회의가 열린 것이다.

특히 금년은 불교자주화를 최초로 선언한 '해인사 9·7 승려대회' 10주년으로 안거가 끝나는 다음달 부터 총림을 비롯한 전국의 선, 강원 스님들이 대통령의 종교편향시정을 위해 앞장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해인총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개인 신앙생활을 탓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종교자유를 위해 타인의 종교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전재하고 "지난 1월 21일 김대통령의 국방부 중앙교회 예배과정에서 기독교인 장병의 참여를 높이기위해 타 종교인의 경계근무자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행위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행위로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과 윤리, 도덕, 종교적신념에 대해 심각한 염려를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해인총림은 또한 "지난 대선당시 전국 사찰을 돌며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퍼지게 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극구변명하며 불교도의 지지를 호소하던 김영삼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육군 17사단 군법당폐쇄, 부활절이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검정고시일자를 부처님오신날 이틀전으로 변경, 부처님오신날에는 국가자격고시실시등의 정책을 펼쳐 대통령이 특정종교를 우대, 종교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인총림은 따라서 편향된 종교정책으로 인한 종교간의 공존과 화합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대통령은 타종교의 교권유린에 대해 국민앞에 공개사과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보장, 준수 △지역감정과 종교를 정치활동의 수단활용 금지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이준엽 기자

김원우 기자

시 론

"떡을 달라고 하실 겁니까"



성 태 용
〈건국대 철학과교수〉

김대중씨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찾아 뵈었단다. 김종필씨는 월하 종정스님을 뵈었단다. 가뜩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국방부 구내 중앙교회 예배참석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불교계의 갈등관계가 심상치 않은 요즈음, 두 야당지도자의 행보는 우리의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 또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여권이건 야권이건 정치인들의 불교계를 향한 손짓·몸짓·말짓이 줄을 이을 것을 예상할 때, 이 두 거물급들이 그러한 정치계의 불교계 끌어안기에 포문을 연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또 얼마 동안 줄을 이을 정치인들의 불교계를 향한 추파를 생각하면 웬지 씁쓸한 생각이 들고, 또 지레 불교계를 위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아! 정치인들이 불교계를 상당한 비중으로 여기는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러한 정치인들이 참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불교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를 참으로 알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앞으로 있을 선거를 위해 손쉽게 불교계를 이용해 보자는 얄팍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듯 해서일 것이다. 또한 불교계가 그동안 그러한 정치인들의 천박한 추파에 넋이 빠져 쉽게 마음도 몸도 던져 주고는, 나중에 내 도끼로 내 발등을 찍었다는 아픈 후회를 너무도 많이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발등 찍은 아픈 기억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민족 문화의 유구한 뿌리를 지니고, 우리 민족의 심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불교적 정신을 현실의 정치속에 올바르게 다시 세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불교계를 보고, 불교계가 바로 서는 일은 바로 민족과 국가의,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올바른 관점을 지녀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비로소 불교계에 무슨 떡을 얼만큼 주어 불교계의 환심을 살 것인가 하는 얄팍한 술수가 아닌, 진정으로 불교계에 필요한 일을 찾아내어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된 정치 지도자라면 불교계에서 어떤 떡을 달라고 할때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교를 위해서도 그건 안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현실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정치인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우리 정치사와 불교사의 한 불행일 수도 있다. 우리 한국인의 자기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무지, 외래문화에 대한 경도 자체가 큰 문제이겠으나, 이런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정치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정치 이끄는 의연한 불교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바로 나에게서 비롯되듯이,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는 바로 불교계의 업보이기도 하다.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한 큰 전망 속에 정치를 이끌어 갈 만한 현실적인 가르침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집안 일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여 엎치락 뒤치락…. 그 와중에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라도 집안 싸움에서 이기려는 일부 불교인들의 행태로 인해 정치인들이 불교계를 눈아래로 보게끔 만들어 왔다. 이러한 모습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한 불교계는 계속 정치인들의 '떡'에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다행한 일은 우리 불교계가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뛰어넘을 만한 성숙한 의식을 지녀가고 있다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숙한 의식은 현대적인 포교와 사회활동의 방법,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함께 가져온 서양의 종교와는 달리 아픈 역사를 통해 스스로 체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좀 뒤늦었지만 든든한 뿌리를 지닌 힘으로 앞날의 역사를 헤쳐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그러한 불교계의 성숙한 의식의 일단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이제 불교계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점들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대는 민족의 문화 전통에 대해 얼마나 이해합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각 종교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 한국의 현실을 좀더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꿀만한 가르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현실 정치에 구현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불교계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앞서서 정치인들을 이끌어 가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정치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의연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불교의 위상이 높아질때 정치권에 대한 불교계의 요구도 말없는 가운데 조용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명서

〈대통령의 종교적 이기주의와 도덕불감증을 우려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다종교 사회,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종교가 중요하다면 남의 종교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21일 대통령의 국방부 종교센타 중앙교회에서의 예배는 심각한 종교간의 갈등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종교전쟁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개인 신앙생활을 탓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타인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군 심장부에서의 이번 예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우리 정치의 실상과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더욱이 군 중앙교회예배에 기독교인 장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타 종교인을 경계근무자로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행위는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위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과 윤리, 도덕, 종교적 신념에 대하여 심각한 염려를 느끼게 하였다.

지난 대선 당시 그는 불교도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사찰을 돌며 자신의 발언(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퍼지게 하겠다)을 극구 변명하였다.

그러나 어떤가! 김영삼 대통령 당선이후 육군 제17사단 국법당 폐쇄사건과 종교방송 설립허가 차별정책, 한국통신 관련 공권력 투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권유린이 발생되었고 지난해 4월, 부활절이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검정고시 일자를 부처님 오신날 이틀전으로 변경하면서도 부처님 오신날에는 국가자격고시를 시행하는 등으로 절정에 달한 정, 종유착의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통령이 특정종교를 우대, 종교이기주의를 조장, 이에 편승하여 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이해되며, 이는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유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편향된 종교정책으로 인하여 종교간의 공존과 화합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 **대통령은 국방부 중앙교회 예배시 타종교인의 교권유린에 대하여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준수하라.**
- **지역감정과 종교를 정치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
- **대통령은 종교편향 정책을 중단하고 종교간의 공존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라.**
- **이와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는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불기 2540年 2月 5日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종찰 해 인 사
해인총림 교권수호위원회 위원장

해인사소림선원 / 해인율원 / 해인사승가대학 / 산내각암자 / 본말사주지
해인사신도회 / 해인보리수 불교청년회 / 해인사종무소

법회 안내

광주 연화사 (062)227-7295

신중기도 매월 5·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광주 금광사 (062)375-3191

정기법회 매월 7일 오전10시
임시법회 매주 토 오후9시
청년법회 매월 둘째 일 오전10시

인제 강화사 (0365)461-7297

임시법회 매월 6일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월 21일 오전11시

부여 고란사문화원 (0463)835-9003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직지사 대구포교원 (053)557-3599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천도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정기법회 매주 금 오전10시30분
직장인 및 가족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불교대학 기초교리법회 매주 목 오전10시30분
대학생법회 매주 목요일 오후6시30분
청소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96 인물

「사랑의 소리」 방송작가 방귀희 씨

'푸른꿈' 심어주는 장애인 대모

방송·문학통해 재활의지 북돋워

"정직한 자세를 놓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포교죠. 그리고 방송원고를 통해 그 자그마한 원(願)을 자연스럽게 배어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몫이고요."

불교방송국과 KBS, 서강대학교가 함께하는 사랑의 소리 방송국을 열심히 오가며 소리 없는 포교를 펼쳐가는 방송작가 방귀희씨.(40) '방송은 청취자들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지켜온 경력 15년의 베테랑이 발휘된다.

방송작가 방씨는 "청취자 만족도를 생각하지 않고 쓰는 원고는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방씨가 방송작가로 입문하면서 15년째 함께하고 있는 KBS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내일은 푸른 하늘〉에서는 방씨의 그같은 철학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소아마비인 자신의 장애는 아랑곳 않고 하루종일 눈코뜰 새 없이 방송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발산하는 방씨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타인의 장애까지 감싸안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또 방씨는 96년도 새해에는 종단차원의 사회복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장애인문인협회를 창립했는가 하면, 〈솟대문학〉을 6년전 발간, 문학을 통해 장애인들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도록 하는데 모든 것을 바쳐오기도 한 방씨는 문학의 해를 맞아 솟대문학 출신 문인 개개인의 사기진작과 사회인식 저변화를 위한 창간 6주년 기념행사 마련으로 오늘도 분주하다.

도필선 기자



서울 시민위한 신년기원 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는 지난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3회 서울시민을 위한 신년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자리에는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운덕(태고종 총무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등 각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조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 각구 청장등 5백여명이 동참, 서울시민의 안위를 기원했다.



법련사 부처님 열반·십대제자상 점안

법련사(주지 현호)는 부처님 열반상 및 십대제자상 조성 봉안불사 점안법회를 지난 6일 봉행했다. 설정스님(조계종 중앙 종회의장)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번 점안법회는 승찬(송광사 방장) 현해(월정사 주지) 월탄(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종원(전 화엄사 주지) 무비(법어사) 명정(통도사 극락암 선원장)스님 등과 신도 2백여명이 동참했다.



골수기증 운동본부 창립

지난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을 비롯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각계 사회단체 대표 20여명이 '골수기증운동본부' 창립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골수기증 희망등록과 10만명 모집 캠페인 등 골수기증 등록운동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월주스님은 이날 골수기증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불교부산방송 개국 1주년 기념법회

불교부산방송(사장 류진수) 개국 1주년 기념법회가 지난 1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 문정수 부산광역시장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자리에서 류진수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7천만 겨레의 거룩한 역사를 창조하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교차로

둥지소년의 집 위문



종하스님(불교방송 이사장)는 대부도 둥지소년의 집을 방문해 세탁기 1대 이불 10채 성금 3백만원 등을 전달했다.

동해시 해동사서 법문

원행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지난 3일 12시 동해시 해동사에서 동해시 불교 사암연합회 주최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불자의 사명이란 주제의 법문을 했다.

미 프린스턴대학서 강의



종석스님(중앙승가대학 교학처장)은 오는 18일까지 미국 뉴욕 관음사와 프린스턴대학에서 법문과 밀교학을 강의한다.

불교교육대 포교사 수료식

이하우씨(부산불교교육대학장)는 오는 24일 제5기 포교사 과정 수료식을 가진다.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성문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지난달 3일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장에 부임했다.

월간 '해인' 주간 말아



도각스님(사자암 주지)은 최근 월간 〈해인〉 주간에 부임했다.

산중음식 유통본부 개원



적문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은 지난 9일 동사무실에서 (주)산중음식 유통사업본부 개업식 및 사업보고회를 가졌다.

대구대 총장후보로 피선



박윤흔씨(전 환경부장관)는 지난 7일 대구대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총장선거에서 새 총장후보로 선출됐다.

인사

조계종 조계종 총무원 감사국장에 현공스님, 호법국장 토진스님, 상임감찰 원공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바로잡습니다

64호 장미룡군 인터뷰 내용중 '시민고등학교'를 '심인고등학교'로, 교차로 제목중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불교대학원 3기 동창회장'으로 바로잡습니다.

고려 금속활자 재현 '유일한 인물'

공예부문 무형문화재 지정
오 국 진 씨



문화체육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속활자장과 옥장 등 2건의 공예 종목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했다.

새로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제101호 금속활자장이며, 옥장의 보유자로는 전남 목포의 장주원씨와 금속활자장의 보유자로는 충북 청주의 오국진씨를 각각 인정했다.

특히 이번에 금속활자장의 보유자로 인정받은 오국진씨는 독실한 불자로 '직지심경' 첫장의 복원을 비롯해 금속활자 계미(癸未), 경자(庚子), 갑인(甲寅)등 조선초기의 활자를 복원하는가 하면 고려에서 조선초기의 금속활자 제작방법을 실증적으로 재현해 내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꼽혀왔다.

〈우〉

게시판

▲자원봉사자 모집=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독서지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52-0525

▲기초교리 및 천수경 강좌=마하연부평포교원(원장 종연)은 오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2기 불교기초교리 및 천수경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032)513-5328

▲삼화불교대 졸업식=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은 오는 24일 제5회 졸업식을 동국대학교 동국관 A-L401에서 갖는다. (02)511-2026

▲불교문화 강좌=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은 오는 26일까지 '한국불교미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슬라이드를 곁한 불교문화 강좌를 마련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저녁7시~8시30분까지. (051)466-4080

▲교리강좌=영산불교대학(학장 석법장)은 제14기 교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오전10~12시까지 강의를 진행한다. (02)932-2333

▲제주도 사찰순례=춘천불교청년회(회장 강래철)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 사찰순례를 떠난다. 이번 순례는 관음사, 법화사, 약천사, 고관사, 산방굴사등을 둘아볼 예정이다. (0361)242-8802

▲보육교사 모집=중앙승가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은 오는 29일까지 제6기 보육교사2급 양성과정자을 모집한다.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02)909-5004

▲풍물강습=조계사 청년회는 오는 28일부터 제15기 풍물강습생을 모집. (02)735-3724

▲국제포교사연수생 모집=조계종포교원은 해외포교에 주력할 국제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2명(스님·재가신도)이며, 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02)720-7060~4

"북녘에 부처님 자비 펼 날 기원"

귀순불자모임 남순지장회 초대회장 김 명 철 씨



"창립일이 다가오면서 발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무사히 마쳤으니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으니 목적했던 일들이 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대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귀순불자들의 신행모임인 남순지장회의 초대회장 김명철씨(37)는 창립까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대한민국의 한 불자로서 부처님법을 펴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로 소감을 밝혔다.

"남순지장회란 명칭은 남쪽으로 귀순한 불자들의 모임이란 뜻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좌보처인 남순동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움을 북녘땅에도 펼치겠다는 저희 회원들의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김일성의 측근호위부대인 호위총국에 근무했던 '잘 나가던' 김씨는 지난 94년 7월 귀순해 부인과 8개월 된 아들 규태군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

"귀순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유와 인간적인 삶을 갈망했고, 그 길을 택한 용기있는 분들입니다. 같은 불자로, 부처님을 따르는 도반으로 대해주길 바랍니다."

아직도 남한사회가 낯설지 않느냐는 질문에 "생각하기 나름이지요"라고 짧막하게 답한 김씨는 "한반도 최북단인 함경도 회령에서 마라도까지 가본 사람은 세상에 단 한사람뿐이니 당연히 기네스북에 올라야 한다"며 여유를 보였다.

"통일이 되면 평양에도 지부를 설치해야죠. 북한동포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정성운 기자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님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 수 강 안 내

1. 전문반(강원코스)
- 사미과=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 사집과=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 사교과=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 의전과=기초의식(도량석, 종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욕, 대령)

2. 교양반(교양코스)
- 교리강좌=삼화표월지, 불교의 깨묵
- 경전강독=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 교양의식=삼화행도집
- 교양불교사=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등록 초

3. 수업요령
① 입학금 : 3만원(재학기간 유효)
② 수업료 : 각과목마다 월 2만5천원
③ 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림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바람

문의처 : ☎ (0346)68-1957(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 장 金 月 雲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포교사 연수생 모집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해외포교에 주력할 국제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연수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인원 : 12명(스님 및 재가신도)
- 참가자격 : 1. 불교 신도
  2. 영어수강 가능한 자(영어 말하기와 쓰기도 가능해야 함)
  3. 연령 20세 이상, 45세 이하 4. 강의 정규를 성실히 이행할 자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이력서 2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전형료 2만원)
  2차 필기시험 (불교교리, 불교상식, 영어로 출제)
  3차 면접실시 (영어회화)
- 접수시한 : 불기 2540년 2월 23일 (금)
- 접 수 처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 시험일정 : 불기 2540년 2월 24일 (토) 오후 1시
- 시험장소 : 자비의 전화 강의실 (조계사 옆 상운중심 지하, 전화 737-7378)
- 면접일시 : 추후통보
- 연수기간 : 2월 28일 ~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 9시, 토요일 오후 2시 ~ 4시)
- 연수과목 : 모든 과목은 영어로 진행 (특별초청 특강은 제외)
  불교 기본교리, 한국불교, 불교영어 어휘, 강연실습, 외국인과의 실습, 수련대회 등
- 연수자의 혜택 : 1. 연수자 전원에게 국제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
  2. 성적이 우수하고 원력이 있는 자에게 해외 사찰 및 관광사찰의 포교사로 추천
  3. 수석학생에게 해외 특별 포교순례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포교원 / 전화 : 720-7060~4

불기 2540년 1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이 성 타

"청정한 소리 안나면 목탁 아니죠"

산문밖의 禪

목탁장인 김종성 씨



지난밤 가야산 너머에서 한껏 휴식을 취했던 한겨울 태양이 기지개를 펴듯 깽한 햇살을 선사하는 시간, 청량(淸亮)한 독경소리가 하개금 마을을 뒤덮는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이십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있고 국기 게양대가 교사(敎舍)보다 더 크게 보이는 분교 하나 그리고 시원(始原)을 알 길 없는 정다운 개울물. 이같은 풍경이 반야심경과 어우러져 시골마을 전체를 흡사 고찰(古刹)처럼 느껴지게 한다.

성철스님 말씀 되새겨

김종성(金鍾成·49)씨는 바로 그 '고찰'에서 목탁을 깎고 다듬는 일을 리를 고집한다. 겉보기에는 볼 품 없어도 표면이 갈라지지 않고 변동이 없어 대물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동안 뻘밭에 묻어둔 살구나무 뿌리를 소금물에 적셔 가마솥에 찌는 것으로 작업은 시작된다. 충분히 찐 나무를 손도끼와 괴목 등으로 둥글게 만들고 골칼로 물고기의 아가미와 눈(구멍), 꼬리(손잡이)를 형상화한다. 이쯤해서 1차 소리점검이 있게 되는데 둔탁한 소리가 나면 영락없이 폐기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제구실을 할 수 있는 목탁은 구토(빨간 흙)를 세 번, 들기름을 일곱 번 바르고 난 뒤에 마침내 고고(呱呱)의 소리를 울리게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목탁이라면 그 청아한 소리가 십리밖에까지 닿는다고 한다.

"목탁만들기에 손을 댄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내깐에는 온갖 정성을 기울여 만든 목탁 하나를 해인사 백련암에 주석하시던 성철스님께 가지고 갔어요. 목탁을 두들겨 보시던 성철스님이 '이건 목탁이 아니고 그냥 나무일뿐'이라며 조용히 물리치시더군요. 그때 한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단순한 잔재주로만 목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성씨가 사는 하개금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불과 10년전인 85년의 일이다. 그전까지는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잘려 선혈(鮮血)이 목탁 전체에 퍼졌을 때에는 자신의 가난과 무학(無學)을 원망하기도 했다. 부인은 돈벌이도 되지않는 일일랑 당장 걷어치우자고 역정을 내 그를 허탈에 빠지게도 했다.

그런 세월속에서도 김씨가 목탁을 외면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셋째아들에 기술전수

"작업에 열중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꼭 내집이 사찰처럼 느껴져 우리집에 좋은 목탁하나 남겨 놓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종성씨는 지금도 목탁제작으로 얻는 수입과 땅 25평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다. 33대째 살아오는 고향땅에서 그만한 땅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사람들이 쉽게 믿으려 들지 않는다는 김씨는 "내집이 바로 사찰인데 무에그리 재산이 필요하겠어요"라며 천진스런 웃음을 웃는다.

요즘은 셋째아들이 자신의 일을 배우겠다고 나서 기술전수에 여념이 없다. 여느 장인들처럼 제자를 거느릴 수 없는 처지에 아들이 목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니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철저한 수작업으로 한달에 대여섯 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목탁이지만 수요가 그다지 많지않아 생활은 항상 쪼들릴 수 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목탁은 부품이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현대의 이기(利器)와는 그 근본이 다릅니다. 웬만큼 해서는 깨지지 않고 나무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고귀한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닳아 없어짐'

수행자는 실체가 없는 마음을 알고 그것을 닦는 일에 열중한다. 온갖 업(業)과 탐진치 삼독(三毒)으로 겹겹이 쌓인 마음자리를 닳아 없어질 때까지 깎고 다듬는 일에 매달린다. 김종성씨에게 있어 '닳아 없어짐'은 '채움'의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아침이면 항상 집밖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독경소리가 그가 만드는 목탁 나무 켠켠사이로 스미게끔 하는 까닭이다.

거창=박병근 기자

"삼독 닳아 없어질 때까지 법구 만들자" 30년 외길

"작업열중하면 마음 절로 고요 내집이 사찰처럼 느껴지니 재산이 무슨 필요있겠어요"

30년이 넘게 해오고 있다. 사람들은 세월의 무상함을 쉽게 이야기 하지만 30년이라면 만만치 않은 시간이다. 목탁행상을 하던 선친(先親)의 뒤를 이어 직접 제작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것이 17세. 그때부터 그가 만들어낸 목탁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자신도 모른다. 다만 전국의 알만한 사찰에는 자신의 손때묻은 작품이 대개 있을 거라는 추측뿐.

무엇이든 깡그리 기계의 편리함과 신속성에 자리를 내어주는 세상흐름에서 목탁은 예외이다. 목탁은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고 살아가는 물고기를 보고 수행자로 하여금 자지말고 수행 정진하라는 뜻으로 만든 목어(木魚)가 변형화된 법구(法具)이다. 그런 뜻을 간직한 목탁이기에 쉽게 기계의 유혹에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목탁은 청정한 소리로써 수행승려나 민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청정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목탁이 아니죠."

목탁은 깨달음을 향한 구도자의 수행만큼이나 탄생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목탁을 만드는데는 대추나무, 박달나무, 은행나무, 궤목 등이 쓰이지만 김종성씨는 백년이상된 살구나무 밑뿌

절짓는 대신 풀 한 포기 꽂은 뜻

문 부처님 일화에 대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때 대중과 더불어 길을 가시다가 한 곳에 이르러 여기가 명당이니 이곳에 큰 사찰을 지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제석천왕이 그 말씀을 듣고 나타나서는 풀 한 포기를 땅에 꽂고 다 지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가르침인지요. 〈이중환·서울 서초구 잠원동〉

답 부처님께서 여기에 절을 짓는게 좋겠다고 하신 것이나 제석천왕이 풀한포기 꽂은 것이나 다 한자리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 일체중생의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풀 한포기 딱 꽂혔으니 그대로 대가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짓고 했으니 말입니다.

말이 났으니 말입니다만 혼자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 하나를 먹는 것도 그렇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혼자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는 것이지요. 또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중생이 우굴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니 어떤 때에 나 혼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토록 광대무변한줄 잘 아셔야 합니다.

찬불가 부를때 눈물 쏟아져…

문 법회에 참석해서 찬불가를 부르던 중에 왈칵 눈물이 쏟아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슬픈 감정이 솟구친 것도 아닌데 법회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런지 제 자신도 모릅니다. 〈진형자·광주 북구 두암동〉

답 업장이 녹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회할 때 눈물을 흘리지요. 그와 같습니다.

봄이 오면 얼었던 물이 녹아 졸졸 흐르듯이 마음에 봄이 오니까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슬픈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고 딱히 참회하는 마음도 아니었는데 왜 어느 순간에 눈물이 흐르느냐? 그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실의 나는 몰랐다고 해도 과거부터 수억겁 내려온 그 나는 쫓고 쫓기면서 살아온 눈물겨운 사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과거의 수많은 의식들이 한 순간에 참회의 계기를 만나 녹는 것입니다.

삼독을 멀리할 방법은

문 일찍이 한암선사께서 '탐진치 삼독만 멀리하면 성불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앉은자리에서 부처가 된다'고 하셨답니다. 달마조사께서도 '진성은 조금도 어둡지 않아 항상 밝고 자재하건만 중생이 스스로 생사고를 짓고 자기가 받는다. 마음가운데 망념 여의면 본래가 부처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같이 될 수 있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최예분·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답 삼독이 어디 따로 있는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씀에 있지요. 지금의 내 마음씀은 과거·현재·미래의 교차로에 있구요.

그 삼세심이 무명을 벗지 못하면 그대로 삼독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독심을 여의려면 그대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잡쇠를 용광로에 쓸어 넣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쓸어 넣으라니까 넣는다고는 하는데 요건 요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조건을 붙인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탐·진·치, 삼독에 아만까지 보태서 넣으니 그건 용광로에 넣으나 마나이지요. 무조건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어 나오든 일단 용광로에 쓸어 넣으면 그뿐입니다. 무엇이 나올지는 지켜보면 압니다. 그게 관하는 법이지요. 그래야 삼독이 녹고 무명이 벗겨집니다. 무명 벗겨지면 그대로 한마음 여여하여 자재로울 밖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무조건 놓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무조건이 아니면 그건 벌써

법회때의 신심 금방 사그라져

문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듣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한동안은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전처럼 되어버립니다. 다시 스님 말씀 떠올려 보고 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지만 잘 안됩니다. 신심이 약한 탓이겠지요.

〈한동우·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답 우리가 사용하는 녹음기나 라디오도 약을 끼워서 작동시키는 게 있고 전기코드를 꽂아서 쓰는게 있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약을 끼워 쓰는 것과 같고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코드꽂아 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이 떨어지면 갈아끼워야 쓸 수 있듯이 가르침을 따르는 힘이 약해질 때면 도량을 다시 찾고 법문도 듣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음도리를 잘 알아서 일체가 한마음이요 우주전체가 다 가설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그때는 자동으로 마음껏 전력을 끌어쓰게 될테니까 안와도 온 것이고 와도 안온 것이고 그냥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학교 다니며 공부할 때도 제 스스로 해낼 능력이 붙을 때까지는 꼬박꼬박 학교엘 가야하고 수업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괜히 믿음이 약한가보다, 근기가 납만 못한가보다 하는 생각하질 마시고 묵묵히 열심히 하세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경고문

◎ 최근 종단 개혁을 저지하고자 준동하는 일부 해종세력에게 경고함 ◎

지난 1994년 종단 개혁 불사에 동참했던 우리 불교 단체들은 최근 종단 개혁을 저지하고자 준동하는 일부 해종세력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바이다.

첫째, 조기현씨는 전국신도회 재건 기도를 즉각 중지하고 '상무대 비자금' 사건과 과거 전국신도회를 정치와 유착시킴으로서 2천만 불교 신도의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자숙하라.

최근 조기현씨는 2월 9일 전국신도회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조직 재건을 하겠다는 지상공고를 하였다. 조기현씨로 말하면 과거 상무대 이전 공사 대금중 80억 원을 동화사 대불 공사 시주라는 명목으로 돈세탁을 하여 부정한 자금을 정치권에 유입케하여 사법처리를 받은 인물이며, 최근에도 검찰 조사 내용이 지상에 보도된 바 있다. 또한 과거 신도회장으로 활동할 때도 정치권과 결탁하여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을 추구함에만 노력하여 이천만 불교 신도들의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이다.

이러한 매불 부정 비리자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며 자숙하지 아니하고 총선 등 정치계절을 맞아 또다시 불교권을 정치권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키고자 전국신도회 부활을 기도하는 행위는 이천만 불자의 이름으로 규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더욱이 종단은 지금 개정된 종헌 종법에 따라 여법한 중앙신도회를 결성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국의 불자들은 이에 수회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둘째, 황한수(과거 불명 : 진경)씨 등 해종 세력은 종단 생활 중에 저질렀던 각종 잘못을 참회하고, 종단 문제를 사회 법정에 소송 제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황한수씨 등은 과거 종단에 몸담고 있던 시절에도 각종 비리와 부정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를 받는 등 종단의 큰 암적 존재로 치부되고 있던 중 종단 개혁 기간에 거듭된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가 승적을 박탈당한 대표적인 해종행위자이다. 이러한 자가 최근에도 승적박탈자 및 나이 어린 과거 종단의 권속들을 부추겨서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은 천인공노할 파화합적 매불 행위로서 전 불자의 이름으로 엄히 규탄하는 바이다.

더욱이 종단은 새로운 종헌 종법을 통해 '소청심사위원회', '초심·재심 호계원', '법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자체 심의 의결기구가 있어서 종단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단의 문제를 사회 법정에 끌어내어 종교 문제를 사법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심지어는 정치권의 흥정 대상으로까지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은 불교 자주를 천명하는 개혁 종단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해종행위인 것이다.

셋째, 종단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14개 불교단체는 조기현, 황한수씨 등이 이상과 같은 해종 매불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기왕의 일을 참회하여 자숙하지 아니하고 해종 행위를 계속할 때에는 종도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불기 2540(1996)년 2월 7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선우도량
전국승가대학 학인연합 /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동국대 석림회 / 한국재가불자연합
한국불교재가회의 / 전국불교운동연합
대한불교청년회 / 대불련총동문회 / 불교시민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인터네트로 불국토 앞당긴다

태국서 23~27일 국제네트워크 참여불교대회

평화·인권·여성 등 인류문제 해결 모색
단체간 협력강화·'UN 자문기관' 추진도

인권, 여성, 사회개혁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불교가 국제적인 통신망인 인터네트를 통해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북쪽에 위치한 매홍손(Mae Hong Son)에서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불국토를 실현을 앞당기고자 인터네트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 장들이 국제 네트워크 참여불교 (International Network Engaged Buddhism, 약칭 INBE)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INBE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각 단체간의 긴밀한 공조체제 속에서 대사회 참여 불교 운동을 면밀히 진행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INEB 대회에는 슬라크 시바라크사(Sulak Sivaraksa, 태국), 엘런 세나우크(Alan Senauke, 미국), 마루야마(Rev. Maruyama, 일본), 바우 록핸드(Bhau Lokhande, 인도) 등을 비롯 약 3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회 준비에 앞장섰던 슬라크는 작년 12월 스웨덴 의회에서 제2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정의로운 생애賞〉을 수상한 바 있는 태국의 대표적인 사회운동가이자 독실한 불교신도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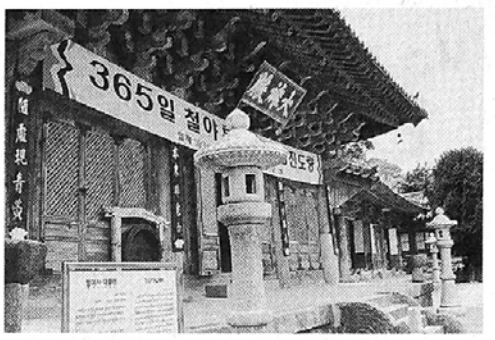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대회를 통해 슬라크와 마루야 마스님은 INEB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 및 INEB가 직면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각 단체대표들은 INEB 활성화를 위해 재정, 정책, 단체간의 연계성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류한다. 특히 INEB는 이번 대회를 통해 UN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당찬 포부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 대회에서는 INEB의 현안 토론 이외에도 베네티아 월키의 작품 〈진리의 공원, Dhamma Park〉이 비디오로 상영되며, 아웅산 수지여사의 민주화운동의 성공과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축원법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캄보디아에서 당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태국 매홍손으로 개최지가 옮겨진 데에는, 대회 성격과 걸맞게 대회개최기금 일부를 여성 및 어린이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슬라크가 태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교육정신개혁운동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개최지 선정에도 큰 의의가 있다.

INEB 외에도 현재 국제적인 통신망 인터네트에는 다양한 압력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리고 있다. 이들 중에는 평화, 인권, 사회정의 등의 실현을 위해 조직된 PeaceNet, 여성문제를 다루는 WomensNet, 노동문제를 다루는 LaborNet 등이 다양한 통계자료 및 보고서 등을 통신망에 올리며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증욱 기자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범어사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

摩訶大法王(마하대법왕)
無短亦無長(무단역무장)
本來非皂白(본래비흑백)
隨處現靑黃(수처현청황)

거룩하고 위대하신 법왕님은
짧지도 또한 길지도 않으시며
본래 향기로운 말씀도 아니시며
모든 곳에 근기따라 황청으로 나타나신다.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뜻이다. 길다 짧다 하는 인식은 부처님 법의 크기를 재는 척도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정이야말로 지극히 커다란 긍정인 셈이다.

'눈높이 설법' 펴시는 부처님 그려

해설 범어사는 부산시 금정구의 금정산에 위치한 조계종의 제14교구 본사다. 금정산의 수려한 자락에 세워진 이 절은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웅전은 보물 제434호로 조선 숙종때 중창됐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방형평면을 이루고 있다. 주련의 내용은 부처님의 법이 위대한 이유를 매우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우선 중간의 2,3구에 표현된 '…아니시며'라는 부정의 성격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법왕은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법이 짧지도 길지도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인식의 범위 속에 잠겨있는 '길이'란 개념을 초월한다는 또 세번째 구절의 본래 향기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부정도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구절의 '근기따라'란 의미가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설법은 대기설법이다. 국민학생에게는 국민학생에 맞게 대학생에는 대학생에 맞게 대상의 근기에 따라 진리의 실체를 설명했던 것이다. 이른바 눈높이 교육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냥 '향기롭다'는 의식적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뜻에서 부정어법을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白'자는 '말하다·말씀'의 의미이다. 우리가 흔히보는 경고문구에서 '…주인 백(白)' 할 때와 같은 의미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선암사는 건축미학사에 중요한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유명한 선암사 승선교(보물 제40호).

선암사건축 공간미학 빼어나

김홍식씨 밝혀… 선종·천태·밀교방식 혼용

순천 선암사에는 선종에서부터 밀교계통의 공간미학까지 담겨져 있으며, 건축미학사에 중요한 표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홍식교수(명지대 건축과)는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문화재 28호〉에서 '순천 선암사의 공간미학-조선후기 선종의 공간미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교수는 선암사가 유식(법상종)처럼 3층석탑을 쓰고 문지 앞 자리에 석축과, 강당 자리에 석축이 있는 것은 화엄의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 중문 앞과 강당 앞에 높은 축대(팔상전 불조전)를 쌓은 것으로 보아 선종이 그 뿌리를 화엄에 두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통 해탈문 안에 천왕문이나 금강문을 두고 다락집을 대웅전 앞에 주는 일반적인 양식과는 달리 선암사가 이와는 반대의 양식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천태종 사찰을 계승해서 번용하다보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승선교 아치 안의 음혁같은 용머리는 태허(태음)가운데도 소양이 있다는 당시 사상철학, 즉 음양의 미학이 지배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탈위에 서 있는 일주문은 우리나라 선종사찰의 진입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으로 음악적 율동을 주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원통전 공간은 대웅전과 지장전 틈새가 근경이 되고 대웅전 뒤의 뒷마당이 중경이 되며, 불조전과 팔상전이 이루는 비좁은 틈새가 원경이 되는 원근법적 시간·공간미학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95 화제의 박사논문

노귀남씨 '한용운 詩의 相 연구'

실천을 중요시했던 '대승불교 사상'에 바탕을 둔 '상(相)의 개념'을 도입해 한용운의 문학세계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흥미를 끌고 있다.

사상과 문학을 매개하는 연구의 방법론으로 '相'의 개념을 원용한 노귀남씨는 95년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한용운 시의 '相' 연구-시집 '님의 침묵'을 중심으로〉를 통해 지금까지 한용운 시와 관련해 발표된 연구과정 및 결과와는 다른 방식의 개념으로 한용운 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노씨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인 '相'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토대로 삼은 것은 〈금강경〉과 〈대승기신론〉. '相'은 원래 불교용어로 물질과 정신의 일체만유를 의미하는 법과, 空함을 말할 때 본체로서의 법과 상통하는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경〉은 중심사상이 空이면서도 공을 직접 언급한 바가 없으며, 단지 相을 거듭 부정하는 파격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 空을 간파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씨는 또 〈대승기신론〉에는 객관주체와 인식주체의 관계를 하나로 보는 불이법(不二法)이 정립돼 있는데 이 역시 존재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부정법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 문학이론에 적용돼 온 정법의 논리인 서구의 인식론은 불이법을 관념의 세계로 치부해 버리는 오류를 범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相이 非相과의 관계에서 존재와 인식과 실천의 문제란 관점에서 본다면 '님의 침묵'의 님, 나, 이별, 죽음 등의 존재는 모두 존재 자체로 고정된 의미가 아닌 존재, 인식, 실천 측면의 연기적 구도로 돼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만해의 문학과 사상은 불립문자의 현실주의 문학이며, 회향의 사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립문자의 선의 세계를 취하면서도 죽음의 시대에 항거한 실천사상과 주체와 대상의 관계구조인 相이 자기를 버림으로 인해 하나의 세계, 즉 불이(不二)의 상을 지향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립문자·선·실천 연기적구도
현실참여로 회향

김일명씨 '삼국유사에 나타난 가족윤리'

〈삼국유사〉를 가족윤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속에서 부부관계 및 효의 윤리를 다룬 논문이 나왔다.

김일명씨는 95학년도 동국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인 '삼국유사에 나타난 가족윤리에 관한 연구'에서 〈삼국유사〉가 다루고 있는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김씨가 개념화한 동고동락형(혁거세-아리영 유형), 문화융합형(서동-선화 유형), 정략혼인형(춘추-문희 유형), 자유재혼형(원효-요석 유형), 선공후사형(김제상-국대부인 유형) 등 다섯가지의 부부관계유형.

특히 원효와 요석의 경우는 승려와 공주라는 신분을 인간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으로 윤리적 제한을 뛰어넘었으며, 요석의 재혼으로 보아 이 시대의 여자의 재혼문제는 신분고하에 관계없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삼국유사〉에 나타난 부부관계의 윤리적 특성은 인격적 평등관계를 유지했으며 '정절'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흥미를 끌고 있는 부분은 효의 여러측면과 효·선의 윤리적 측면 분석을 통해서 본 '부모-자녀간의 유형과 윤리의 특성'. 김씨는 〈삼국유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효의 측면을 불사를 통한 효, 자기희생을 통한 효, 현세적 효와 출가의 문제 등 3가지로 분류했다.

불사를 통한 효의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 불사를 행한 경우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불사를 한 경우 등 부모-자녀간에 있어 일반적이 아닌 상방적 윤리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출가문제와 현세적 효는 '효선'편 진정스님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정리했다. 이들 사례를 볼 때 당시 사회는 출가와 효가 둘이 아니라는 건강한 윤리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또한 효의 사회적 확대체로 善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당시 시대에는 공통분모인 孝·善을 끄집어 냄으로써 삶과 유리되지 않은 우리의 일상성에서 淨土를 구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출가는 효이자 善" 인식
생활속의 정토추구도 엿보여

24일 '불교와 기독교 비교연구' 월례발표회

보조사상연구회(이사장 현호)은 오는 24일 법련사에서 '연구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의 주제는 '불교의 법과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에 대한 비교연구의 가능성 고찰'이며 발표는 류제동씨(서강대 종교학과 박사과정)가 맡는다.

한편 보조사상연구원은 매월 2회에 걸쳐 '불교 유식론'과 '보조어록' 강독을 개최한다.

승가대 '불교사 연구' 창간
'폐사지 간보' 도 2회 간행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소장 흥선)은 오는 4월 불교사학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교사연구〉를 창간한다. 또 연구소는 국내전역에 산재한 폐사지를 지표 조사해 〈폐사지 간보〉를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발행할 예정이다.

포교현장의 전문법사양성 (3년과정)

'96학년도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불교전문연구원 개설 취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이제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보살도를 중생속에 실천하는 사명감 있는 전문법사, 포교사를 양성코저 3년과정의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을 개설함.

개강 : 1996년 3월 4일 (월), 5일(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96. 3. 4 ~ '96. 7. 29)	무량수경 (장휘옥 교수 : 전 동국대 교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96. 3. 5 ~ '96. 7. 30)	유마경 (박종 교수 : 한국인성개발 연구원장)

※과목별 주 1회 강의(1학기 5개월)

2. 교과목 및 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정전과정 (매주 월요일)	1학기	무량수경	1학기	화엄경(십지품)	1학기	아함경 Ⅱ
	2학기	여래장사상	2학기	아함경 Ⅰ	2학기	금강경
응용과정 (매주 화요일)	1학기	유마경	1학기	불교미술	1학기	불교의식 Ⅰ
	2학기	구사, 유식	2학기	비교종교론	2학기	포교당경영론

• 무진장 스님(전 포교원장) • 한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 종범 스님(승가대 교수) • 정병조 교수(동국대 교수)
• 권기종 교수(동국대 교수) • 서윤길 교수(동국대 교수)
• 권탄준 교수(동국대 교수) • 박은곡 스님(홍천안양사주지)
• 한정섭 박사(불교교화원장) • 홍윤식 교수(동국대 교수)
• 박종 교수(한국인성개발연구원장) • 장휘옥 교수(동국대 교수)

※과목별 주 1회 강의(1학기 5개월)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포교사 취득자	①입학원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반명함판사진 3장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자기소개서 1통	96년 2월 3일 ~ 3월 2일 (토)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 9시 (본연구원 법당)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 가능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경전과정(6과목 이수), 응용반(5과목 이수) 합하여 11과목 이상 이수자에 연구원 졸업장(전문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문의전화 : 732-1206 ~ 8, 722-0408 / FAX : 732-1207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원장 무진장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1996년도 도시생활 포교사를 위한(1년 과정)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처럼 다양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중·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한 불교의식의 숙달로 생활 속에서, 특히 경조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 1기생을 모집합니다.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6년 3월 9일 (토) 오후 2시 30분	
지도법사 : 권지흥 법사·운곡스님	
한글불교의식 Ⅰ (상반기)	한글불교의식 Ⅱ (하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매장·화장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3. 모집방법 및 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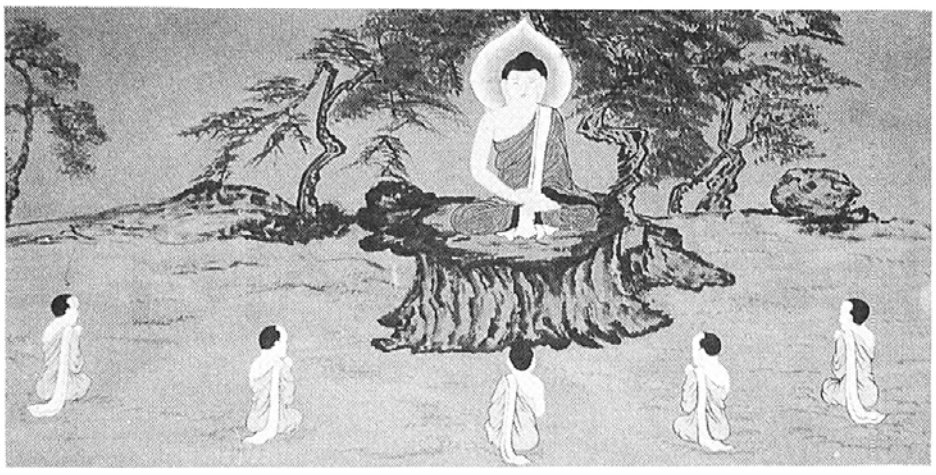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장소
정규반 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96년 2월 5일 (월) ~ 3월 8일 (금)	매주 토요일 오후 2:30~4:30 (동산법당)

4. 입학금 • 일십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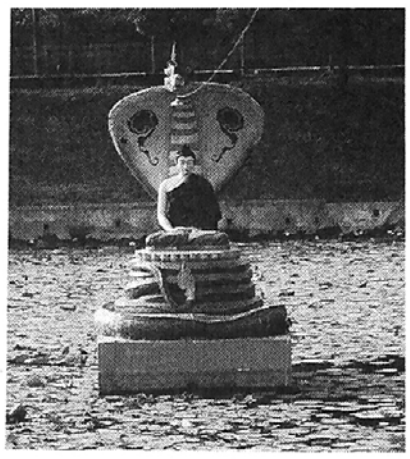
5.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 사무국 (732-1206~8 / FAX : 732-1207)

6.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보리수 아래서 무상정등정각을 이룬 부처님은 수행자 시절 함께 고행했던 다섯 비구를 찾아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했다.



◇뱀의 왕 나가는 7개의 머리로 또아리를 틀어 성도 후 선정에 든 부처님의 머리 위에 지붕을 만들었다. (대보리사 연못에 있다.)

"마침내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⑤

전설상의 佛陀 〈3〉

녹야원으로 간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했다 중도 실천방법인 팔정도와 망집 제거하는 사성제를 설한 그날 이후 지상에는 여섯 성자가 거주 불·법·승 삼보가 이루어졌다.

마라 불화살과 여인들의 유혹을 이긴 태자는 번뇌 불꽃과 생사매듭이 풀어지는 것을 보았다 우주를 한눈에 보고 인과 사슬을 살폈다

그때 애정과, 죄악과, 죽음의 고인 '마라'가 싯다르타를 공격했다. 마라의 공격은 긴밤 내내 계속되었다. 공격을 시작하기 전 마라는 곰속에서, 자신의 왕관이 떨어지고 궁궐의 꽃은 시들고 연못은 말라버리고, 악기 줄이 끊어지고 자신의 머리 위로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 자기 칼이 칼집에서 뽑히지 않는 것을 보았다. 화가 난 마라는 악마들, 호랑이들, 사자들, 표범들, 거인들, 뱀들로 구성된 자신의 군대를 총동원했다. 그중에는 야자나무처럼 키가 큰 놈도 있었고 난장이처럼 작은 놈도 있었다. 맨앞에는 산만한 크기에 500개의 머리와 불을 뿜는 500개의 혓바닥 그리고 각각의 손에 다른 무기를 든 팔이 천개나 되는 거대한 코끼리가 싯다르타를 향해 달려들었다. 마라의 군대는 싯다르타에게 불화살을 퍼부었다. 그러나 불화살은 싯다르타의 사랑의 힘에 의해 꽃잎으로 바뀌어 떨어져 내렸다.

불화살은 화대(花臺)가 되어 싯다르타의 주변에 쌓였다. 패배당한 마라는 자신의 딸들로 하여금 그를 유혹하게 했다. 그를 둘러싼 여인들은 음악을 연주하며 교태를 부렸다. 싯다르타는 여인들에게 그들의 본질이 환영(幻影)임을 일깨웠다. 손가락으로 여인들을 가리키자, 곧 추한 노파로 변해버렸다. 혼란에 빠진 마라의 군대는 사분오열되어 각지로 흩어졌다.

홀로 나무아래 정좌(定坐)한 싯다르타는 번뇌의 불꽃과 생사의 매듭이 풀어지는 것을 보았다. 모든 이치가 그 앞에 밝게 드러났다. 그는 자신과 모든 중생의 수많은 전생을 낱낱이 보았다. 우주 구석구석의 수없이 많은 세계를 한눈에 전관(全觀)했다. 그뒤 모든 인과의 사슬을 살펴보았다.

이윽고 새벽녘에 이르러 사성제(四聖諦)와 삼법인(三法因)을 직관하였다. 이제 그는 태자 싯다르타에서 부처님이 된 것이다. 천상의 신들과 미래불들이 그를 칭송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나는 진리를 찾아 수많은 생의 수레바퀴를 전전했다. 그토록 자꾸 태어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마침내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생사의 윤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칼 프리드리히 쾨펜 Karl Friedriech Koppen에 의하면) 여기서 네팔과 티벳의 경전이 갈라지면서 전설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끝이 난다.

부처님은 성수(聖樹)아래 7일간을 더 앉아 있었다. 신들은 그에게 음식과 옷을 바치고 향을 피웠으며 꽃을 던지면서 축하했다. 비가 오자 뱀의 왕 '나가'가 자신의 7개의 머리로 둥그렇게 똬리를 틀어 불타의 머리 위에 지붕을 만들었다. 비가 그치자 나가는 젊은 브라만으로 변해 무릎을 꿇고 말했다.

"당신을 놀라게 하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와 추위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드리려고 한 것 뿐입니다."

나가는 부처님과 몇마디 짧은 말을 주고 받은 뒤에 부처님께 귀의했다. 이어 한 신이 다가와 나가의 뒤를 따라 재가불자로 귀의했다. 동서남북의 공간을 지배하는 네명의 왕이 다가와 부처님에게 각각 석기(石器) 하나씩을 바쳤다. 부처님은 그들의 뜻을 존중하여 네개를 녹여 하나로 만들었다. 이후 40년간 부처님은 탁발할 때 그 바루를 사용하게 된다.

브라흐마신(梵天)이 수행자들을 이끌고 천상에서 내려와 부처님에게 중생들을 구제할 설법을 하시도록 간청했다. 부처님은 마침내 이 간청을 받아들였다. 대지의 정령이 공기의 정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공기의 정령은 천상각지의 온갖 신들에게 이 기쁜소식을 전했다.

부처님은 베나레스시를 향해 걸어갔다. 서문으로 들어가서 탁발을 한뒤 녹야원(鹿野苑)으로 갔다. 그곳에서 지난날 고행을 포기할 때까지 함께 수행하던 다섯 수행자들과 재회하여 그들을 위해 최초의 설법(初轉法輪)을 했다. 그들에게 세속적인 쾌락의 삶과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의 삶의 양 극단을 떠나 중도의 삶을 걸어야 한다는 '중도(中道)'의 가르침과 중도의 구체적 실천방법인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명상'의 팔정도, 그리고 망집(妄執)의 제거를 통해 고를 극복하는 '사제(四諦)'의 가르침을 설했다. 그말을 듣고 깨달은 다섯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어느 경전에 전하기를 그날 이후 지상에는 여섯명의 성자가 거주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가 이루어졌다.

편역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이 만 희 〈희곡작가〉



내 고향은 충남 대천이다. 국민학교까지는 대천에서 다녔고 중학교는 서울로 진학하였다.

불교와의 첫 인연이자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다.

겨울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 갔는데 시골집은 엉망진창이었다. 뽀얗던 어머니 얼굴엔 기미가 잔뜩이었고 아버지는 빚쟁이들한테 시달려 몸져 누워계셨다. 집이 망해서 논밭은 물론 우리가 살던 집까지 '곧 넘어간다고 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아버지는 빚쟁이들에게 붙들려 어딘가로 끌려가고 어머니는 이웃집 아주머니 악다구니를 고개를 떨군채 죄인마냥 다 듣고 있었다.

사바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려오지 말라니까 뭣하러 내려왔어?"

나는 울고 있었다.

"따라와."

어머니를 따라 버스를 타고 두시간쯤 갔다. 또 한참인가를 걸어서 도착한 곳은 부여에 있는 무량사였다.

어머니는 요사채 마당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총무스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후 들어오라고 했다. 총무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다. 무겁게 입을 떼셨다.

"만희야."

"예."

"겨울방학동안 우리 무량사에서 지내면 어떨꼬?"

"예."

"세상엔 공짜가 없자?"

"…"

"잠은 이 방에서 나하고 하냥 자면 될 것이고 밥 값으로는 대중스님들 시봉을 들도록 해라."

어머니는 날 힘끔 쳐다보고는 산을 내려가셨다. 어머니의 축 쳐진 뒷모습이 날 아프게 했다.

그날부터 나는 스님들 방에 군불을 지피고 수발을 들고 차 심부름도 했다. 무섭기만 했던 스님들도 시간이 점차 흐르자 온화한 얼굴로 바뀌어 갔다. 가끔씩 집 생각이 났다. 그때마다 큰법당 부처님께 빌었다.

"우리 부모님을 안 울게 해주세요."

나중엔 산책하면서 찻물을 끓이면서도 비는 것이었다. 산중생활이 심심하기도 했지만 그럭저럭 물들어 갔다. 이런 나를 보고 스님들이 가끔씩 농을 건넸다.

"저놈 저놈 영락없는 중팔자로고."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 갈 어느날이었다. 총무스님이 날 불렀다.

"앞으로 사흘동안 원주스님 방에서 자도록 하거라."

잘 됐다 싶었다. 총무스님과 함께 잘 때면 무서워서 다리를 쭉 뻗지도 못할 정도였다. 게다가 원주스님은 무량사에 계신 어떤 스님들보다도 인간적이었고 그 방엔 떡과 과일 등 먹을 것도 많았다.

밤이 되어 이부자리를 펴드릴 양으로 총무스님 방에 갔다. 스님은 가부좌 상태로 면벽 중이었다.

"아! 저게 바로 참선이라는 거구나."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총무스님은 그 자세로 곰짝 할 줄을 몰랐다. 약속한 사흘이 지나자 총무스님이 나를 불렀다.

"힘들 때는 마음을 가라 앉혀라"

무량사의 눈내리던 밤 평생 잊을 수 없어



"방학이 며칠 안 남았지?"

"예."

"오늘부터 내 방에서 같이 자자."

"예."

밤이 되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쌩쌩거렸다. 총무스님은 잠자리에 들면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그 날은 달랐다.

"만희야. 그동안 느낀 게 뭐 있느냐?"

"…"

"부모님 생각에 힘들었지?"

"예."

"그래 그랬겠지. 앞으로 살아가노라면 힘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땐 차분하게 앉아서 벽을 쳐다보며 마음을 가라 앉혀."

삼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무스님의 소근소근거리던 말씀이 내겐 쩌렁쩌렁 울린다. 난 지금도 참으로 말 많은 동네에 살고 있는 셈이다. 내가 하는 연극이 그렇고 문학이 그렇다. 사건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다. 그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절에 있을 걸 사바세계에 괜시리 내려왔죠?"

난 씨익 웃는다.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는 하드라마는…."

난 아직도 무량사의 눈 내리던 밤을 잊지 못한다. 그 흡던 겨울방학은 내게 일생을 살아가며 배워야 할 가장 큰 가르침을 던져준 귀한 시간이었다.

1996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출가희망자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 (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예정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38명 취득 예정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6년 2월 23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511-1080, 511-2026·2027·2028, 조계사앞 삼보원:732-9904, 경주제일서점:772-2338
부산영광도서:816-9500, 대구 제일서림:424-0801, 인천 대한서림:762-7337
삼복서점:222-0258, 대전 문경서적:252-8558, 수원 교학사:251-3928
마산 학문당:46-2925, 전주 홍지서점:88-5311, 청주 일선문고:53-2360
김해 오복당:36-2105. 포항 학창서림:46-2120, 강릉 강릉서점:645-4373 공주신광서점:55-254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1080, 511-2026·2027·2028)

삼 화 불 교 대 학 135-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511-1080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46〉

芙蓉楷禪師小參 (부용해선사소참) ③

爾不見 達磨西來 少室山下 面壁九年
이불견 달마서래 소실산하 면벽구년
二祖至於立雪斷臂 可謂受盡艱辛
이조지어입설단비 가위수진간신
然而達磨不曾指了一辭
연이달마부증조료일사
二祖不曾問着一句
이조부증문착일구
還喚達磨 作不爲人 得麼
환환달마 자불위인 득마
二祖 做不求師 得麼
이조 주불구사 득마

그대들은 보지 못했는가. 달마가 서쪽에서 와 숭산 소림사 작은 방에서 면벽(벽관) 9년했고

2조 혜가스님은 달마 앞에 이르러 눈밭에 서서 팔뚝을 자르니 온갖 간난고초를 다 겪었다 할 수 있음이라

그러나 달마가 일찍이 한 말씀도 들어 보이지 않았고

2조도 일찍이 일구도 묻지 아니 했으니

돌이켜 달마를 불러내 사람들을 위하지 않음을 지음(사람들을 위해 한 말씀도 들지 않음)이 옳은가? 하랴,

2조를 불러내 스승에게 구하지 않음을 지음(일구도 묻지 아니함)이 옳은가? 하랴.

세를 격할까(죽음에 이름) 두려워 하노라.

세월은 화살 같은지라 심히 가엾은 일이로다.

雖然如是 更在諸人 從長相度
수연여시 경재제인 종장상도
山僧 也强教爾不得
산승 야강교이부득
諸仁者 還見古人得麼
제인자 환견고인게마
山田脫粟飯 野菜淡黃齏
산전탈속반 야채담황미
喫則從君喫 不喫任東西
끽즉종군끽 불끽임동서
伏惟同道 各自努力 珍重
복유동도 각자노력 진중

비록 이와 같으나 다시 여러사람이 장점을 좇아 서로 제도할 것이니

산승이 또 그대들을 억지로 가르치는 게 옳지 않노라(억지로 시킬 일 아니나 부득이 하노라)

어진 이들이여 돌이켜 옛 조사성인의 게를 보았느냐?

'산 비탈 밭의 조를 대강 찧은 밥에 푸성귀 누런 우거지 싱거운 반찬이니 그대 먹겠으면 먹고 못 먹겠으면 내버려두어라'(우두 법융선사의 가풍질문에 대한 답)

엎드려 바라건대 도반들이여 각자 노력하고 노력하라.

여러사람이 장점 좇아 서로 제도하고 스스로를 가볍게 여겨 뒷걸음질 말라

懶庵樞和尙法語 (뢰암추화상법어) ①

山僧 每至說着古聖 做處 便覺無地容身
산승 매지설착고성 주처 변각무지용신
慙愧後人 軟弱
참괴후인 연약
又況百味珍羞 遞相供養
우황백미진수 체상공양
道我四事具足 方可發心
도아사사구족·방가발심
況恐做手脚不迭 便是隔生隔世去也
황공주수각부질 변시격생격세거야
時光似箭 深爲可惜
시광사전 심위가석

산승이 매양 옛조사 성인의 지은 바에 붙여 설법하다가 문득 몸을 용납할 자리가 없음을 깨달으니

후배의 연약함을 참괴하노라.

또 하물며 백가지 맛의 진수성찬으로 서로 공양하되

내게 이르기를 사사(의복·음식·침구·탕약)가 구족해야 바야흐로 발심할 수 있다 하니

다만 손발이 갈아들지 못하매(손을 써 볼 사이도 없이) 문득 생을 격하고 세를 격함이라 심히 가엾은 일이로다.

佛 誡羅睺羅頌 云
불 계라후라송 운
十方世界諸衆生 念念已證善逝果
시방세계제중생 념념이증선서과
彼既丈夫我亦爾 何得自輕而退屈
피기장부아역이 하득자경이퇴굴
六凡四聖 同此一性
육범사성 동차일성
彼旣如是 我何不然
피기여시 아하불연

부처님께서 라후라존자에게 감계로 준 게송에 이르기를, 시방세계 일체 중생이 생각생각에 이미 선서과(불과·열반에 들어 다시 오지 않음)를 증험하니 저가 이미 대장부요 나 또한 그러한지라 어찌 스스로를 가볍게 여겨 뒷걸음질 칠 것이랴 하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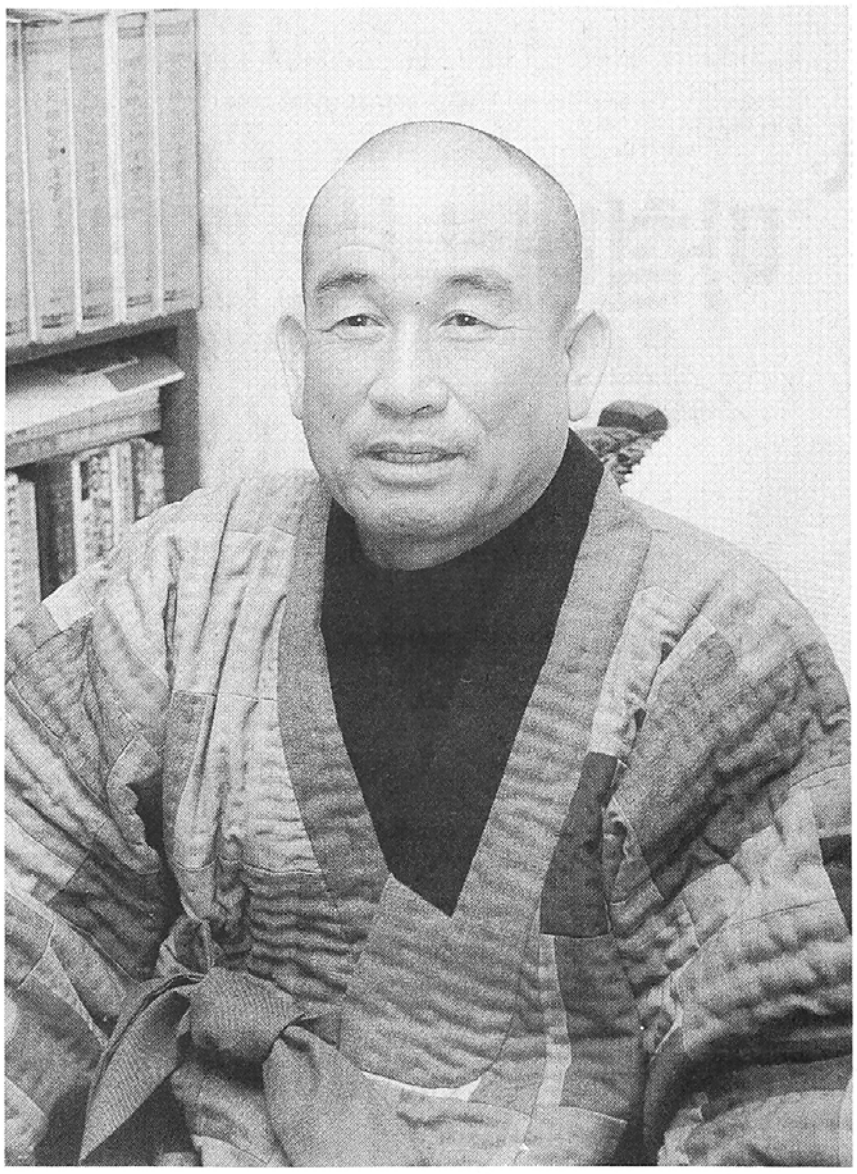
육범(육도중생) 사성(성문·연각·보살·불)이 한가지로 같은 성품이라

저가 이미 이와같나니 나라고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龍眼

지상법석

"살면서 오계만 잘지켜도

보산스님 〈화음사 주지〉



약력
- 1929년 生
- 공주사대 졸업
- 일본 경도대학서 문학박사 학위 수여
- 1960년 통도사로 출가
- 〈동양불교사〉 〈불교학 개론〉 〈불타의 아함사상〉 〈불교성전〉 등 지음.

"눈먼 거북이 다리 잃은 자라 업고 협력하며 살듯 중생들 서로서로 부족함 채우는 삶을"

저 관악산 꼭대기에 눈이 내리니 겨울 분위기가 좋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당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지당합니까.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라는 생각속의 눈덮힌 산과 눈덮힌 산을 보는 마음속의 겨울이라는 생각이 한데로 어우러져 저런 장관을 보이니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 산과 눈을 보고 겨울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겨울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겨울 안에 있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괜시리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 드릴까하니 잘 들어 보세요. 저 유명한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산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새는 머리가 둘이다 보니 생각 이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날 밤 나무가지에서 곤한잠을 자다가 한쪽 머리가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아주 맛난 열매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따 먹었지요. 날이 새어 다른 쪽의 머리가 생각하니 다른 때는 아침이면 배가 허했는데 이날은 든든한 기분이 드는게 아주 좋았어요.

"너 내가 잠든 사이에 뭘 먹었느냐"

옆의 머리에게 물어 보니 "그래 자다가 눈을 떠보니 눈 앞에 맛있고 향기로운 열매가 있어서 따 먹었다"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열매를 못 먹은 머리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잠을 자다가 깨어난 한쪽의 머리는 앞에 독이 든 열매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물론 이번에 미리 눈 뜬 머리는 지난번에 맛있는 열매를 먹지 못한 머리였고요. 이 머리는 곰곰히 생각을 했지요. '네 놈이 전에 맛있는 것을 혼자 먹어치웠으니 이번에 한번 혼나봐라' 그리고 그 머리는 독이 든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그 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중생도 그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저 앞의 산이나 거기 내린 눈이나 눈 위에서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겨울짐승들이나 다 한 몸인 것입니다. 한몸에 두개의 머리를 가진 새가 죽을때 한쪽의 머리가 "이 어리석은 놈아 우리는 한 몸이 아니냐. 누가 맛있는 걸 먹던 결국 우리 둘에게 이로운 것임을 왜 모르는 것이냐"라고 한탄을 했다고 하듯 우리 중생들도 나와 너를 지나치게 구별해서 서로의 이익에 눈이 멀어 서로 죽이고 짓밟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겨울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물음이 얼마나 쓸모 없는 것인가를 아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인 채로 사계절을 보내고 일년 열두 달을 보내며 살아갈 뿐입니다. 서로 다른 몸이 아니라 한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그렇게 행동 하느냐 하는 차이에서 행복의 두께가 달라 질 뿐입니다.

이야기를 좋아 하시니 〈열반경〉의 이야기 한 꼭지를 더 하겠습니다.어느때에 옥추산이라는 커다란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바람에 산 아래 개울에 살던 거북이는 돌에 맞아 눈을 잃었고 자라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거북이와 자라는 다친 곳이 아프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눈과 다리가 없으니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저 그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다 이 두 불쌍한 짐승이 서로의 울음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너는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산이 무너 질 때 눈을 잃어 아프고 배고파 운다. 너는 왜 우느냐"

"나는 산이 무너질 때 두 다리를 잃어서 어디로 갈 수도 없으니 배도 고프고 아파서 울고 있다."

서로 딱한 신세임을 알게된 거북이와 자라는 함께 힘을 합쳐 살아 가기로 했지요. 눈 먼 거북이가 자라를 등에 업으니 자라의 눈이 거북이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지요. 두 짐승은 개울을 오르내리며 굶주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때부터 자라는 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 먼 거북이 몰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지요. 그러다 거북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둘은 싸움을 하고 헤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헤어져서 살 수 있는 처지였나요. 둘은 며칠을 굶주리다가

1996학년도 신입생 모집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영연방 대학소속의 세계적인 명문 스리랑카 정규 불교대학교의 학위 과정을 국내에서도 이수하게 됩니다."

강의는 국내에서, 졸업은 스리랑카 본교에서
수능시험 응시계열 구분없이 지원 가능

수업연한	학 과	과 목 명	특 전
4년	불교사회철학 (Studies in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① English ② Pali ③ Philosophy(Ⅰ Ⅱ Ⅲ Ⅳ) ④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⑤ Emergence of Buddhism ⑥ Buddhist Social Institutions ⑦ Early Buddhism ⑧ Buddhist Education ⑨ Buddhist Aesthetic concepts and Arts ⑩ Expansion of Buddhist Culture (Ⅰ Ⅱ) ⑪ History of Indian Buddhism ⑫ History of Korean Buddhism. etc.	①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커리큘럼과 학사일정에 따름 ② 졸업후 영연방 및 외국의 모든 대학원에 유학 가능함. ③ 지방에서도 통신에 의해서 학위과정 이수가 가능함. ④ 어학 연수 가능 ⑤ 승려는 장학금 지급 ⑥ Computer 교실 운영

- 모집인원 : 80명(주간 : 40명 야간 : 40명) 통신생 약간명
- 입학자격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타종교인도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시
  ①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무시험 전형) ② 면접 : 1996년 3월 15일 13시
- 원서접수 및 교부 (우편도 가능)
  ① 96년 1월 19일 (금) ~ 96년 3월 9일 (토) 17시까지
  교부 및 접수 :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제1학사 관리처 2층
- 문의전화 : (02) 424-6637~8 / FAX : 424-6639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한국학사관리처

海東佛敎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 매주 火·水·金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 통신도 가능

※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 : 741-0495~6 / 팩스 : 763-4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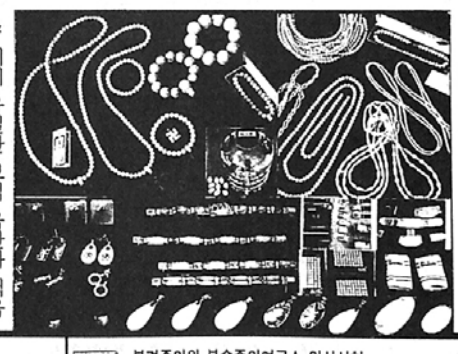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견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위궤양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8.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현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온빈지 84%, 온목 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선입견, 과학자의 판단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매일신문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지상법석

불행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나와 내 가정만 위한 기도와 구복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다시 화해하고 전처럼 힘을 합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거북이와 자라가 결국은 합 몸임을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서 사회나 가정이나 또 세계가 모두 하나의 줄기 속에 연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우리 사는 이 세상이 한 점의 흠이 없을 수도 없겠지요. 눈 먼 거북이와 자라처럼 고된 삶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 속에 행복과 불행이 공존 하고 있으니 그 값어치 또한 절대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전체의 행복일 수 없고 전체가 행복하다고 개인개인이 다 행복에 겨워 하는 것도 아닌 것이 중생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한 몸통 위에서 각자각자 자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각각이 다 한 몸이라는 뜻에서 사해동포(四海同胞)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동체대비(同體大悲)라는 말을 하는데 사해동포와 동체대비는 같은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해동포가 인류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동체대비라는 말은 하나이되 몸과 마음을 통틀어 하나라는 보다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개체들은 그나름대로의 조건과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앞뒤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멸해가며 또다른 생명으로 연결되어 지는 것입니다.그래서 생명의 영원성이 있는 것이며 그 속에서 사해동포와 동체대비의 근본이 싹트는 것입니다.

불교의 동체대비는 굳이 사람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존재에 닿아 있는 정신입니다.

물론 일체의 존재라 함은 우리가 늘 말하는 일체중생이란 의미지요. 왜 일체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말을 중생이란 말 앞에 붙여 쓰는지는 조금전에 모든 존재가 한몸이고 한 생명임을 얘기 했으니 잘 아실 것입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모든 존재와 생명이 하나의 줄기 속에서 떼어질 수 없는 인연들을 맺고 있는데 그 인연의 실오라기를 가벼이 여겨 끊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는 자들이며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옮겨 남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자들입니다. 또 남의 것을 훔치고 약탈하는 자들과 남의 인연을 깨뜨리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자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술이니 마약에 혼미해 자성을 흐트리는 자들도 일체존재의 청정한 인연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더구나 지구는 우리 중생들의 몸통이거늘 함부로 공해을 일으키고 오염시키는 자들은 독이 든 열매를 따먹은 어리석은 머리와 다를 것이 없겠지요.

우리는 독이 든 열매를 따먹는 어리석은 머리가 되어서도 안돼고 혼자 맛있는 것을 챙겨 먹다가 다시 불행한 신세로 돌아가는 자라의 욕심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일체중생의 존엄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현대과학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생명을 전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들도 속좁은 종파이익 앞에서는 살생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발달된다는 문명이 역으로 일체중생의 존재를 가능케하는 청정한 인연의 고리를 부식시키는 면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는 불자들이 오계를 생명처럼 귀하게 지켜가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달라야 합니다.동체대비의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하심(下心)입니다. 쿨 대로 커버린 허황되고 탐욕스런 그 마음을 굽히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머리를 숙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간 너무 뻣뻣하게 쳐들고 살아왔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나 아닌 모든 것에 대한 공경입니다. 공경심은 평화와 사랑을 낳습니다.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도전적이고 전투적인 것입니다. 그는 투쟁하며 무엇을 성취하려 하지만 이미 그 투쟁 자체는 인간의 존재 밖에 있는 불행을 불러 들이는 어리석음에 불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존재 앞에 다소곳이 머리 숙일 때 일체 중생은 서로의 생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의 원주민을 보고 야만인이라거나 미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육법전서에 나오는 법률도 필요 없고 군사독제에 항거하는 데모도 모르고 문민시대도 세계화라는 거대한 발전이데올로기도 모릅니다. 알필요도 없고 알아도 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들이기에 이내 잊어버리겠지요.그렇다고 그들이 미개인이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것을 알고 너무 복잡한 사회구조를 얽어놓고 그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문명국가 도시민들이 더 바보들이라고 그들이 놀려 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핵폭탄을 만들지 않았으니 그만큼 걱정도 없고 생명의 존재에 대한 위협도 덜 받을 것 아닙니까. 문명인을 자처하며 이익의 장벽만 높히 쌓고 허장성세의 묘비명이나 남기는 문명인 보다는 이름없이 살다가는 밀림 속의 사람들이 더 위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에게 멸망의 순간이 온다면 그 원인은 원시림 속의 야만인이 아니라 빌딩숲 속의 문명야만인에 의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밀림으로 들어가 벌거벗고 사냥하며 살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몸통 위에서 살아가는 수 많은 가지요 잎새임을 바로알고 자신의 삶이 자기것만도 아님을 인식할 때 보다 큰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40년을 길에서 가르침을 펴시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법에 의지해 부지런히 닦으라고 하셨던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자기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듯 스스로의 공부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한사람으로부터 모든 중생계의 존재와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모든 불자들은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될것이고 그런 기여가 모여 동체대비의 큰 사랑이 현실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어떤 이상주의자나 환상주의자가 아닌 바로 실천자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 하시기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실천가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살펴 보십시요. 문중의 이익이나 개혁의 당위성에 매몰된 파당논리 또는 나만을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와 구복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도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달라도 몸은 하나인 중생계의 현실에서 누가 누구를 정복하고 누가누구를 이기는 것입니까. 나의 거북이요 나의 자라인 중생들끼리 스스로 머리를 낮추고 서로의 어리석음을 채워 주는 따뜻한 자비의 실천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일체중생 한몸’ 서로 자기처럼 아낄때 ‘큰 나’ 발견

머리숙이는 下心 평화·사랑·청정한 인연의 고리

> “이익장벽 높이쌓고 허장성세 묘비명 남기는 문명인 보다는 자신의 삶에 충실한 밀림속 원시인 더 위대”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57

양 형 진

무차별의 세계

과학이 발달하여 가면서 자연을 보는 시각이 점점 통일적이 되어 간다는 점을 지난 주에 이어 계속 다루어 보도록 하자. 현대물리학의 두 기둥은 양자역학과 상대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디랙이라는 물리학자는 이 두 이론을 상대론적 양자역학으로 통합하였다. 이 상대론적 양자역학에서의 진공이란 어떤 에너지 준위 이하의 상태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입자가 가득 차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진공이란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즉 색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입자들로 가득 찬 상태 즉 색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는 물리 이론이 성립됨으로써 비로소 색과 공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틀이 마련되었으며 색즉시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색즉시공이란 색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주괴공의 단계를 거쳐 공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색이 공으로 변하고 공이 색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다. 색의 본성 그 자체가 그대로 공이요 또 역으로 공이라는 것도 색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무의 양변을 멸하고 유무의 차별을 떠난 중도에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여서, 유와 무와 중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가중이 삼제원융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에서 “유를 떠나고 무를 떠나고 유가 아님을 떠나고 무가 아님을 떠나서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능히 바른 도를 행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차별을 떠난 세계상은 물리학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프리고진은 우주의 구조를 평형 구조와 산일 구조(dissipation structure)로 구분하였다. 평형구조란 정태적이고 안정적인 것이어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구조를 말하며, 산일 구조란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구조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우주가 바로 이런 구조이다. 산일 구조에서 계의 요동이 있을 경우, 그 요동의 정도가 경미하면 계가 그 요동을 흡수하여 요동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요동의 정도가 심하여 분기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요동이 점차로 증폭되다가 마침내는 이전의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구조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아냈다. 요동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가 창출된다는 그의 이론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생명의 진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요동을 통하여 무기물의 계에서 유기물의 계로 유기물의 계에서 생명계로 전혀 다른 구조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이론은 우주의 진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프리고진은 이를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고 하였다. 이렇듯 제반 과학이 성숙하여 감에 따라 심지어는 색과 공, 생물과 무생물에 대한 차별상마저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듯 색이라고 내 눈 앞에 나타난다 하여도 그것은 오직 인연의 화합일 뿐이어서 실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는듯 하여도 그것은 결코 허무 단멸이 아니니 어찌 색과 공을 차별하겠는가?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은 일체의 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어서 색을 버리고 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자아를 버리고 무아를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문수사리보살은 마하반야바라밀경에서 “반야바라밀을 닦으면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즐겁다고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사를 보지 않는데 어찌 다시 싫어하여 여의겠으며, 열반을 보지 않는데 어찌 즐겨 염착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렇듯 일체의 허망한 차별상을 여의어 일체 법에 자성이 없다는 올바른 지혜를 증득하게 되면 제법의 본체는 불이(不二)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된다 한다.

진공이란 ‘없음’ 아닌 입자 가득찬 상태
우주 진화도 차별상 아닌 인연의 화합

그래서 유마거사는 천녀가 뿌린 꽃을 떼지 못하는 승려들을 향해 보살의 몸에 꽃이 붙지 못하는 것은 분별을 모두 끊어 버린 까닭이니, 분별심 때문에 꽃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채근담에서는 “산림에 숨어 사는 것을 즐겁다 하는 것은 산림의 참 맛을 못 깨달음이요, 명리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함은 아직도 명리의 미련을 다 못 잊은 때문”이라고 하였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1996학년도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 모집

◇ 부처님 교법 따라 포교 · 정진 · 행동하는 대승의 법사!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6년 3월 1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자격고시 거쳐)

법사교육목적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불교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발전과 정토사회구현을 위해 포교활동하는 불교지도자적인 대승의 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韓國佛教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사람의 길」은 진실로 사람이 가야할 길을 일러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신바람 나게 살아라! 내숭 뚝, 체면치레 뚝!

사람의 길

이향봉 스님 장편구도소설



사람은 누구나 착하다.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열려 있다. 진리 또한 열려 있다.
이 세상 그누구도 나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대도 말고, 탓도 말며 •
넉넉하고 여유있게 당당하게 사는 거다.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 · · ·
한번뿐인 인생, 생명은 오직 하나.
연습용으로 소모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도성지의 길에서 사람의 길을 찾아 향봉 스님이 던지는 인생의 화두!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값7,000원/345면/신국판 양장본

밀알 TEL5290140~5 · FAX5792312

고은 불교대하소설

그들의 밤과 낮



만화의 영식(靈識)은 허공계의 혹독한 추위때문에 아주 단단한 얼음조각처럼 되어 있었으나 그 영식이 지상을 향해서 떨어지는 속도 때문에 그 얼음이 녹아 버리는 뜨거움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천축의 북쪽 하늘을 올라리치고 있는 설산(雪山)에 사는 새 한고조(寒苦鳥)의 신세와는 다른 상태였다.

한고조 암컷이 밤새도록 "아이고 추워 나 죽어, 아이고 추워 나 죽어"를 되풀이하며 울 때마다 수컷은 "날이 새면 따뜻한 집을 지어줄께"하고 달래는 것이다.

하지만 날이 새면 "아침 해가 따뜻하게 비추어 주니 집이 없어도 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또한 수컷이 장담하기를 "굳이 집을 지어 무엇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덧없는 세상인데"라고까지 내뱉는 것이었다.

그래서 밤마다 암컷은 설산의 칼날 같은 추위 속에서 떠는 일을 언제까지나 되풀이하는 괴로움으로 살아갔던 것이다.

만화는 그런 설산 한고조가 사는 곳에서 훨씬 북쪽 오지의 사막에 떨어짐으로써 먼저 거기에 내려온 합두로부터 몇백리 상거의 사구(砂丘)에 떨어졌다. 밤이었다. 무엇인가가 소문없이 떨어지기 좋은 밤이었다.

하늘! 그가 떠나온 하늘에는 어디에 도솔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따위와 상관없이 그 검푸르게 깊은 밤의 허공 가운데 멀고 가까운 별들의 보석을 박아 논 시리도록 빛나고 있었다.

만화는 그 자상의 첫날밤을 감격으로 벅찬 나머지 잠든 넋이 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도 없는 상태의 그 사막이야말로 오직 하늘의 별빛만으로도 충분히 주위를 식별할 수 있었다.

그뿐아니라 사막은 그 풍부한 하늘의 별빛을 조금도 반사시켜서 밝게 해주지 않고 그 빛들을 온전히 흡수해 버리고 있었다.

만약 별빛을 조금이라도 반사시킨다면 훨씬 밝은 곳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런 반사의 빛이 아니더라도 밤의 사막은 전혀 빛의 빈곤을 누리지 않았다.

차라리 대낮의 태양이나 보름밤의 달은 빛을 받는 쪽과 받지 않는 그늘을 구별하지만 별빛은 어떤 부분에도 스며들어 가거나 굽이쳐 가서 실로 자상하게 빛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이윽고 그런 밤이 지나간 뒤 동쪽 모래언덕의 지평선 언저리가 붉은 기운을 물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어둠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어디선가 탐!하는 버락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어둠과 붉은 기운이 뒤섞인 데서 먼동이 트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아!"

이제 시별건 빛깔이 지평선 위의 하늘과 그 아래를 함께 채웠다. 하지만 한 마리 새도 없는 사막지대의 공간을 오직 그런 빛의 장치로만 감당하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불끈 솟아 올랐다. 그것은 동시에 땅이 기우뚱하고 동쪽 방향으로 굴러가기 때문인지 몰랐다. 그래서 해와 땅이 오랜 약속에 의해서 밤으로부터 낮의 시간이 이루어진 것인가.

만화는 그 자신이 사막의 모래에 반쯤 묻혀있는, 너무 오래되어 바스라질 것 같은 해골의 뼈에 그 생명이 늘어붙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 뼈가 어느 때의 것이며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은 어떤 엽기적인 고고학자의 관심 밖고는 매우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곳은 이제 인간의 생활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 사방을 둘아다 보아도 어떤 인간적인 희망이 나타날 리 없다.

바로 그런 사막의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에 아주 먼 과거의 어느 시기에는 동방과 서방을 연결시키는 국제도시가 세워졌고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나 드나드는 사람으로 성황을 이루었다면 그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사막이 먼 과거의 유적지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의 해골과 유골 몇마디로 모래에 잠겨있다가 슬며시 그 일부를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데에서 만화의 새로운 일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는 한나절이 되어서 그 해골에는 조금씩 영문모를 인간의 얼굴형상이 생겨나고 그것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뼈마디가 슬슬 지남철(指南鐵)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서로 맞추어지며 거기에 육신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어디선가 사자의 울부짖는 것 같은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해골과 유골은 마침내 한 사람의 생명체로 일어서게 되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바람 때문에 모래가 날리기 시작하였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 모래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만화였다.

그런데 이 때를 맞춰 거의 동시에 몇백리 떨어져있는 폐허의 불탑 아래의 돌덩어리도 그것 스스로 움직이가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느 기록에 '완석이 움직인다(頑石動也)'라는 말이 있거니와 한번 내던져진 한 덩어리 돌이 마치 수레바퀴라도 달린 것처럼 저만치 굴러가다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 기이한 광경을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곳이었다. 오로지 수없는 모래알 하나하나의 묵언(默言)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돌덩어리가 마치 커다란 나무열매라도 되는 것처럼 한 가운데가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었다.

옛날옛적의 난생설화가 없는 것은 아니거니와 그렇다면 돌덩어리가 알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어쨌거나 그 돌덩어리가 갈라진 뒤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왔으니 이 광경 역시 한번 더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사람은 여자였다. 다시 태어난 합두였던 것이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어딘가 간난아기의 울음소리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아주 천진난만한 본능의 첫걸음이기도 하였다.

그 울음소리가 무표정하게 솟아있는 누란의 불탑 언저리의 그곳에서 몇백리 밖의 타크라마칸사막에 있는 만화의 귀에 들린 것은 이적(異蹟)이기도 하였다.

만화는 그의 귀에 들리는 먼 울음소리가 마치 꿈 속이거나 아니면 환각 속의 그것으로 느껴졌지만 다시 귀를 가다듬어 먼 곳의 소리를 흡인하는 힘을 발휘한 뒤 그 울음소리는 현실의 울음소리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남쪽의 곤륜산맥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여러 강물이 끝내는 타림분지(盆地)의 어디에선가 사막에 빨려들어가고 마는 곳에 한 걸음 한 걸음 해골에서 재생한 만화가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걸음으로 언제 몇백리 저편의 누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는 쌍봉(雙峰)낙타 한마리도 없거니와 나귀도 있을 리 없다.

먼 옛날 현장(玄奘) 일행이 행운과 비운을 같 수 없겠어. 나는 사막의 해골일 따름인가."

이런 절망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한 가닥 선풍(旋風)이 불어대더니 그 바람자락 끝에 이제까지 보지 못한 커다란 새 한마리가 사막 위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그 새가 내려앉을 때의 사막 모랫바람 때문에 만화는 눈을 감고 있어야 하였다.

그것은 마치 헤시오도스의 '신통기(神統記)'에 나오는 날개 달린 신 히르피아와도 같았다. 긴 머리칼을 풀어헤치고 바람과 여느 새들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그 새 말이다. 아니면 고대 이집트의 불사조 피닉스라도 닮은 것일까.

이런 새보다 일찍 나타났던 사라진 황하와 양자강 위의 높은 하늘을 9만리나 날아가는 대붕(大鵬)의 후예인지도 모르거니와 만화 앞에 성큼 내려앉은 한쪽 날개가 다섯길이나 되는 큰새는 모래알을 몇번 조아



만화는 해골에서 재생되고 돌 속을 가르고 나온 합두는
태어나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다 만화의 귀에 먼 울음 소리가…

의 교차로 진행된 이 일대를 통과하는 천축에의 여행과는 달리 아무런 규모가 없는 단 한 사람의 걸음일 따름이었다.

사막의 대낮은 이마의 살갗이 벗겨질 만큼 뜨거웠다. 모래바닥에 엎드러진 맨발바닥을 놓았다가 발바닥을 상하였다.

"이렇게 가다가는… 하루에 5리도 나아갈 수 없겠어. 나는 사막의 해골일 따름인가."

이런 절망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한 가닥 선풍(旋風)이 불어대더니 그 바람자락 끝에 이제까지 보지 못한 커다란 새 한마리가 사막 위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그 새가 내려앉을 때의 사막 모랫바람 때문에 만화는 눈을 감고 있어야 하였다.

그것은 마치 헤시오도스의 '신통기(神統記)'에 나오는 날개 달린 신 히르피아와도 같았다. 긴 머리칼을 풀어헤치고 바람과 여느 새들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그 새 말이다. 아니면 고대 이집트의 불사조 피닉스라도 닮은 것일까.

이런 새보다 일찍 나타났던 사라진 황하와 양자강 위의 높은 하늘을 9만리나 날아가는 대붕(大鵬)의 후예인지도 모르거니와 만화 앞에 성큼 내려앉은 한쪽 날개가 다섯길이나 되는 큰새는 모래알을 몇번 조아보다가 만화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어서 타시구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만화도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래 그대 신세를 한번 질만하구려"라는 뇌파(腦波)의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그런 다음 만화는 마치 그가 천상계에서 천의(天衣)를 날개 삼아 휘날리며 날아다니던 시절을 문득 기억해내면서 새의 등에 올라탔다.

새는 별로 힘을 주지 않으면서 쉽사리 두 다리를 세워 일어났다. 그러자마자 모랫바람을 일으키며 우렁차게 수직의 공중으로 상승하였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타림분지 일대의 그 황량한 사막 전체를 내려다 보는 동안 남쪽의 곤륜산맥과 북쪽의 천산산맥의 그 웅장한 산줄기의 만년설까지 볼 수 있는 커다란 우주적 시야(視野)가 저 아래로 펼쳐지는 것이었다.

새는 거의 동북쪽으로 그 새가 즘더 속력을 더 낼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날개를 절도있게 퍼덕이는 것이었다.

구름을 따라 근심은 끊어지고
강물을 따라 그리움은 흘러간다.

(雲隨愁斷
川逐思難長)

이 작자를 알 길 없는 시는 중국 문학의 지도 밖에서 존속해온 돈황문학(敦煌文學)의 한 구절이지만 새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만화의 마음 속에서 절로 흘러나오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움이라니! 그렇다면 그가 가는 길이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란 말인가. 그가 들은 바 청아한 울음소리의 먼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는 판인데 다만 새가 날아가는데에 그 자신의 운명을 내맡긴채인데.

과연 새는 그날 저녁무렵의 왕성한 낙조의 천연색으로서의 시별전 하늘 속에서 새의 몸뚱어리와 날개까지도 온통 시별전 빛깔로 물들고 있었다.

어쩌 만화만들 시별전 빛깔의 사람으로 되지 않을손가. 그동안 만화는 태어나서 하늘 속을 날아오는 동안을 세월로 삼아 아주 헌걸찬 젊은 사나이로 되고 있었다.

"내려갑시다. 이제"라고 새가 한번 날개를 휘저었다.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소식 • 지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 단, 특수 목적물의 광고와 허위로 판명되거나 본지의 지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 (02)737-0697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체력을 증진 기억 · 집중력이 좋다
• 수족, 배꼽의 냉증 · 대변장 · 식욕감퇴에 탁월
• 수면중에 땀흘림에다른 · 만성피로가 · 변비증상
• 선관단식수련을 받고 난후 정상으로되어 몸이가 좋아졌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련장 시흥시 동화면 하우리 홍일선원
안내 ☎ (0893) 34-3115-6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 비만 관리 시술법 : 응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404-9521
팩스 (02)266-2679

-개성과 가치 전리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가구-
붙박이장 오크원목 -장미상감부속 하이그로시

붙박이장은 :
첫째, 공간을 버리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짜 넣습니다 (3배나 더 크고)
둘째, 내부 구조는 칸칸도 · 콘더도 · 기타 입맛 스타일 주문에 따라 제작해서
셋째, 다양한 색상 · 무려한 디자인 · 격조높은 실내분위기 연출
넷째, 이사때 A/S받아 (문제 · 고장) 즉시 조립해드립니다
주문제작품목 공부방꾸미기, 옷장이짜증, 수납장 · 신발장 등 모든 주문가구
대웅비 전화 (02) 935-8313 팩스 853-2364-3345

찾 · 습 · 니 · 다
전통불화 배우실 분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이어 기도 · 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 佛事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자 불광미술원이 새 가족을 찾습니다.
■ 성별 : 남
■ 연령 : 만 18세~25세(군필 또는 면제자)
■ 학력 : 제한 없음
■ 기타 : 신심 돈독한 불자
■ 문의 : (02) 477-9178
불광불교미술원

신설 포교당 주석(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불은의 도시 대구에 부처님의 집이 비어있습니다. ○○스님께서 발심하여 포교당 불사를 완료하였으나 급히 스리랑카에 유학하실 기회가 생겨서 출국하시고 없는 관계로 주석(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 주소 ■ 대구 직할시 달서구 상인동 1443-1 (주변 아파트 입점지역, 보증금 有)
■ 전화 ■ 053-638-0067 053-556-8429 (1 ~ 4시까지)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체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당 · 경상
• 지방(대전시) 대웅전 수미단 일괄 공방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등의 목조물
• 충남(장곡사) 대웅전 문짝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일괄
• 서울(봉은사) 대웅전 수미단 일괄 공방
• 가야(경주시) 대웅전 수미단 등의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일괄
• 서울(봉은사) 대웅전 문짝 일괄
• 충무(장곡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비
• 서울(백화사) 대웅전 문짝 일괄
• 서울(봉은사) 대웅전 수미단 등의
• 서울(봉은사) 대웅전 문짝 일괄
• 서울(봉은사) 대웅전 수미단 등의
• 서울(봉은사) 대웅전 문짝 일괄
• 서울(봉은사) 대웅전 수미단 등의
• 서울(봉은사) 대웅전 문짝 일괄
대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6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업계 동의회 회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 · 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삼수(39세, 직장인) : 中 · 高 · 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 (영 · 수) 「비디오7정교사」 특별제공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 (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시련에 너무나도 주고주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렇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그해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회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정빌딩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맑고향기롭게 모임·BBS 특별기획

법정스님과의 만남 ❸

주제: 맑고향기로운 가정

대담: 박광서 〈서강대 교수〉



법정스님



박광서 교수

"어머니 역할 온전할때 가정화목"

이해와 사랑속에 자란 청소년 '곧게 커가는 나무'

"호화 가옥 즐비하지만 '사랑의 온상'은 줄고 있어"

아버지는 밖에서 보호

▲박광서: 금년에는 '맑고 향기로운 우리 집'이라는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펼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정: 우리 주위엔 수십 억을 호가하는 가옥이 즐비하지만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집안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오순도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가정은 마치 하숙집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맑고 향기롭게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뜻에서 금년활동의 주제를 '가정의 문제'로 정했습니다.

▲박광서: 스님께서는 자주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못지않게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법정: 한 가정의 기둥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있는 집안과 어머니가 없는 집안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머니가 계시면 고아취급을 받지 않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고아취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온상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머니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성애와 부성애는 다릅니다. 모성애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고 부성애는 머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즉 가정 밖에서 보호한다고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에서 따뜻하게 우러나오는 모성애가 인간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어머니의 사랑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박광서: 청소년기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른들의 사랑이나 가르침을 받았는지에 의해 인생이 전환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부모들은 어떤 생각과 지도를 해야겠습니까.

▲법정: 학교교육보다는 가정교육이 선행돼야 합니다. 가령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소 부모들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떤 문제라도 쉽게 풀어버려 문제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런 대화도 없고 공통적인 관심사가 없었다면 아이들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밖으로 관심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게 되고 문제아이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제3의 문제입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이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전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속에서도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박광서: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아서 서로 부대끼다보면 남들과 같이 사는 방법, 예의를 배우게 되는데 요즈음은 형제가 많지 않아 공동체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공통관심사 만들어야

▲법정: 한마디로 공동체의식이 없다는 것은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기 때문에 한가족이면서도 남남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온전한 대화가 지속되려면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하루가 모르게 성장해 가는데 부모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아이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이기 때문에, 늘 어리게만 보고 명령조로 대화를 하려 한다면 진정한 대화는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진솔하고 원만한 대화를 원한다면 수평적인 자리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 간에 대화의 시간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따뜻한 가정의 온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박광서: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항상 강조하셨고 생활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는 무소유의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 불만이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만난 인연에 감사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따뜻하게 서로 도우면서 지내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이런 생활이 무소유가 아니겠습니까. 무소유는 특별한 생활이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집을 맑고 향기롭게 가꿀 때 그 집이 맑고 향기롭게 빛나는 것이지 돈이나 학벌 혹은 지식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소한 일에도 서로의 마음이 교감될 때 맑고 향기로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박광서: 요즈음 의학발달로 해서 노령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들이 산업사회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주부들까지도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돌보는 노인처럼 여겨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노인문제를 잘 끌어안을 방안을 없겠습니까.

▲법정: 생로병사가 인생의 과정인데 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사회라는 것은 남녀노소가 어울려서 사회를 이루는 것인데 경륜과 덕망을 갖춘 성숙한 연령층이 많을 때 그 사회는 건전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사회에 어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사회에 어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른을 어른답게 모시지 못한 우리 후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광서: 대부분 불자들은 수행과 사회, 가정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활동은 가정을 떠나서 산사에서만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면 종교하고 무관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교가 가정에 뿌리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족이 바로 불보살

▲법정: 불교를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세간과 출세간,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종교와 가정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청정하고 간절한 신앙심으로 기도한다면 장소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종교생활이 구현될 때 생활자체가 건전해집니다. 일상생활을 떠난 종교는 관념적이고 공허한 것입니다. 물론 조용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떠나 따로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갖 모순과 갈등을 지니고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리를 찾고 열반을 찾고 하는 것이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바로 내 남편 내 아내가 부처요. 보살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박광서: 마지막으로 불자들이 주축을 이룬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한해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정: 이제는 삶의 질과 가치를 위해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현재 서있는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조그마하고 사소한 일상생활부터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지금 맑고 향기롭게 꽃피우고 있는가 아닌가 수시로 살피고 묻는다면 욕이 트고 싹이 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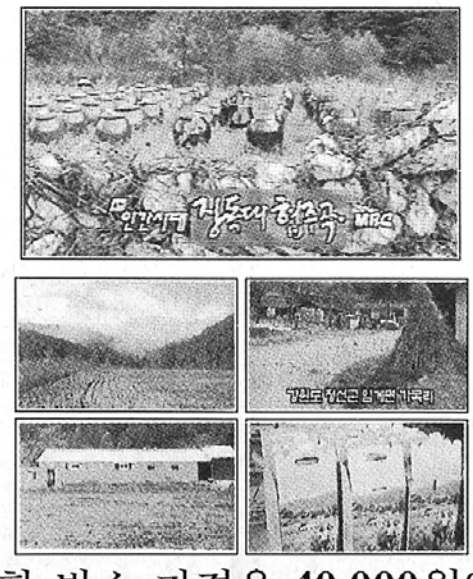
신토불이 정신에 이름하야 정선 메주!

MBC「신인간시대」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우리콩 메주

강원도 깊은 산골, 굽이굽이 돌아 정선아리랑으로 유명한 조용한 산골마을에 **신토불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몸살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신토불이** 정신을 뭇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돈연스님과 가목리 농민들은 오늘도 묵묵히 햇콩으로 쑨 메주를 띄우고 있습니다.

불자여러분! 돈연스님과 정선 임계 가목리 농민들이 함께 만든 정선 메주를 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 것을 간직하려는 가람유통은 **2천만** 불자들의 식탁에 우리 농산물이 놓여지기를 기원하면서 山寺의 청정 무공해 메주 보급을 위해 願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선메주의 특성

- 정선메주는 돈연스님이 6년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골마을에서 농민들과 직접 콩농사를 지어 수확하여 햇콩으로 만든 메주입니다.
-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땅에서 자라는 콩으로 가마솥에 삶고 짚으로 묶어 매달아 말린 다음 다시 띄운 순수한 전통식 토종메주이므로 담근 된장과 간장은 신선하고 깊은 맛이 있습니다.
- 메주 한 개의 무게는 1kg~1.3kg입니다. 손으로 다듬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 차이는 있으며 한 박스에 4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 박스는 소두 한말이 조금 못되며 한 박스의 메주로 된장 10~12kg, 간장 8리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된장의 효능

- 양조간장과는 달리 전통의 된장, 간장은 암예방과 중금속 오염의 해독능력까지 겸비한 수준높은 자연식품입니다. 냄새가 독특하여 유럽인이 즐겨먹는 전통치즈의 독한 냄새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구수하고 향기롭습니다.
- 잘 띄운 발효메주에는 수백가지의 곰팡이 및 세균에 의해 단백질을 생산하는 효모균이 집단으로 서식, 아미노산을 제공하여 된장국은 위기능 뿐만 아니라 소장과 대장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척추와 뇌기능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동의보감은 말하고 있습니다.
- 전통식의 된장, 간장은 우리 민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에 내세울 첨단식품입니다.

◉ 메주 한 박스 가격은 **40,000**원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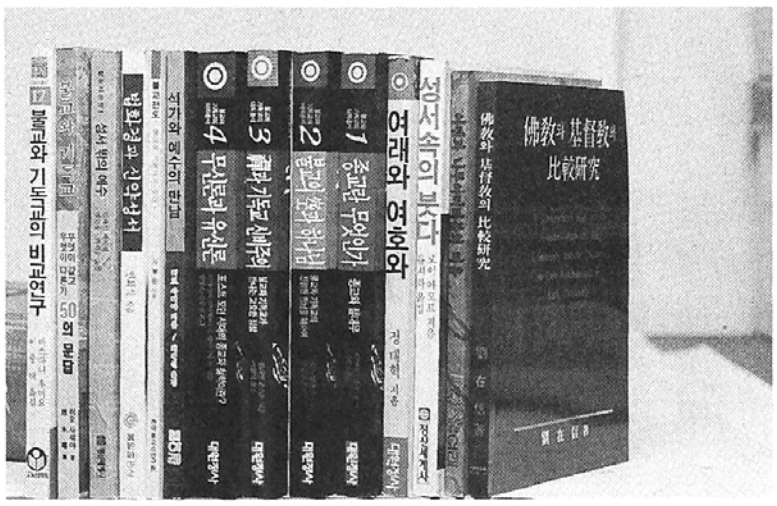
-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파손된 메주는 언제든지 교환해 드립니다.
- 큰 장독 600개에 담은 햇된장 및 햇간장은 6월에 사실 수 있으나 그 전에 미리 예약 주문하시면 우선적으로 먼저 공급해 드립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공급처 **가람유통**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B/D 2층
전화 : (02)720-5121, 736-5108

불교-기독교 비교서 종교 상호이해 '도움'

김대통령 국군교회예배 파문 비교종교서 '눈길'



◇대통령의 종교가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기독교 비교서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사진은 일본 교토학파의 비교종교서 번역판을 중심으로 한 관련 서적들.

최근 김영삼대통령의 국군교회당 예배로 인한 파문이 확산되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갈등조짐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서적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해 말 불일출판사와 정신문화사가 〈법화경과 신약성서〉(민희식 지음) 개정판과 〈기독교와 선〉(이여명 옮김)을 각각 출간한데 이어, 대원정사는 이달내로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총서' 제 5, 6, 7권으로 〈선과 현대철학〉 〈선과 신학〉 〈선과 종교철학〉을 동시에 발간한다.

지난 93년부터 '불교와 기독교 대화총서' 시리즈로 〈종교란 무엇인가〉(정병조 옮김) 〈불교의 空과 하나님〉(김승철 옮김) 〈神과 기독교 신비주의〉(이원석 옮김) 〈무신론과 유신론〉(정병조·김승철 공역)을 출간한 대원정사는 이미 87년 〈여래와 여호와〉(정태혁 지음)를 시작으로 출판을 통한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에 물꼬를 터왔었다.

대원정사의 대화총서를 포함, 현재까지 나온 '불교-기독교 비교' 도서는 50여종, 논문은 20여종 이상에 이른다. 1938년 만상회(卍商會)가 펴낸 〈불교와 예수교〉(이고경 편), 1955년 영남문학회가 펴낸 〈예수교와 불교〉(서경보 지음) 등을 시작으로 80년대 이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불교-기독교 비교서적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적 관용성과 비교종교학의 국내 보급으로 인한 학문적 필요성, 이로 인한 종교다원주의의 확산과 기독교측의 이교도 선교 방편상 필요성 등으로 인해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교리분석·상관관계 학문적 접근

"상대 결점파악 우월성 논증" 부정시각도

이같은 비교도서들은 다소 부정적인 요인을 갖지만 두 종교간의 상호이해를 통한 종교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또한 불교측에서는 두 종교가 비교될 경우 불교교리의 수승함이 일반독자들에게 인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가져 더욱 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기독교측 입장에서 나온 도서(약 15권)및 논문(약 12편)보다 불교측에서 나온 도서(약 35권)가 2배이상 많은 것으로도 확인이 된다. 물론 불교측 입장에서 나온 도서의 절반이상은 일본·유럽서적의 번역본이다. 특히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를 중심으로 한 일본 교토(京都)학파의 불교중심의 동서철학 또는 비교종교적 학술업적은 이같은 기독교와의 대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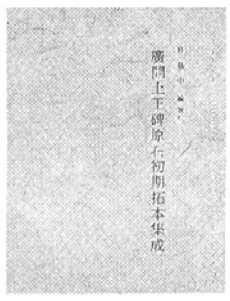
〈무신론과 유신론〉의 역자인 정병조교수(동국대)는 이같은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에 대해 △상대방의 결점을 파악해 우월성을 논증하려는 호교(護敎)논리와 △현상적 대비를 통한 자신의 입장 강변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동서사상의 활발한 교류와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감안할 때 긍적적인 요소가 더 많을 것이란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재경 기자

출판소식

'광개토대왕비 초기탁본집' 발간

동대출판부 미공개자료 4종…비문 재해석



동국대 출판부는 최근 입기중 동국대교수(국문학과)가 지난 93년 중국 북경대도서관 및 북경도서관 방문등을 통해 확인한 광개토대왕비문 원석탁본(原石拓本) 4종과 임교수의 새로운 해석을 함께 실은 〈광개토대왕비 원석 초기탁본집성〉을 발간했다.

광개토대왕비 탁본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책자는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원석 초기탁본' 4종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임교수는 비문글자 1천7백75자 가운데 관련학자들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1백77글자를 초기탁본 비교대조를 통해 새로 읽어냈으며, 비문중 일본학자들이 "신묘년에 왜(倭)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한 부분을 "왜가 신묘년에 와서 사물(현재 경남사천)을 건넜기 때문에 고구려가 왜를 쳐부수었다"고 새롭게 해석하는등 많은 새 해석을 시도했다.

'힌디-한국어 사전' 출간

한국외국어대 출판부는 국내 최초로 〈힌디-한국어 사전〉을 펴냈다. 이 사전은 한국외대가 80년대부터 기획한 특수언어사전 편찬사업 중 아홉번째로 완성된 것이다. 인도와 네팔 스리랑카 등지에서 사용되는 현대힌디(인도어) 표제어와 용례 6만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출판산업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클럽제도와 우편판매제도 등을 통한 유통채널의 다변화와 도서가격의 다양화, 공정한 도서선정제도의 확립, 도서관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연구소 주최의 제4회 출판포럼에서 이중한 서울신문

제4회 출판포럼 이 중 한 씨 주제 발표

"북클럽제로 출판위기 극복"

우편판매제 활성 '우편료 특별법' 제안

논설위원은 '한국 출판산업의 총체적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출판불황은 출판산업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복합불황이다"고 전제하고, 뉴미디어시대를 대비한 출판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 유통채널의 다변화 대책으로는 △북클럽제도의 시도와 △독자 수요별 소규모 매점의 창출(수퍼마켓·공무원 연금매장·농협 등 공공기관의 서점코너 설치)과 △소형서점의 지역별 전문화·특성화, △우편판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우편료 특별법' 등이 제시됐다.

또한 △가격파괴 프로그램 등을 통한 도서가격의 다양화와 △간행물윤리위원회등을 통한 공정하고 분별력 있는 도서선정제도의 확립과 전달체계의 구축, △독자 위주의 철저한 서비스와 의식있는 경영적 마케팅, △좋은 책의 1차적 수요자로서의 도서관 정상화 등이 제안됐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3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경각
4	신뜸	혜 윤	청 마
5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6	버리고 떠나기	법 정	샘 터
7	예쁠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영한	전원문화사
8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청 하
9	방한암선사	김호성	민족사
10	죽음의 길을 어떻게 잘 다녀올까	전이창	솝 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불자로서 감명깊게 읽은 문학작품을 들라면 나는 주저없이 최인훈의 희곡소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를 추천한다.

소설가 최인훈은 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한국인의 정신적인 구원의 철학은 불교라고 생각한다.

그는 작품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불교밖에는 없지 않겠나? 이천년 동안 줄곧 내려온 커다란 줄기야. 비록 지금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돌파구만 생기면 언제든지 뿜어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저력이야. 불교가 보잘것 없는 종교라면 덮어놓고 우길 수야 없겠지만 비할 수 없이 높고 깊은 진리인데야 결론은 확실하지 않아? 이천년의 투자를 죽을 쑤는 수가 있나?… 기독교가 비록 서양에서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천년 동안에 그들의 것이 되었듯이 불교도 우리들의 것이야. 아니 우리야. 바로 우리야."

단 최인훈이 구원으로 생각하는 불교는 작금의 불교가 아니고 부처님 키만큼 개혁을 거친 불교이기를 바라고 있다.

또 폐쇄사회에서 개인의 집착과 미망을 거부하는 공간의 용맹스런 금강역사였던 불교도는 개방사회에서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대한 가장 집착없는 비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보살의 오늘의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외친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를 다시 일으킵시다. 저 위대한 서양의 종교개혁처럼 한국불교도 개혁을 마련합시다. 불교로서 우리의 마음의 기둥을 삼읍시다."

1969년에 발표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는 삼국사기 열전의 '온달설화'를 모태로 하여 소설과 희곡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설화와 사화(史話)를 중요한 소재로 하고 현실과 꿈을 교묘히 엮어서 현세와 전세의 '인연'과 '윤회'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골육상쟁을 피해서 궁중을 떠난 평강공주가 스님을 따라 절로 가다가 온달의 집에 머물게 된다.

그때 공주가 무슨 뜻으로 왜 궁중을 떠나야 하느냐고 불평을 하자 대사가 이렇게 말한다.

"뜻보다 더 큰 것이 인연이요, 업이지요. 공주님의 이 걸음을 위해 과거 모든 부처와 삼천세계의 준비가 있었다고 생각하십시오"라는 대목이나 온달장군이 전사한 후 공주가 온달의 오두막 집에 돌아와서 슬퍼하면서 "그날 대사가 이 집에 들르지만 않았어도"하고 후회하자 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숱한 업(業)들이 닦아놓은 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업도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도 업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만날 뿐입니다."

이 설법이 나의 가슴에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감동으로 남는다.



김 문 숙
(부산불교문인협회장)

한국인 정신구원처는 불교

'인연' '윤회' 보살의 모습 담아

새로나온 책



▲과학자가 본 불교의 세계(운주억 지음)=많은 종교들이 그 가르침과 과학과의 상극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반면, 불교는 과학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이학박사 운주억교수(미 코넬대 객원교수)의 눈에 비친 불교의 세계. 〈밀알, 5천5백원〉

▲무비스님과 함께 하는 불교공부(무비스님 지음)=80권본 〈화엄경〉을 완역한 무비스님이 믿음(信) 이해(解) 실천(行) 성취(證)의 전통적 수행교육방법을 채택해서 쓴 신행위주의 입문서. 〈민족사, 8천원〉

▲지장경(해공스님 지음)=지장기도 도량인 보현산 충효사 주지스님의 〈지장경〉 강해설법. 총13품인 한 품마다 원문과 역문, 설법으로 구성했으며, 비유설화, 신앙수기 등을 곁들였다. 〈솔바람, 5천5백원〉

▲동양사상과 환경문제(불교환경교육원 엮음)=불교 노장철학 등 동양의 생태적 사고와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들을 소개했다. 〈모색, 7천2백원〉

▲종교철학의 체계적 이해(허재윤 옮김)=종교는 이론이 아닌 삶이기에, 생동하는 삶이 이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질 때 그것의 신선함과 근원성, 자체적 확실성을 잃기 쉽다. 현상학과 가치철학의 입장에서 나온 종교철학서. 〈서광사, 2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역작!

출가자에게는 수행의 지침! 재가자에게는 삶의 지표!

보살사상 경구선집

보살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가 그 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사상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의 열악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진정한 모습과 그 정신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속의 모든 불자들이 견지하고 지향해야 할 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太空月珠 編著/크라운판 양장/ 38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金日河(홍명) 스님 설법테이프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테이프 ① ②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교전통호흡법을 소개하고 호흡과 기(氣)와 마음, 선정의 관계를 밝혔으며 전통적인 단전호흡, 기(氣)수행원리를 밝혔다. 테이프 ③은 전국의 초능력자 수십명을 취재 보도한 바 있는 영남일보 변성석 기자와 대담한 취재 형식의 내용이다. 테이프 ④는 법문을 듣는 수행 청중과 토론한 내용이다.



「전통적인 불교수행법은 어떤 것인가?
단전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기(氣)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통적인가?」

전국 불교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下편도 곧 나옵니다.

대중불교음반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142-1 (053) 755-9537, 742-4017

大韓國人 安重根(義士)

옥중 安의사의 간수였던 일본 헌병이 존경과 참회로 바라본 인간 안중근.
약사암의 一如스님이 번역하여 국내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가 공소를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네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은 즉 죽는 것이 영광이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봉치 못하겠으니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리……." (安義士 어머니가 상고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충고)
-본문 중에서-

연락처 : (053) 852-0803, 藥師庵 一如

부인회·노인대학교·어린이집 포교에 뜻있는 분

포교의 서원을 세워 어린이법회, 중고등학생회, 청년회, 부인회,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실 분에게 땅값만으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집(유치원)까지 운영하실 분에게는 평 300만원 수준에서 9억까지 구청심사 은행융자로 년 8% 15년 상환 운영 기회 있음

전임 주관법사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후계자를 구합니다.

■대지·건물:2층 법당 22평, 요사채 28평, 사무실 6평 : 총대지 52평 (전통 사찰양식 집중식 건물, 시설 일체 준비됨)

■문의처: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T. (02) 802-9239 F. (02) 894-9239

불심·교양·친목 '일석삼조'

사찰 문화강좌 '인기'

불화·다도·서화·어학·건강등 세분화
상업성 배제 "신행 바탕으로 배움을"

전통문화를 배우고 전통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아울러 불자들끼리 공동취미생활을 통해 친목도 다지고….

1석3조의 효과를 지닌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사찰이 늘어나면서 참여하는 불자 또한 많아지고 있다.

조계사, 불교방송 등 기존의 개설된 곳은 강좌를 대폭 다양화 세분화시켜 현대인들의 지적·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능인선원(577-5800)이 최근 문화강좌를 개설했고, 구룡사(575-7766) 법련사(733-5322)와 불교TV 부산지사(053-3270-3476)가 문화강좌 개설을 준비중에 있다.

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계사(720-1390)는 불화그리기 서예 사군자 동양화 판소리 남도민요 꽃꽂이 선체조 한국무용 등 기존 강좌외에 색지공예 다도 단소 가요부르기 등을 신설했다. 특히 불화그리기 서예 선체조 한국무용 등에는 각 20명 넘는 수강생들이 모여 전통문화를 익히려는 열기가 뜨겁다.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가 높으며 1기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만여명 이상(중복수강 포함)의 수강생을 배출해 낸 불교방송 문화센터(703-0108).

△불교 △전통·교양 △서화 △어린이 △어학 △커뮤니케이션 △건강 △유아 강좌 등으로 세분화돼 불교전통꽃꽂이·다도 등 강좌만도 40개에 이른다. 특히 이곳은 어린이와 유아강좌를 마련, 엄마와 자녀가 함께 와 배울 수 있게 한 점이 이채롭다.

전용소극장을 갖고있는 구룡사는 오는 3월4일 개강을 목표로 문화센터를 개설한다. △영어·일어회화 △서예 △수지침 △꽃꽂이 △선체조 등으로 영어와 일어는 현재 외국인학교 교사들이 직접 가르칠 예정.

전용미술관의 개관으로 새로운 도심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법련사도 불일문화강좌를 개설 3월6일 개강한다. 불교미술의 이해, 선시 감상, 사진의 미학·실습, 도자예술 실습, 절로가는 마음 등 수준높은 불교관련 문화센터를 마련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단계를 높여가며 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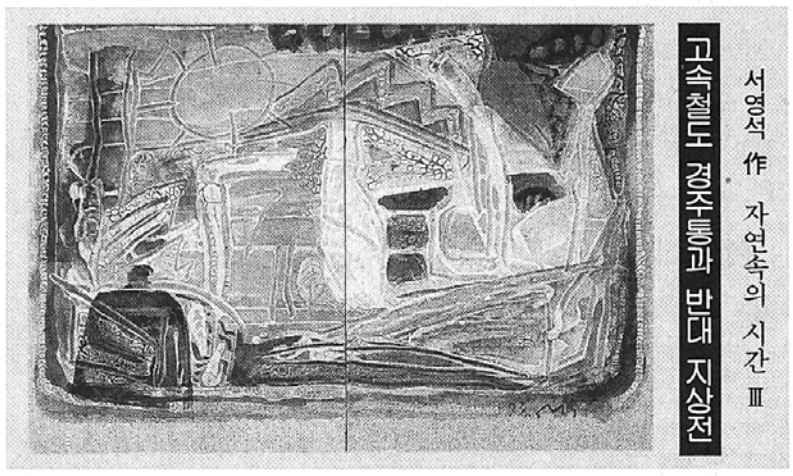
불교문화센터들은 일반 문화센터와 달리 상업성이 배제돼 정규시간 후에도 얼마든지 연습할 시간이 넉넉하다는 장점을 안고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모두가 먼저 법당에 들러 기도부터 할 정도로 불심을 바탕으로 하는 배움이라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

또한 문화강좌를 통해 배운 솜씨를 '부처님 오신날' '성도절'등 사찰 행사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조계사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봉축공연에는 '한국무용' 수강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관정의식에는 꽃꽂이 수강생들이 솜씨를 발휘한다.

그러나 가장 크게 두드러진 점은 우리 문화에 대한 안목이 달라진다는 점. 성지순례를 가서도 탱화나 벽화 탑 등에 진지한 눈길을 보내며, 대고려국보전 등 전시회에 단체로 관람을 갈 정도로 예술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높아진다는 것. 실례로 BBS 불화그리기 회원들은 지난 1월, 20일동안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며 불심과 예심을 돈독히 했다. 또한 강좌 및 회원별로 전시회도 개최해 그동안 갈고닦은 솜씨를 대외에 과시하기도 한다.

'불화그리기'를 2년넘게 배우고 있다는 정대덕화보살(48·강남구 청담동)은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신심이 없으면 안되기에 불교공부 또한 열심히 하고 있다"며 "불화를 웬만큼 익힌 후에는 단청도 배우고 싶다"고 배움에의 꾸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경숙 기자



서영석 作 자연속의 시간 Ⅲ
고속철도 경주통과 반대 지상전

불심시심 〈43〉

저 달이 바로 보배

西來一寶燭 (서래일보촉)	서쪽에서 온 보배 촛불 하나
何必苦推尋 (하필고추심)	왜 꼭 괴로이 찾아야 하나
夜深山雨後 (야심산우후)	밤 깊어 산비 개인 뒤에
涼月上東岑 (량월상동잠)	싸늘한 달 동녘 봉우리에 오르는데

소요대사의 제자중 한 분에 침굉(枕肱 1616~1684)대사가 있다. 대사는 기호지방의 명문 출신이었으나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어 어머니를 극진히 따르다 10세에 출가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 신동이라는 칭호를 받아왔다. 출가한 뒤 소요당을 한 번 뵙고는 심복이 되어 그 문하에서 정진하여 승속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사는 유·불·선의 모든 경전에 두루 참여하여 그가 남겨 놓은 문집 침굉집(枕肱集)에 보이는 서문의 대부분이 선을 표방함이 없이도 스스로 선적 깊이를 함축하고 있다.

위에 예시한 시는 잠도인(岑道人)에게 준 시다. 상대방의 도호인 뫼뿌리 잠(岑)자를 풀이하는 방식을 택한 시이다. 선을 굳이 깊은 진리로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주변에 존재한다는 내용을 상대방의 이름으로 예시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처지에 따라 방편을 제시하는 선사의 면모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대사의 법호와 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사의 법명은 현변(懸辯)이고 자는 이눌(而訥)이다. '달 현'자와 '말씀 변'자로 이름을 삼으셨으니 말씀을 잘한다는 뜻일까, 말이 딸린다는 뜻일까. 전자의 해석을 취함이 옳을 듯하다. 그야말로 달변으로서의 현변이다. 그러기에 자를 '이눌'이라 하여 어눌하다는 눌(訥)자로 억압한 것이리라.

대사의 법명이 의미하듯이 그의 시는 달변가가 물 흐르는 듯이 토해 내는 말씀과 같다.

위의 시도 순간적으로 던져진 법문같다. 서쪽에서 전해온 보배 진리 왜 찾으려 애를 쓰는가 밤 깊고 비 온 뒤의 맑은 하늘에 돋아 오르는 저 산봉우리의 달이 바로 진리의 보배가 아닌가. 그대의 이름이 바로 이러한 진리의 밝음을 간직할 수 있는 뫼뿌리라는 뜻이 아닌가 한 것이다. 그야말로 래기설법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중국 대불사 불경 6천여권 발견

상태양호… 사경·불교음악·불화등 장르 다양

중국 감숙성 장액에 위치한 대불사에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관을 비롯 6천여권이 넘는 대량의 불경이 발견됐다. 이는 1900년 돈황 막고굴에서 〈법보단경〉을 비롯한 장경동이 발견된 이래 최대의 분량으로 세계 불교학계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불사는 서하시대인 1098년 건립된 사찰로, 장경전의 뒷벽이 길이 40m 높이 20m 두께 4m의 겹벽으로 돼 그 속에 12개의 경장안에 〈북장〉 경관을 비롯 보존상태가 뛰어난 대량의 불경들이 보존돼 있었다. 모두 64개의 경함속에 각 10권씩 보관된 이들 문헌은 천자문의 순서대로 정렬돼 있었으며 총 4부로 구성됐다. 이중 〈대명삼장성교북장〉은 명 성조때인 1403년부터 20여년 동안 북경 정부가 증국불교 각 종파의 경율 론 1261부를 모아 판각한 것으로 모두 6647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또 명 전통 6년부터 116년동안 금분과 은분으로 사경한 〈대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등 622권의 사경들도 발견됐으며 불교음악 15곡 불화 20여폭, 손으로 쓴 현장의 〈대당서역기〉 황제가 내린 북장경관 822쾌 등이 발견됐다. 특히 이 북장경관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판의 실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재 소식

봉림사터 신라말 불상등 출토
명문기와·새조각부도등 보물 150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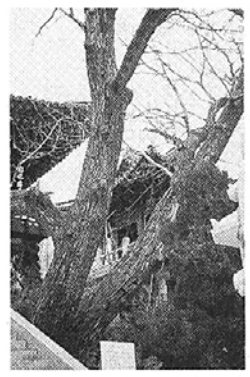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의 하나인 경남 창원시 봉림사지에서 신라말의 금동불상 및 청동불상등 보물급 유물을 포함한 귀중한 문화재가 다량 출토됐다.

또 이곳이 봉림사지임을 확증시켜주는 명문기와와 새조각 부도장식이 함께 출토돼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는 봉림사지 발굴조사결과 통일신라말-고려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청동불상 각 1구, 봉림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등 기와류 33점, 토기류 및 기타 15점등 모두 1백여점의 유물이 출토됐다고 밝혔다.

천안 광덕사 호도나무 문화재 지정 주민청원

호도 주산지인 충남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주민들은 최근 이곳 광덕사 경내에 우리나라 최초의 호도나무〈사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문화체육부에 제출했다.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호도나무 첫 재배지 문화재지정 청원위원회'는 각종 문헌조사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호도나무는 고려 충렬왕 16년에 유청신이 원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묘목을 들여와 현재의 광덕사 경내에 심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간동 일대 '문화거리' 조성

6백년 도읍지의 옛 정취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복궁 동편 사간동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이전하고 이곳에 파리의 퐁피두센터와 같은 미술관을 조성하자는 '국군병원 이전하여 문화거리 만들자' 추진위가 지난 6일 24개 문화예술기관단체인사들로 구성 발족됐다.

이형술 북촌가꾸기협회장 유홍준 영남대교수 박명자 갤러리 현대 대표 등 12명을 실행위원으로 위촉한 추진위는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국군병원이전 건의서'를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 전달했다.

김양동씨 첫 개인전

각·서·화의 경계를 넘어 혼융한 작품을 발표하는 김양동씨 첫 개인전이 '한국문화의 원형탐구와 새로운 조형어법'을 주제로 27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02)733-9512

세계불교문화전 '30만명 관람'
석가모니 진신사리 방광 '경외심'
불전 1천7백만원 복지시설에

불교계는 물론 고고학계의 세계적 보물인 석가모니 진신사리(인도 국립박물관), 상아불상 패엽경(미얀마), 만다라(네팔) 등을 비롯 세계 13개국 5백여점의 불교문화재를 국내최초로 일반에게 공개해 화제를 모았던 세계불교문화전이 지난달 31일 폐막됐다.

불교방송과 중앙개발의 공동주최로 용인자원농원에서 열린 세계불교문화전은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30여만명이 관람했다.

이번 전시회는 불자와 일반인 누구나가 쉽게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불교의 각종 관련자료 전시와 함께 영상자료를 통해 웅장한 불교문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등 불교역사 2천5백년을 재조명하고 동남아 지역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석가모니 진신사리가 전시된 인도관을 비롯, 중국 미얀마 태국 등 국가별로 전시실을 마련 각국의 불교문화 특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 관심을 끌었으며, 지난해 11월 13~19일에는 성철스님 열반 2주기를 맞아 유품전시회도 함께 열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과 10월에는 석가모니 진신사리의 방광이 목격되어 관람객들의 경의심을 자아냈다.

지난 12월 9일에는 전시장에 설치된 불전함을 통해 모금된 1천7백여만원의 성금을 성철스님 사리탑 건립기금과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연꽃마을 용인양로원 등에 각각 전달했다.

전시기간중 경기도 이천의 박찬희불자는 부처님 진신사리에 매주 꽃공양을 올려 화제가 됐다. 박씨는 "불자로서 매일 진신사리를 찾아뵙지 못하는데 대한 죄송한 마음을 미흡하나마 대신하기 위해서 꽃공양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김홍도전 출품작 진위여부 논란
이태호교수 주장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 간송미술관 등 국내 최고의 고서화 미술관들의 공동주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단원 김홍도특별전 출품작 289점중 35점에 대한 진위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호교수(전남대 미술사)는 〈월간 미술〉 2월호 기고 '단원다움의 기준은 엄정해야'라는 글을 통해 "이번 특별전에 20세기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유사화풍을 오해한 것, 18~19세기 그림 가운데 낙관을 변조한 것, 자료적 성격이 짙은 하등품이 끼어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금강사군첩〉에 대해서도 "좀더 충분한 검증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측은 "고미술의 특성상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며 "공식 대응할 필요를 못느낀다"고 일축하고 있다. 〈관련기고 16면〉

"어려운 역경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만 알려드리는 획기적인 정보!"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祕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백색공단천위에 100% 순수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크기) : (가로)62cm×(세로)160cm

상담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 5층)
전화 : (051)864-3740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전화 : (0335)34-9490,39-1906, 야간(0342)706-3060

◎자체에서 실제로 強力(강력)한 氣(기)가 방출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암에만 보내드려 큰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는 순서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바로 알려주십시오〉
이 책자는 현재 사암을 운영하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 方法은 신도개개인의 현재의 運을 그자리에서 직접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運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고, 또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파장의 방해를 확인해 줄 수 있으며, 나쁜운이 좋아지게 변화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으며, 영가의 빙의 관념파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운명을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으며, 전혀 운명을 판단해 줄 수 없는 사람도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되어, 이번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들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등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864-3740
■서울·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34-9490, 39-1906
• 야간 : (0342)706-3060

진각종

창종 50년 행사 '다채롭다'

밀각 심인당 신축·서원가 CD 제작등 추진
영묘전·납골당 건립등 사회회향불사 '적극'

진각종은 창종50주년을 맞아 제2창종의 발판을 마련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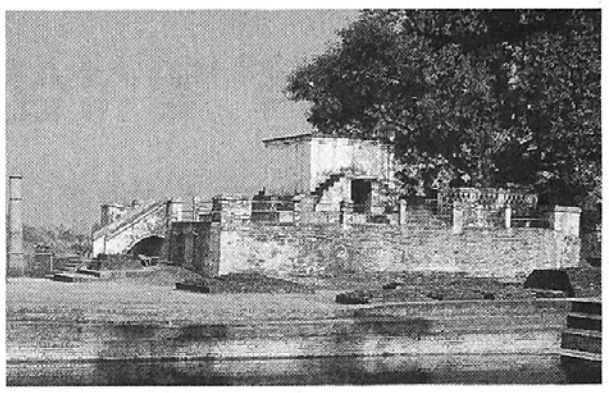
진각종은 최근 '진각종 50주년 기념사업단'(총재 락혜통리 원장)을 발족한데 이어 올해를 21세기에 대비한 지표설정의 해로 한다는 방침아래 △회당 대종사기념사업 △서원가 CD 제작 △50년사 사진집 편찬 △위덕대 개교 △대구 진각회관 완공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종조 회당대종사를 기리는 사업으로는 오는 6월 종조탄신지인 율릉도 금강원을 진각종단의 전 종도가 대대적으로 참배할 예정이며, 최초의 심인당인 서울 왕십리 밀각심인당 1천여평부지에 2백평 규모의 법당 신축불사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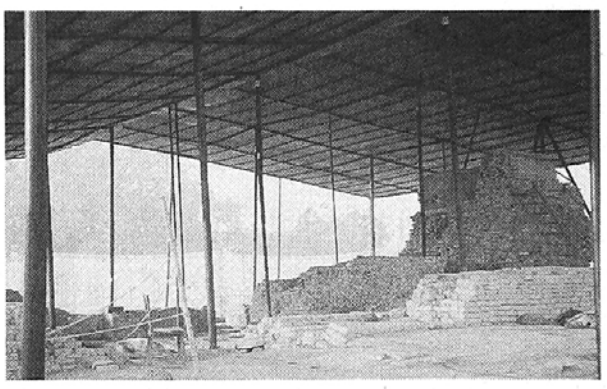
이와함께 교육사업으로는 진각문학회와 회당학회가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발표된 서원가를 오케스트라로 편곡한뒤 CD로 제작하고 신서원가도 공모할 예정이다. 창종이후 현재까지의 종단사를 더듬어보고 정리해보는 진각종 50년사 사진집을 편찬하고 전시회도 개최한다. 또 교육사업의 원만성취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위덕대 개교불사를 내달 22일 전 종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종단적인 차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대구 대봉동 진각회관(지하 2층 지상 8층)의 4월 완공을 통해 지역불교를 활성화하고 청정국토가꾸기운동에 버금가는 영묘전이나 납골당건립등의 대사회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진각음악제등 각종 예술제와 학술제를 개최하여 진기 50년의 의미를 대사회적으로 회향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 마야데비사원의 복원공사 이전의 전경과 왼편에 보이는 돌기둥이 아쇼카 대왕 석주.



◇ 복원공사가 진행중인 마야데비사원내부. 아쇼카 대왕석주로부터 오른쪽 20m에 위치했다. 중앙계단으로 들어가 지하 5m 지점이 이번에 밝혀진 부처님 탄생지.

"부처님 탄생장소는 룸비니 마야데비사원"

네팔정부 공식발표…발굴공사중 지하방 확인

석가모니는 룸비니에 있는 마야데비사원 지하 내부의 한 벽돌방에서 태어났다고 네팔정부가 지난 4일 공식 선포했다.

마야데비사원 복원공사에 참가한 네팔 및 일본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밝혀진 석가모니 탄생지는 마야데비사원 내부의 마야데비상(母神像) 바로 앞에 있는 장방형 벽돌 구조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부처님 탄생지라고 알려져 있었던 아쇼카대왕의 석주(石柱)자리에서 오른쪽으로 20m 떨어진 마야데비사원 내부의 지하 5m지점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로써 1896년 독일의 고고학자 퓨러박사가 아쇼카석주를 발견하고 현재 그곳이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라는 것이 확인된지 1백년만에 정확한 부처님 탄생장소가 밝혀진 것이다.

이번 복원공사에 참가했던 일본의 고고학자인 우에사카박사는 "인도 아쇼카왕이 석가모니의 정확한 탄생장소를 알리기 위해 그곳에 소규모 석주를 세웠는데 마야데비상 밑에서 부서진 석주조각이 발견됐다"며 석가모니 탄생지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발굴에 참가한 고고학자들은 아쇼카왕이 서기 250년전 석가모니의 정확한 탄생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돌기둥을 세웠고 그 뒤 마야데비사원이 건립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마야데비사원은 1939년 네팔정부에서 건립한 것으로 내부에는 마야데비상과 싯타르타상이 모셔져 있으며 룸비니개발위원회에 의해 개발 복원중이다.

태고종 3부 기관장 선임

72차 종회…올 예산 43억9천만원 확정

총무원장 혜 초 스님
종회의장 금 담 스님
사정원장 인 곡 스님

태고종은 지난 6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제72차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지난 종회에서 이관된 96년 사업계획과 96년 예산 43억9천만원을 통과했다. 또한 총무원장에 혜초스님(전 총무원 부원장), 종회의장에 금담스님(전 총무원 부원장)을 선출하는 한편 사정원장 인곡스님을 유임시켰다.

이날 종회는 지난 71차 종회 결의가 종정 보성스님의 유시로 백지화된 이후 3부기관장을 재선출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종회선거법 전국구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9명의 의원을 명예회복차원에서 종회법을 개정하더라도 4월 정기종회에서 원상회복시킨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앞서 종정유시 이후 사태수습에 들어간 수습대책위(위원장 백우)는 종회에서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경과보고했으며, 종회의원들은 이에대해 강한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종단이 몇몇 스님들에 의해 운영돼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성토와 함께 세대교체를 통해 체질을 강화하여 종단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방송가 소식

케이블 가입자 확보 btn 지방 설명회

불교TV는 불자들의 케이블TV 가입을 효과적으로 권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국 지역방송국 순회방문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부산을 시작으로 천안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14개 대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설명회는 각 지역방송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한 불교TV 시청자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오락방송 폐해 지적 선우마을 세미나 발표

TV가 학습 사회화 정보제공 문화 오락기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오락프로그램에만 치중해 변별력이 없는 청소년들을 돈벌이 수단의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선우마을(회장 법선)이 주최한 'TV 오락프로그램이 청소년 심성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발제자들의 주장.

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TV 바로보기' 지도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회 주제로 한 영화 '은행나무 침대' 개봉

윤회설을 뼈대로 한 영화 '은행나무 침대(감독 강제규)'가 오는 17일 개봉한다.

1천년전 신분의 벽을 허물고 사랑에 빠진 궁중악사 종문과 공주 미단의 세번의 윤회를 거치는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담았다.

"성철스님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월간 '인턴' 대학생 설문

취업정보지 월간 〈인턴〉이 전국의 남녀 대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각계 주요인사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93년 11월 열반한 성철스님은 열반 직후 철두철미한 수행과 누더기 장삼으로 불교인은 물론 우리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으며, 그해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뽑히기도 했다.

이밖에 각 분야에서 올해 주목받을 인물로 다수의 불자들이 올라 우리사회에서 불교인의 활약상을 반영하고 있다. 체육계에서는 오는 9, 10월 애틀란타 올림픽 마라톤 연속 2연패가 기대되는 황영조선수가 선등열선수(45%)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또 문화예술계에서는 '인간문화재로 지정하고 싶은 사람'에 공옥진여사(16.2%)를 비롯 김덕수 사물놀이패(6.4%),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가 차례로 뽑혔다.

성철스님이 환생한 것일까. '내일 아침 8시에 생이 끝난다면 마지막 남은 시간을 누구와 보내겠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철스님(8.5%)을 꼽았다. 2위는 천주교의 김수환추기경(7%).

지구촌 불교

캄보디아 고사난다 노벨평화상 후보에

캄보디아의 간디, 마하 고사난다(Maha Ghosananda)가 AFSC에 의해 1996년도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됐다.

고사난다는 캄보디아 불교계 원로. 세계 평화, 정의구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범종교적인 노력을 쏟아왔다. 또한 전쟁으로 황폐해진 캄보디아의 안정을 되찾고자 35년간 노력했다.

AFSC의 카라 뉴웰 위원장(Kara Newell)은 고사난다를 수상 후보자로 추천하는 서한을 통해 "마하 고사난다는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비폭력과 자비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며, 인류평화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고 말했다.

고사난다는 1924년 캄보디아에서 태어나 1938년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9년 캄보디아의 공산계 혁명정권이 들어서자,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가라앉힐 수 있다"며 불교성지재건을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합법적인 비폭력 운동을 전개, 캄보디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봉암사 시주 10억

'삼륜청정(三輪淸淨)'의 가르침이 있다. 시주물이 정당하고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건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또한 깨끗해 부처님앞에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이에대해 대승본생심지관경에서는 이렇게 이르고 있다. "마땅히 알라, 바라밀을 증득하는 것은 오직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요, 재물이 아니리라" "만일 마음에 때묻은 생각이 있으면 보배를 보시할지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적게 보시함만 같지 못하며…" 불가의 청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전두환씨가 퇴임하면서 남긴 비자금 1천6백억원 가운데 10억원이 91년 문경 봉암사 증축 시주금으로 냈음을 확인했다는 검찰발표가 있었다. 불교인의 자긍심을 무색케 한다.

이전에도 동화사 통일대불공사비가 시줏돈 명목의 세탁과정을 거쳐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마치 사찰이 돈세탁루트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이즈음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 5, 6공 때였으며, 전총무원장 시절의 일들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은 그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불교전체를 향해 무언으로 질책할 것이다.

조계종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검은돈이 불사에 쓰여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다"며 "불사와 관련된 수입지출 내역이 본사는 물론 총무원에도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봉암사측에서는 "91년 이후로 주지가 세차례나 바뀌어 당시 어떤 돈으로 어떻게 불사가 이루졌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봉암사가 어떤 절인가.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희양산파의 종찰(宗刹)이다. 이번 겨울 안거만해도 가장 많은 비구스님들이 가부좌를 틀고 수행정진중이다.

'봉암사 시주' 건을 계기로 다시금 삼륜청정을 이어가기 위한 교계의 참회와 제도적 장치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성운 기자

목탁소리

佛放 사장선임 새 국면

불교방송 사장 선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진흥원 이사회가 사장후보로 추천한 정동호씨(전 국회의원) 사안은 정씨쪽이나 진흥원·방송국쪽 모두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특히 이달말경 열릴 불교방송 결산 이사회를 앞두고 사장선임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선임의 결정 주체랄 수 있는 진흥원 불교방송 조계종총무원 종회 관계자들이 비공식 논의를 가졌고 사장후보로 ㄱ씨 ㅎ씨 ㅁ씨 ㅇ씨 ㅈ씨 등 재계 학계 인사가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사장선임에 가능한 인물이 없다는 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불교방송의 사장자리가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비어 있다.

지난해 2월 불교방송PD협회의 불교지방방송의 개국준비등 현안이 산적해 불교방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불교방송 정상화는 사장선임 문제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한결같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사장선임과 관련해 그 어느 주체도 앞서 나서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져 왔다.

차제에 단순한 사장선임 문제해결 뿐 아니라 불교방송의 공정한 보도기능 회복, 투명한 경영 및 인사권 확립, 이사회 구성의 편중성 극복등 불교방송의 근본적인 체질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은자 기자

설 명절을 맞아 불자님에게 한정수량 원가공급합니다

대덕스님 禪筆金書
금강경 10폭 병풍

일자일배의 정성으로 사경하신 스님의 공덕!
한자한자 끝없이 펼쳐진 5432자의 그 장엄함을 보시는 순간
환희심으로 가득합니다.
금강경의 영험함은 무병장수·업장소멸로 가정의 화를 멀하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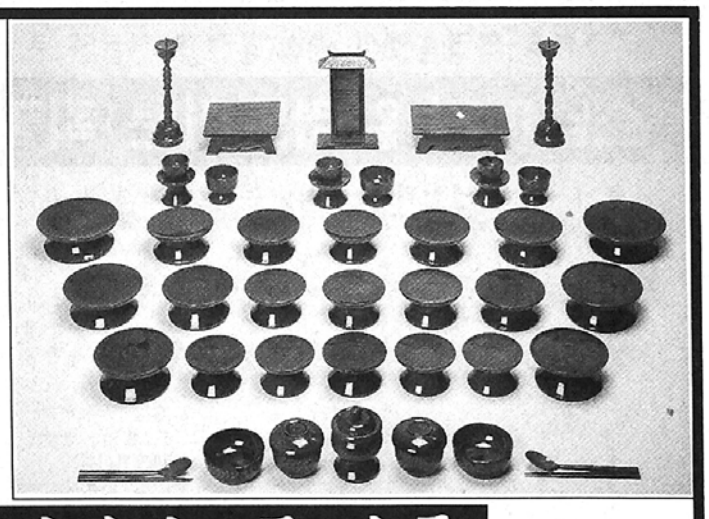


• 높이 : 175.8cm • 폭 : 439.5cm • 재질 : 양면공단 / 스기원목 / 특후지 ■ 특가 : ₩ 4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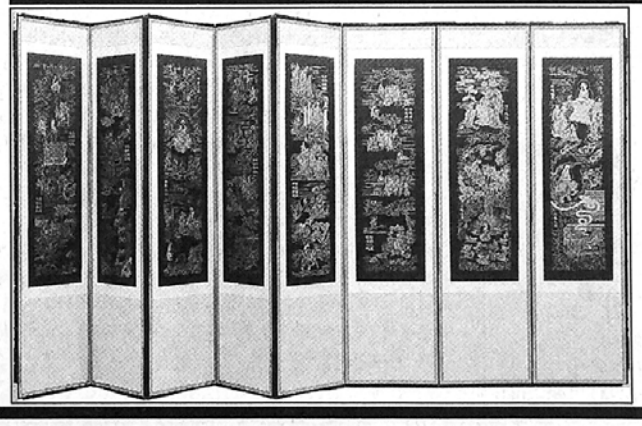
전통 木祭器

중공수입산 시중제품이 아닌 통목기로
한정량 맞춤 조선제기입니다.
수령 100년 이상의 물푸레나무로
트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 제품 수량 全 47器
• 특가 ₩ 320,000



석가세존일대기 8폭 병풍



장엄하신 석가세존부처님일대기를 금화로 조성한 성품병풍입니다.

■ 규격
• 높이 : 5자 5치(약 166cm)
• 폭 : 12자(약 363.6cm)
■ 재질
• 앞뒤양면공단
• 스기원목/특후지
■ 특가 ₩ 320,000

■ 문의처
三 田 佛 事
서울 (02) 732-6095 / 735-5293

불심으로 역경 이긴 장한 母子

서울대 인문계 수석 장승수씨 · 어머니 이계생보살

식당·공장다니며 자식 뒷바라지
성실로 일군 주경야독 '3전 4기'



◇3전4기 끝에 서울대 인문계 수석 합격한 장승수군은 "오늘의 성과는 오로지 어머니의 불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생활비와 학비마련을 위해 주경야독하기를 6년여. 3전4기 끝에 서울대 법대를 지원하여 인문계 전체수석을 차지한 장승수씨(25세 · 대구시). 장씨의 수석 뒤에는 본인의 노력과 근면 성실 외에도 어머니의 지극한 불심이 바탕이 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집에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면 늘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씨의 어머니 이계생보살(53세)은 모든게 부처님의 돌보심이라 수석합격 소식을 듣고 맨먼저 찾은 곳도 절이었다. 새벽5시만 되면 갓바위 부처님(선본사 약사여래좌상)이나 동화사 통일대불 혹은 팔공산 동봉 부처님을 찾았다. 이씨는 원래 성당에 다닌 독실한 가톨릭신자였다. 지난 81년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가세가 기울고 설상가상으로 자신과 둘째아들의 건강마저 크게 악화되었고 우연히 불교를 접하게 됐다.

"개종을 결심하고 나니 꿈에 부처님인듯한 분이 나타나서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이씨는 아들 장씨를 데리고 갓바위 부처님을 찾았다.

큰아들이 입시에 거듭 실패했을 때도 절망의 마음을 뒤로하고 불공을 드렸다. 이보살은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구멍가게, 세탁소, 식당, 직물공장의 재봉일 등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

"어머니의 정성과 격려가 없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장씨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이듬해인 91년부터 막노동, 택시기사, 가스배달 등의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동생(장승대 · 23세 · 고대 경제학과4)의 학비에도 보탬이 되어야 했다. 합격자 발표는 일하던 건설현장에서 들었다.

"취미생활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장씨는 같은 또래의 대학생을 보거나 나이가 의식될 때는 더욱 공부에 매진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이때의 스트레스를 실력향상의 기쁨으로 극복했다.

장씨는 아직 구체적인 진로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신념은 확고하다.

장씨 가족은 현재 두평 남짓한 방 3개가 달린 낡은 한옥에 전세를 살고 있다. 보일러고장으로 방 한칸만 사용하고 있지만 불심과 이번 경사로 인해 춥지 않은 겨울을 나고 있다.

"제 합격은 오로지 어머니의 불심때문입니다." 장승수씨가 눈물을 글썽이는 이보살에게 이렇게 말하자 "자식을 공사판에 내보내는 엄마의 심정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며 이보살은 아들의 손을 꼭 감싸 안았다.

대구=이윤호 기자

소쩍새마을 복지법인 승인

승가대 인수 승가원으로…행정 간소화 기대

중앙승가대학이 인수한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이 지난 5일 서울시로부터 정식 사회복지법인으로 승인받았다.

이로써 소쩍새마을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업무행정상의 간소화가 이뤄지게 됐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전 원장 정승우씨(일명 일력)의 개인재산으로 환속될 수 없게 됐다.

일력 집행유예 출소

한편 지난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소쩍새마을 전 원장 정승우씨가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정씨측은 출소에 앞서 명예회복을 위해 어떤 일이든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날 오전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집행유예 2년6개월과 함께 해외도피자금 10억원의 국고환수, 4억7백만원을 추징했다.

헌장 · 규약특위 구성

조계종신도회 창립위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6일 헌장 및 규약기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위원 6명을 선임했다.

헌장기초특위에서는 회장 선출 및 의사결정 방법 등 주요 내용을 담을 헌장 · 규약 기초안을 만들게 된다.

헌장 · 규약기초 특별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재일(동산반야회장) 김희옥(사법연수원교수) 성태진(월드컵유치 부산지역조직위원장)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 윤소년(국회정책연구위원) 조영황(변호사).

인천에 청소년교육회관 개원

유해환경감시단등 갖춰…자율학교 운영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향유와 재교육을 위한 청소년교육회관이 개원된다.

부루나포교원(주지 선일)부설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 3동에 오는 16일 개원하는 청소년 교육회관은 공부방, 자원봉사센터, 도움의 전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날 부루나 자율 중고등학교(야간)도 개교한다. 중고등학교 중도포기자, 국민학교 졸업자 등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설립한 자율학교는 검정고시반, 수학능력고시반, 특기반, 취미반, 취업반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관장 선일스님은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자율학습방법을 채택하여 청소년들이 자성을 스스로 다스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자율학교 설립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만해백일장 개최

대불련, 3월1일 동국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3월 1일 동국대학교에서 '제17회 전국 만해 백일장'을 개최한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독립정신과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열리는 이번 백일장은 시, 시조, 산문 부문에 초 중 고등 대학부로 나뉘어 실시한다.

환경실천덕목 시달
조계종, 직할사암에

조계종은 지난 5일 각 교구본사 및 직할사암 주지스님들에게 '사찰환경및 불자환경실천덕목'을 시달했다.

사찰환경 및 불자환경 실천덕목으로 △생명 근원 '물' 아껴쓰기 △환경오염 방지 △생명존중 생활화 △생태계보호 등이 있으며, 사찰환경 실천덕목으로는 △사찰중심 환경교육 △사찰환경보호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녹색휴가보내기운동 전개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불교계에서부터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4개사 신규 가입

불교기자협 임시총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지난 5일 제18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96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잡지부문 부회장에 김종기기자(월간 금강)를 선출하고 봉은, 구룡, 동쪽나라, 여성불교등 4개사가 신규 가입했다.

고침 본지 64호 1면 조계종 포살법회 사진이 반전돼 게재됐으며, 8면 지상법석에서 '금강석을 용광로에 넣고 재련하면'은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면'으로 또한 월주스님 약력에서 평불협회장과 불교인권위 공동대표는 역임했던 것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범종단 복지시설법인 설립

조계 · 태고 · 천태종 추진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등 3개 종단이 참여하는 범종단 통합 복지시설법인이 설립된다.

시현(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운산(태고종 태고원이사장) 도원(천태종 총무부장)스님 등 각 종단 복지관련 대표스님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불교계에 사회복지를 관장할 만한 공신력있는 기관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범종단적 통합법인을 설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법인의 형태, 출자금, 법인운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것으로 알려져 타종교에 비해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는 불교계 복지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3개 종단이 추진중인 범종단 복지시설법인은 조계종이 강원도 양양에 건립중인 복지시설 '보리수 마을'의 준공이 마무리 되는 4월경 보건복지부에 법인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 앞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범불교 복지시설법인이 설립되면 불교복지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운영, 각 시설단체의 예산부족으로인한 자립수단을 강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요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불교계 복지시설단체를 체인화해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불교복지에 대한 신뢰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복지시설을 설립하려하는 사찰이나 군소종단에게 구비요건상 어려움이었던 5억원가량의 수익사업체 수반 문제도 해결돼 불교계 복지시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범종단 복지시설법인 설립에 관련한 일부스님들은 "기존법인의 탈종단화, 보리수 마을의 재정적 어려움 타개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 북송회담 제안

인권위, 조선불교도연맹에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오는 19일 비전향 장기수 북송을 위한 관문점 예비회담을 조선불교도연맹에 제안키로 했다.

이에 앞서 불교인권위는 지난 6일 정기총회를 갖고 운영위원을 전국 본말사 주지스님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외 인권위, 통일사회운동단체와 연계, 사업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하는 등 96년도 사업을 확정했다.

성보전시관 사찰직영 운영키로

정부 관급공사 주장 적극 대응나서

성보전시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현해스님)는 지난 5일 조계사 회의실에서 해인사등 8개 성보전시관 대상사찰 주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추진위 1차회의를 개최하고 전시관 사찰직영운영에 대한 일관된 방침을 거듭 결의했다.

전시관 건립추진경위 보고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총공사비 15억원중 중앙정부가 5억원의 예산지원으로 관급공사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찰직영을 전제로 문화재관리국과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공사시공 역시 당해 사찰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건물규모, 위치설정 등에 따른 실무협의 및 관계당국과의 모든 협의사안을 총무원에 일임했다.

불교통신대 운영

불교TV 이사회 결의

불교텔레비전(대표이사 태응스님)은 지난 8일 제11차 결산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의 주식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동국대학과 불교TV 통신대학을 운영하는등 사업을 결의했다.

'동국발전을 위한 21세기 기획단'과 이미 협의를 거친 방송통신대학 운영은 학사과정등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친 7월경에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2회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3월15일 오후3시 향군회관에서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공명선거·난민돕기등 전개

종단협이사회, 국제교류기획단 구성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각종단 대표스님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정기총회 겸 이사회를 개최했다.

종단협은 이날 총회에서 금년 사업으로 △공명선거 계도운동 및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북한난민돕기 및 남북불교공동법회 개최 △한중일 3국 불교대회 개최 및 전통문화행사개최 △국제난민돕기 모금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확정했다.

종단협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대회기간동안 국제불교문화교류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3국의 우수한 불교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3국의 불교전통문화공연을 펼쳐 3국의 불교문화를 일반에 소개할 예정이다.

종단협은 국제불교문화교류를 위해 이달중으로 기획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단협은 이날 총회에서 7개종단 총무원장 교체에 따라 최혜초(태고종) 전남정(총화종) 윤일오(대승종) 신혜안(여래종) 송무진(원효종) 이대산(삼론종) 권성우(미타종) 스님을 새 이사로 승인했다.

청소년지도사연수

24 · 25일 동화사서

청소년지도사 불자모임(회장 해관)은 오는 24, 25일 동화사에서 불교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을 모색하는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수회에는 조계종포교원에서 추진하는 불교청소년의해 사업과 관련, 구체적인 참가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교육법 개정으로 봉사활동이 내신성적에 반영됨에 따라 사찰학생법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청소년지도사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경우에도 학점이 인정된다.

지난해 6월 창립한 청소년지도사불자모임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소지자 7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간병봉사 교육실시

조계종 120명 단원 배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시현)은 지난 8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불교자원봉사센터 간병봉사단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1박20명의 불교자원봉사단원을 배출했다.

이번 소양교육은 지난달 복지재단으로 귀속된 불교간병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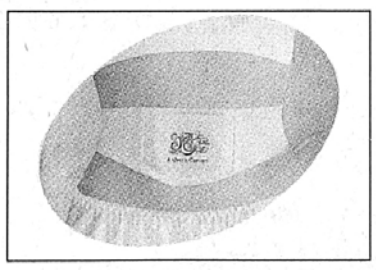
포항 오어지등 4곳
문화재 지표조사

지난해 고려시대 범종이 발견돼 관심을 모았던 포항 오어지를 비롯해 인근 북구 흥해읍과 기계면 · 신광면 등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된다. 포항시는 오는 3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립경주박물관과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해 4개읍 · 면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표조사 결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과 유물의 출토가능성이 확인되는대로 보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컴퓨터의 모든 것 세일과 상의하십시오

모 델	486DX-100	PENTIUM 75-PCI	PENTIUM 100PCI	PENTIUM 120-PCI
CPU	486DX4-100	INTEL P-75	INTEL P-100	INTEL P-120
CHCHE RAM	256 CACHE	256(512) CACHE	256(512) CACHE	256(512) CACHE
SPEED	291M Hz	586M Hz	1176M Hz	1376M Hz
MAIN RAM	8MB (64MB)	8MB (128MB)	16MB (128MB)	16MB (128MB)
CUP 쿨러	냉각팬 장착	냉각팬 장착	냉각팬 장착	냉각팬 장착
플로피 디스크	5.25", 3.5"	5.25", 3.5"	5.25", 3.5"	5.25", 3.5"
하드 디스크	1.27 GByte	1.27 GByte	1.27 GByte	1.27 GByte
HDD / FDD 컨트롤러	VL-BUS TYPE	PCI-HFDC	PCI-HFDC	PCI-HFDC
	2SE / 1PA / 1GA	2SE / 1PA / 1GA	2SE / 1PA / 1GA	2SE / 1P / 1GA
SLOTS	ISA SEA, VL 2EA	ISA-5 PCI-3	ISA-5 PCI-3	ISA-5 PCI-5
VIDEO BOARD	ET4000W32-P CH6 IMB VIDEO RAM 1670만 TURE 칼라	TRIDENT 9680XLI 2MB VIDEO RAM SOFT MPEG 기능	TRIDENT 9680XLI 2MB VIDEO RAM SOFT MPEG 기능	TRIDENT 9689XLI 2MB VIDEO RAM SOFT MPEG 기능
모니터	4S 바이오 그린 1024 * 768 Non-Interlaced	4S바이오 그린 1024 * 768 Non-Interlaced	4S바이오 그린 1024 * 768 Non-Interlaced	4S바이오 그린 1024 * 768 Non-Interlaced
절전기능	내장	내장	내장	내장
키보드	106키	106키	106키	106키
케이스	Tower	Tower	Tower	Tower
멀티미디오 (옵션)	윈도우비젼 Ⅱ 4배속 CD-ROM, 14400 / 19200 / 28800BPS 모뎀 사운드 블레스터 32K / AWE32K / 32PnP, 옥소리 32MEF			
소비자가격	CALL	CALL	CALL	CALL
서비스 품목	: 마우스, 전원보호장치, 디스켓 보관함, 디스켓, 보안경			

업그레이드 상담 환영

* 세일의 모든 컴퓨터는 정품 intel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각 시스템은 주변기기의 추가장착 및 시장동향으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직원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일 시스템(SE IL SYSTEM)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5-2 나진상가 17동 나열 309호 전화 : 706-6152

"탈속의 필치로 자연·인간사랑"

문화산책

김홍도의 禪세계

'용주사 불화' '노승염송도' 등 만년의 걸작
해학·운치·구도심 화폭 가득… '걸림없는 자유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단원 김홍도 탄신 250주년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김홍도의 그림세계에 투영된 그의 삶과 불교적 정신의 향취를 한국화가 이호신씨가 되짚어 보았다. 〈편집자 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혼이 살아 있음을 어떻게 알고 믿으랴. 하지만 한 육신을 통한 존재의 자취가 영겁으로 흐르는 진리를 일깨워 줌에는 경배를 마다하지 않을 수 없다.

불투명한 삶일수록,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간절해오는 존재의식은 가중되는 물질시대에 더없는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살고 있다. 따라서 가없이 맑고 고결한 영혼을 흠모하며 그 숨결이 살아 숨쉬는 선현(先賢)의 자취가 새삼 그리워 진다.

'단원 김홍도전'을 수차례 들락거려야 하는 나의 심회는 비단 명작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진실의 숭고미와 구도적인 삶의 자세에서 영혼의 오롯한 숨결에 가슴이 저며왔다.

지극히 우리의 자연과 인간을 사랑한 단원은 산수, 풍속, 도석, 고사인물, 영모, 화조, 기록화, 초상화, 불화 등 모든 분야를 섭렵한 명실공히 조선최고의 천재화가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단원처럼 만인의 공감과 평가를 고르게 받는 화가도 드물터이고 20세기를 넘어서도 '단원' '단원'할 수 밖에 없는 소이는 진정 무엇일까가 되뇌어 진다.

단원은 누구보다 우리의 산천과 삶을 진실하게 표현한 화가로 새 한마리, 돌 한송이도 세심히 관찰하고 세속의 삶을 유심히 살폈으며 지형과 산세에도 조선적인 때깔로서 해학과 운치를 한껏 더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처럼 위대한 예술가의 노력이 산재한 그의 삶과 생활은 별반 알려져 있지를 못하다. 화원(畵員)인 중인출신의 단원은 그림외에도 글씨와 음악을 잘하고 즐겼다는데 그의 아쉬운 면모가 그의 아들 김양기(金良騏)가 엮은 '단원유묵(檀園遺墨)'에서 겨우 살펴질 정도이다.

그는 약관 30세 이전에 이미 화명을 날렸고, 이후 정조임금으로부터 현감이라는 벼슬까지 오르는 당시로서 최대의 세속적 출세를 맛보았음에도 말년은 그지없이 가난하고 고독하게 보낸 인물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식의 잣대로 어림하거나, 자금껏 단원의 정확한 출생지도 알 수 없고 부덤은 커녕 어디서 죽음을 어떻게 맞은지도 알 수 없는 지경이 오늘날 '불세출의 천재화가 단원'이라는 사실 앞에서 후학은 할말을 잃고 만다.

진정한 예술가는 스스로를 태우는 촛불처럼 세상을 밝힐 뿐 자신은 말없이 소멸하며 자취를 남기지 않는 법인가.

하지만 아쉬운대로 남은 단원에 대한 담대의 증언을 살펴본다.

'바쁨이 연풍현감에 이르렀으나 집이 가난하여 더러는 끼니를 잇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매화 한 그루를 파는데 매우 기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살수가 없는데 때마침 돈3천을 보내주는 자가 있었다. 그림을 요청하는 돈이었다. 이에 그중에서 2천을 떼내어 매화를 사고 8백으로 술 두어말을 사다가는 동인(同人)들을 모아 매화음(梅花飮)을 마련하고 나머지 2백으로 쌀과 땔나무를 사니 하루의 계책도 못되었다. 그의 소광(蕭曠)함이 이와 같았다.' (조희룡의 '호산외사')

'사능(단원의 초기호)은 일면으로 음악에 통하여 거문고와 피리가 매우 절묘하였고 풍류가 호탕하여 칼을 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생각을 가지고 더러는 비장하게 눈물을 흘리는 적도 있었다. 이는 사능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나 알 것이다. 들으니까 그가 거처하는 곳은 걸상이나 책상이 깨끗이 정돈되었고 뜨락과 계단이 조촐하여 그 집안을 둘러보면 곧 속세에서 벗어난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세상에 저속하고 옹졸한 사람은 겉으로는 사능과 어깨를 치며 네나거리를 하고 있지마는 또한 사능이 어떠한 인물인 것이야 어찌 알 수 있으랴.' (표암 강세황의 〈단원기우일본〉)

이같은 단원의 생활상은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종이 창에 흙바르고 이몸 다할때까지 벼슬없는 선비로 시가(詩歌)나 읊조리며 살리라"라는 화제로 그의 뜻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비록 중인출신의 신분이었지만 단원의 탈속한 경계(境界)는 특히 불교에 귀의하게된 '용주사 불화' 제작(46세) 이후 만년에 이르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초기 '군선도(群仙圖, 32세)'의 인연이 30년후 조선의 달마상으로 바꾸어 놓은 '절노도해도(折蘆渡海圖)'로 드러나고, "염불을 입으로 항하(간지스강)의 모래알만큼 외우고 또 그 모래알만큼 외운다"는 '노승염송도(老僧念誦圖)'와 탈속한 고승의 걸림없는 모습을 붓을 던지듯이 그려낸 '습득도(拾得圖)' 연꽃과 구름을 타고 돌아 앉은채 방광하는 법열로서 승천하는 '염불서승도(念佛西昇圖)', 마치 귀염둥이 아이를 데리고 깊을 나선 기품있는 한 어머니의 상과도 같은 '남해 관음도(南海觀音圖)' 등은 모두 만년의 작품으로 탈속한 필치로서 단원의 궁극적인 이념미와 세계관을 엿보게 하고 있다.

한편으로 단원이 남긴 '단원유묵(檀園遺墨)' 중에는 최치원이 세상사의 뜻을 잃고 은일하려는 내용의 시가 해인사 홍류동 계곡에 암각된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서도 선(禪)적인 생활이 간취된다.

따라서 단원은 평생을 걸쳐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무소불능(無所不能)의 재능을 펼친 연후에는 지존(至尊)한 선열(禪悅)로서 초탈의 경지를 꿈꾸었던 것만 같다. 하지만 병이 깊은 만년에는 늦게 얻은 아들의 월사금을 마련하지 못해 궁궁하는 현실적으로 무능한 인간임을 동시에 보여준다.

마침내 그의 마지막 기년작(61세)으로 알려진 '추성부도(秋聲賦圖)'에서 나는 걸음을 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단원이 적기로 "… 아아! 초목은 감정이 없건만 때가 되니 바람에 날리어 떨어 지도다. 사람은 동물중에서도 영혼이 있는 존재이다…"

이처럼 스산한 인생의 말로였건만 투명한 그의 영혼은 물이 흐르듯 영겁으로 살아 숨쉼에 어찌 숙연하지 않으랴. 이렇듯 한 예술가의 가열찬 구도의 삶은 진정 '산문밖의 선'으로서 누대로 빛이 되어 흐를 것이다.

이 호 신 〈동양화가〉



절노도해도 (折蘆渡海圖)
전래의 달마상을 조선인의 얼굴로 바꾸어 놓은 단원 후기의 그림으로 성근필치가 탈속한 느낌으로 충만하다.



포의풍류도 (布衣風流圖)
단원의 자화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림으로 "종이창에 흙바르고 이몸 다할 때까지 벼슬없는 선비로 시가나 읊조리며 살리라"는 화제처럼 초탈의 경지가 느껴진다.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알레프 ㊎
보르헤스 作


그림 · 심민섭

"식당 지하실에 있다네. 그건 내 꺼야. 내꺼. 나는 그걸 학교 갈 나이도 되기 전인 어릴때 발견했지. 지하실의 층계는 가파르기 때문에 심촌들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네. 그런데 누군가가 지하실에는 하나의 세계가 있노라고 말했지.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그건 궤짝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다네. 나는 몰래 내려 가다가 금지된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 눈을 떴을 때 알레프가 보였어."

그는 다급해져 알레프를 설명해 주었다.

"알레프라뇨."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보이는 지구상의 모든 지점들이 뒤죽박죽되지 않고 들어 있는 장소라네. 나는 아무에게도 발견 사실을 누설하지 않았지만 다시 찾아가 보았어. 인간이 시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한 특권이 내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어린 나이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 수니노와 숭그리가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지는 못할걸세. 아무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 법대로하면 순니변호사가 내 알레프가 양도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걸세."

"당장 가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안된다는 말을 끝내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놀랍게도 나는 까를로스 아르헨띠노가 심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가라이가로 갔더니 여종업원이 내게 기다리라고 했고 잠시후 아르헨띠노가 왔다.

"이거 꼬냑 비슷한 이거 한잔 들게나."

그는 명령조였다.

"그리고 지하실로 기어 들어가게 하게…"

그는 지하실로 들어가는 자세며 알레프를 보게된다는 확신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등등의 설명을 장황히 늘어 놓았다.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고 답답한 지하실에서 그가 자신의 정신착란증세를 위장하기위해 나를 죽이려고 유인한 것인지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에까지 젖어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직경 2~3㎝ 구체에 우주공간이 축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굉장해요 정말 굉장해요"

그때 나는 알레프를 보았다. 나는 층계하단의 오른쪽에서 조그마한 무지개빛 구체를 보았는데 거의 견디어 낼 수 없을 만큼 반짝거렸다. 처음에는 그 구체가 회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내 나는 그 회전 운동이 구체 속에 담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수많은 광경들 때문에 생겨난 착시 현상임을 깨달았다. 알레프의 직경은 2 내지 3센티미터쯤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우주공간은 크기가 축소되지 않은채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각각의 사물은 한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내가 분명하게 각각의 사물을 보면서도 그것을 우주의 모든 지점으로부터 바라보았으니 말이다.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바다를 보았고, 새벽과 저녁을 보았으며 아메리카의 군중들을 보았고 부서진 미로를 보았고… 불가해한 우주를 내 두눈으로 보았다. 나는 무한한 외경과 무한한 연민을 느꼈다.

"굉장해요 정말 굉장해요."

이상하게도 내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끝〉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등 · 법당기도등 · 각종행사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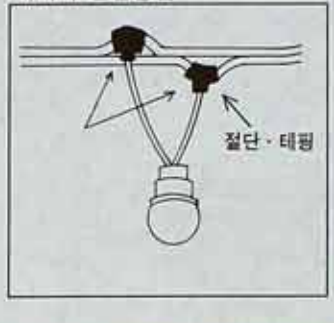
희소식

신개발품 배선 안내

(의장등록 제 22744호, 실용신안원 제 2338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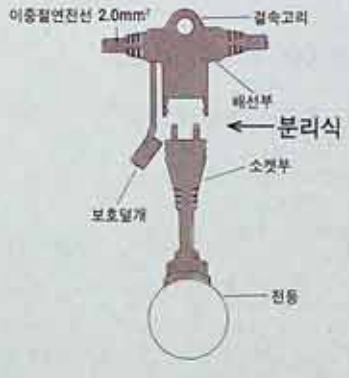
재래식 연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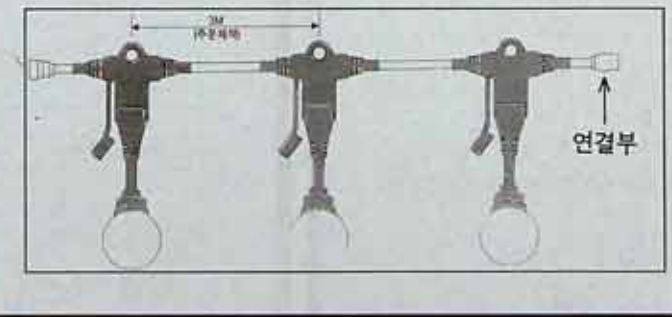


연결배선!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 수거 · 보관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이제 한번 구입으로 **인건비도 절감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제품특징
- **전선과 전등소켓부가 분리**되어 있어 설치 · 수거 · 보관하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 재래식 연결방법에서 비롯되는 **단락 · 누전 · 합선 · 화재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 ★겸용으로 소켓부를 제거한 후 기타 전기작업을 위한 **전원공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
① 걸속고리를 이용하여 못이나 철사 등으로 먼저 전선을 설치합니다.
② 소켓부를 전선에 끼웁니다.
★만약 전등이 필요치 않은 곳은 보호덮개를 닫아 물이나 먼지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거보관방법
- 설치의 역순으로 먼저 소켓을 분리한 다음 전선을 말아 수거하신 후 별도로 보관하시면 부피도 적고 관리가 편리합니다.

주문방법
- 전화 또는 발주서 양식에 주문량을 적어 3월 20일한 FAX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안내
- 전등갯수는 원하시는 사양대로 제조하여 드립니다.
- 올해 생산량의 한정으로 3월 20일 이전까지 주문량에 한하여 납품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한내에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단가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접수기간 : 1996. 3. 20까지 ◆납품기간 : 1996. 3. 10 ~4. 20

문의전화 02) 508-3071~3
0525) 22-4506

제일안전공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4 지양B/D 3층
전화 : 02) 508-3071 ~ 3, 578-9033
팩스 : 02) 508-3073

부산 경남지사
경남 김해시 어방동 1048-3
전화 : 0525) 22-4506
팩스 : 0525) 22-4507

禪茶一如의 즐거움
茶園 녹수청산
주소: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736-3782

현대불교

법공양판 (관음포교원) 18~19면
청와대에 법공양 합시다 20면



포교의 꽃
촬영 편집 음향 조명등 최첨단 영상기자재를 완비한 현대프로덕션 스튜디오.

부처님세계 영상으로 피어난다

본사 '현대프로덕션' 설립…첨단 포교 본격나서

'부처님의 세계가 영상으로 우리곁에 펼쳐진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난 1월 19일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을 설립하고 불교영상포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대프로덕션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촬영, 편집, 음향, 조명등 최첨단의 영상기자재를 완비한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김인기실장을 비롯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고루 갖춰 고화질의 영상과 기획력으로 불자들의 신행만족을 위해 영상포교시대를 선언했다.

24시간 천수천안이 되어 불교계의 모든 소식을 카메라에 담게 될 현대프로덕션은 각종 신행의 현장뿐만 아니라 고승대덕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전국 사찰을 찾아 불법의 오묘함과 불교문화의 진수를 생생한 영상으로 안방에 전하게 된다. 마침내 현대프로덕션이 영상매체를 통한 포교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영상부문에 있어 불모지나 다름없는 불교계. 현대프로덕션의 활동 폭은 다양하고 광대하다.

법문·각종 홍보물등 '신선한 기획' 추구
신행현장 천수천안 "불법 살아 있어요"

현대프로덕션은 첫 기획물로 어린이 포교, 복지 및 문화·교양물, 큰스님의 행적 등을 담은 영상물을 내 놓을 예정이다.

현대프로덕션은 특히 특별기획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제작한다.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인 부처님 일대기는 부처님의 법열이 오롯히 살아숨쉬는 인도 네팔 현지 곳곳을 찾아다니며 부처님 생존시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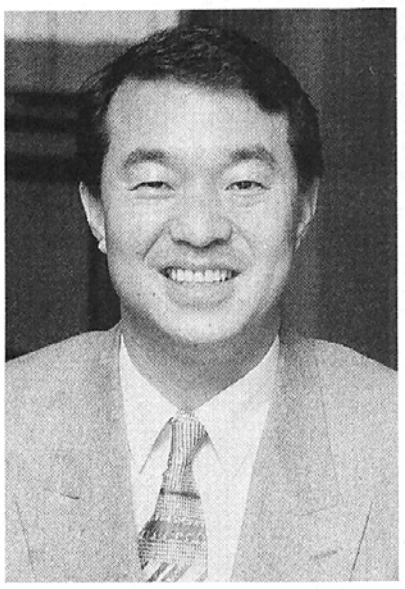
현대프로덕션의 활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8만4천의 불법을 보다 쉽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불자의 예절, 사찰의 향기, 초발심자를 위한 기획물까지도 불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이밖에도 전국 각 사찰별 역사적 배경, 기업체 및 관공서 홍보영화, 각종 제품 홍보물, 사원 교육용 영상물, 성지순례의 과정 등을 제작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영상사업을 통해 한국불교의 대변혁을 이룩하겠다는 현대프로덕션은 우선 불자들과 함께하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대규모 법회장마다 대형 멀티비젼과 멀티큐브 등을 이용, 영상과 법회의 장면이 함께 어울어지는 영상의 하모니를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매일 불자들과 만나는 책방 여시아문 조동규씨는 "불자들이 신행관련 영상물을 찾는 경우가 많으나 그동안 마땅한 영상물이 없어 되돌아 갈때가 가장 안타까웠다"며 "현대프로덕션의 발족으로 불교영상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프로덕션의 발족은 영상매체를 통한 한국불교의 위상강화, 신행활동, 포교 등은 물론 불자들의 올바른 불교관 정립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란게 영상분야전문가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김중근 기자



현대프로덕션 김인기 실장

"가슴 적시는 영상미로 포교 새 바람 일으킬터"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있어 활자포교는 활성화됐지만 영상매체를 통한 포교는 전무하다시시피한 상태여서 그동안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이 불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0년부터 6년여동안 불교계의 일대사를 놓치지 않고 비디오에 담아온 현대프로덕션 김인기실장(42)은 이제는 불교도 영상포교의 시대라고 강조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도약하고 있지만 불교계만 변하고 있지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김실장은 현대프로덕션이 불교계를 대변하는 영상포교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영상사업에 뜻을 두고 그동안 불교관련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김실장은 "부처님의 모습을 여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영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해 항상 고민해왔다" 며 "금년 청소년 포교의 해를 맞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하게 불 수 있는 한편 교육과 포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소년 포교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93년 조계종 개혁과정에서 폭력배들의 스님폭행현장을 촬영, 개혁의 실마리를 제공, '개혁의 스타'였던 김실장은 "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봐도 싫증나지 않는 참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선행될때 불교영상문화의 발전은 가속화 될 것"이라며 강한 집념도 내비쳤다.

전국 승가회 학인대회(93년),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94), 조계종 개혁 다큐멘터리 '종단개혁 이렇게 이루어졌다(94)', 광복50주년 순국선열추모대회(95) 등 사료적 가치가 큰 작업까지 소신과 사명으로 일해왔다. "묻혀있는 자료를 발굴하여 이시대의 작품으로 구성하겠다"는 김실장은 영상작업을 통해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근〉

오늘의 영상 포교

제작·보급 아직 불모지
비디오시대 대책 절실

현대사회를 문화쪽으로 볼때 영상시대라 하고 신세대를 '비디오세대'라한다. TV와 비디오등의 보급으로 영상매체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계는 저조한 제작과 홍보, 후진적 판매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교계에서 영상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것은 불과 10년안팎. 그것도 사찰행사를 필름에 담는 수준이었다. 현재 일반 상품으로 보급되는 영상물은 교리강의, 찬불가, 성지순례, 행사기념물, 다큐멘타리등 극히 일부분에 한정돼 있으며 대략 30여편이 나와있다. 이중 성지순례나 다큐물은 외국작품을 더빙한 단계이고 그외는 스님법문이 전부인 현실이다. 이중에서 순수하게 기획된 작품은 불교방송의 '불자예절'과 '열반의 세계'가 돋보일 뿐이다.

최근 조계종 기획실이 분석한 '일반매체에서 초파일보다 성탄일에 종교방송을 긴시간 편성한 것'을 지적하기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SBS의 한 PD는 "기독교물은 영화에서 뮤지컬까지 수백편이 널려있는데 반해 불교영상물은 수량도 없고 다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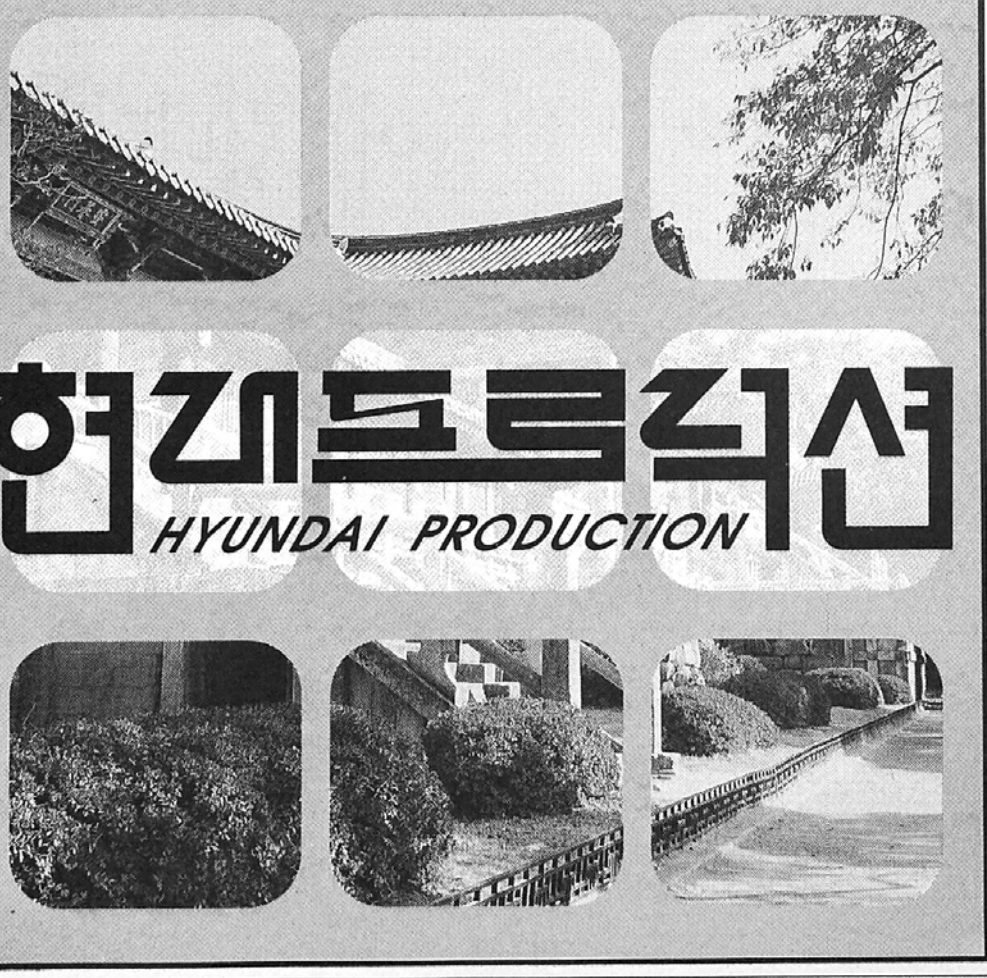
이와관련 교계의 한 관계자는 "불교영상물은 행사기념물과 개인작품보관의 차원을넘어 우리문화의 80~90%에 이르는 불교고유영역을 기반으로 일반인에게도 어필가능한 대중성있는 다양한 기획물과 역사물, 다큐등 복합적인 프로그램제작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딱딱한 불교교리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소화하고 불교교리를 현대화하여 소화할 수 있는 불교프로덕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공중파방송이나 케이블 TV방송이 출범했지만 더욱 시급한것은 프로그램을 공급해줄 불교관련 전문 프로덕션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불교영상물은 내용을 쉽게 전달해주는 불교적인 영상미와 교리가 합해지는 미래용 포교수단이다.

그러므로 교계에서는 전통불교문화 발굴의 필요성과 새로운 불교포교유형 개발을 위해 양질의 불교영상물을 제작 공급하는 프로덕션의 설립이 해결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께 불교영상물들이 책방 여시아문등 조계사부근과 지방불교용품점에 국한 판매돼 일반국민들의 눈요기도 힘든 상황이여서 일반판매점과 비디오 대여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하는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유통망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구로 관음포교원

법공양 페이지

* ……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 ……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피내고 있습니다. 법공양면은 본
* …… 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면)
* …… 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
* …… 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지

구로 관음문화원장 일 명 스님

"소리연구 수행삼기 20년 음향포교로 회향합니다"

"완벽한 음향장비의 설치가 기획행사나 대형법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참여대중의 마음을 집중시키지 못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음향장비의 고급화와 전문화가 절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관음문화원은 어떤 형태의 불교행사라도 마음 같이 스며드는 해조음과 같은 소리의 완벽성을 담보한 음향시설로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음향장비 무상대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로 관음포교원내 문화원을 개설하고 불교계에 음향장비 무상대여 및 기술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명스님은 소리를 통한 대중포교의 원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화원내에 완벽한 방음장치와 매머드급 멀티엠프 시스템을 완비해놓은 스님은 20여년간을 소리의 완성을 위해 수행의지를 다져왔다. 그 결과 스님은 세계적인 오디오 메니아들도 혀를 내두를 스트레이트 우드혼을 직접 고안 제작하기까지 했다. 1개당 1억을 호가하는 이 스트레이트 우드혼을 20개나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멀티엠프 시설도 전문성을 뛰어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같은 시설의 완성을 불교계 행사장으로 회향하고 있는 스님은 "전문적인 음향설비를 통해 완벽한 소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교문화 형성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음향에 대한 스님의 관심은 행사장에서 개인의 신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음악을 듣고 순수해진다는 것과 명상을 통해 내적인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선 수행하는 자세와 통한다"는 것이 스님의 확신.

스님이 음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5년 전 금주의 청소년 법회때의 일이다. 처음엔 50여명만이 법회에 참가하던 것이 전문적인 음향시설을 지원해주고 확실한 음성을 전해줌으로 5일째 회향법회때는 5백여명으로 불어나 음향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기계 하나하나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여러개를 조합하고 또 직접 제작에 나서기도 하면서 완벽한 소리의 완성을 위해 노력했었다. 그렇게 이룬 것이 관음포교원 문화원이며, 현재 6명의 전문요원이 스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10억이라는 만만치 않은 재정적 투자로 준비한 음향설비인 만큼 그 쓰임새도 값져야 한다는 스님은 그간 관심 밖의 일로 인식되어 온 사찰내 음향시설의 설치작업에도 왁벽한 기술 지원을 할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법당은 목재의 흙으로 건조됐고 천장이 높기 때문에 소리의 흡입과 반사율이 적절해 음향조건이 탁월하다"는 스님은 시설설비등의 하드웨어 측적 지원과 함께 이벤트와 기획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런 스님의 활동은 이미 관음포교원내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강좌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음악강좌와 오전시간을 활용한 주부들을 위한 클래식 강좌, 오디오전문가를 위한 음향비교시청 음악회는 하루가 다르게 신도들의 참여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관음 문화원은 국내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전문 음악 감상실로도 부각되고 있다. 전문인들의 관심과 음악을 통한 마음닦기에 몰입한 신도들의 발길이 끊어질 새가 없다.

스님은 소리를 통한 대중포교에만 머물지 않고 내적 개달음의 방관으로 실질적 기도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적 개달음의 세계를 열 수 있다"고 말하는 스님은 포교원내 백일기도 용맹기도 철야기도 등을 직접 지도한다. 백일기도에는 60여명의 신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정진의 열성을 보인다.

"음향시설지원사업을 꾸려나가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계의 무관심이었다"는 스님은 "불교문화를 형성하고 대중포교를 이끌어 갈 음향시설지원 불사에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여러 불자님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국토 여는 해조

최첨단 음향시설 무료



메머드급 멀티엠프와 우드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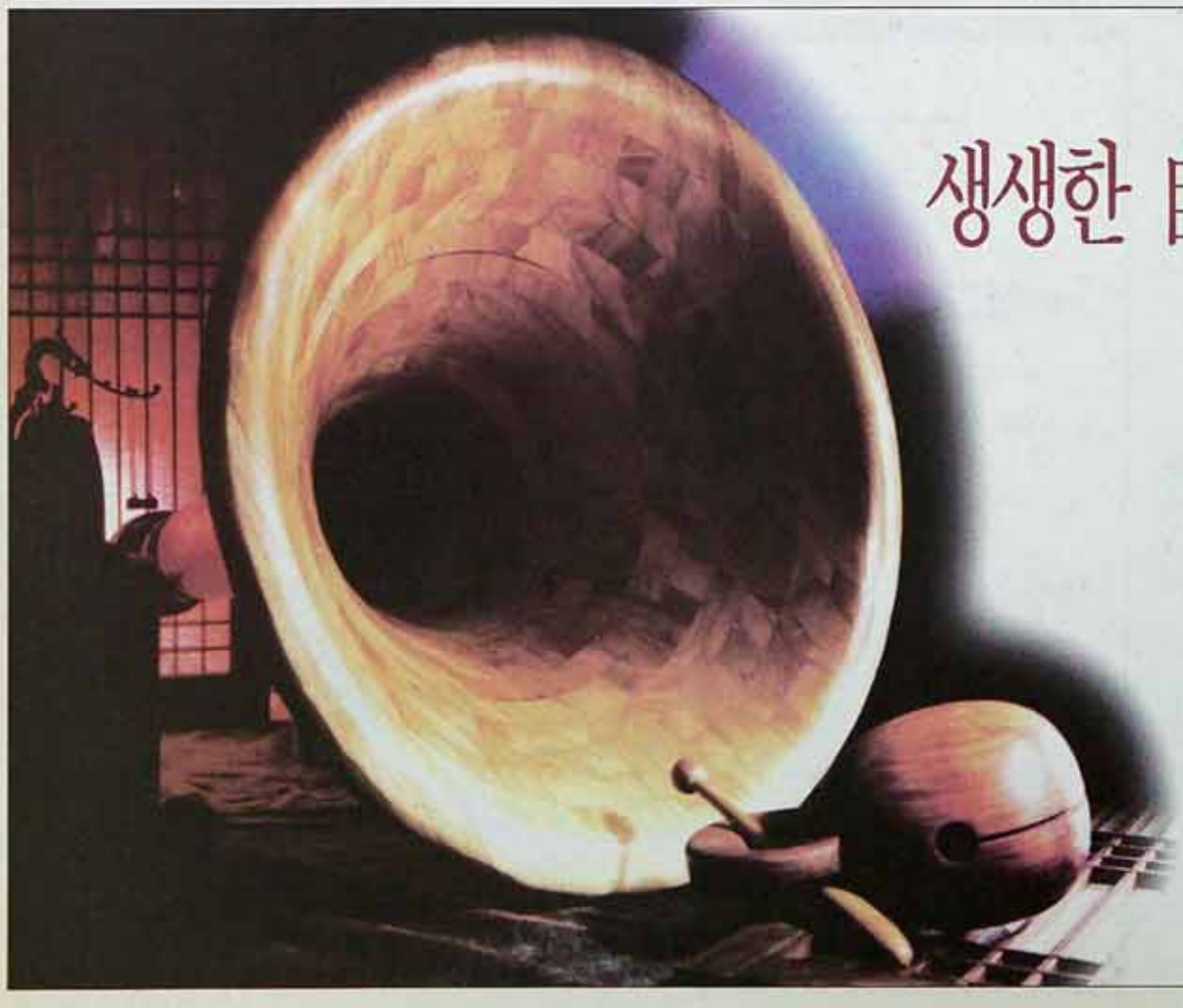
관음문화원이 보유한 음향장비는 전문회와 대형화가 돋보인다. 전문매니아들이 조합한 멀티엠프와 일명스님이 음향공학으로 설계·제작한 스트레이트 우드혼은 5톤트럭 2대 분량이 넘는다. 이들 장비는 사찰은 물론 대형광장에서 생생한 소리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2천명이하의 대중이 모이는 중형급 행사에 동원되는 음향기기들.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각종 음악강좌가 열려 불교음악 세계를 넓혀가는 관음문화원 내부.



생생한 自然音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최고 음질의 음향기기를 최소의 비용으로 설치해 드립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어산 덕 높으신 스님들의 법문 소리로서 감동을 주고자 옛 선인들은 신심을 연마하고 법당의 음향이 최적이 되도록 천정을 높이고 한창(韓窓)과 포(包)로써 장엄했습니다.

대중불교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에서 음향기기 설치는 스님네들에게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저희 관음포교원·불교음향연구원에서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최소의 설치비로 훌륭한 설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전문 음향설비 기사에 의한 시설, 설치 자문, 음향 측정 및 설치, 철저한 A/S 관리등을 해드립니다.

설치업체
- 인천 용화사
- 단양 구인사(천태종 총본산)
- 관악산 연주암
- 화성 신흥사 청소년수련원
- 목동 청소년회관
- SBS프로덕션 STUDIO SETTING
- 한국일보방송 녹음실(여의도소재)
- 서울은행본점 방송국 녹음실
- 대구은행본점 방송국 녹음실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
관음포교원·불교음향연구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82-1 TEL 863-9649(代) FAX 864-1066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공양 페이지

구로 관음포교원

음 감동 여기에…

서 불교문화 새 지평



◇관음문화원 녹음사업부의 법문테잎제작 장면.



◇일명스님이 직접 설계·제작한 스트레이트 우드혼과 18인치 대형 우퍼로 조합된 투웨이 스피커 시스템. 특히 스트레이트 우드혼은 네오디움자석으로 만들어진 JBL 2450J 유니트를 장착했다.



◇관음문화원 녹음사업부가 제작한 각종 법문테잎등.

첨단시설 갖춘 '구로 관음문화원'

각종 법회 음향 지원

법어·강의 테잎도 제작

이제 대형회관이나 옥외 행사가 '무대따로 관객따로'의 헤프닝을 벗어나게 됐다. 최첨단 멀티앰프 시설과 초용량 스피커를 갖춘 관음 문화원이 각종 행사와 법회에 무료시설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법회와 음악회 각종 연수교육 체육대회등의 현장에 무상지원되는 관음 문화원의 장비들은 초대형과 대형 중형 소형 행사를 가리지 않는 적절한 설치로 참여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 잡는다. 지원될 장비는 최첨단 멀티앰프와 20여개의 스트레이트 우드혼등으로 행사 규모에 따라 투입 장비를 조정하고 있다. 관음 문화원의 음향장비는 5톤트럭 2대분을 넘는 메머드급이며 대형급 이상의 행사는 2천명 이상 대중이 참가하는 행사로 6명의 기술 지원팀이 1주일 전부터 전문설비를 구축한다. 2백명이상의 중형 행사와 그 이하의 소형 행사에도 적정 인력과 장비가 지원된다.

관음 문화원은 음향설비 무상대여 외에도 사찰 음향기기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사찰의 규모와 법당 구조등을 공학적으로 검토해 가장 완벽한 소리의 전달조건을 찾아내 설치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문화원측은 이미 인천 용화사와 단양 구인사 화성 신흥사청소년 수련원 목등 청소년 회관 무등산 증심사 관악산 연주암등에 음향기기를 설치해 호평 받고 있다. 음향기기의 설정과 전문기사에 의한 설치 위치 선정 음량측정등 고난도의 설치작업에서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책임 지고 있다. 설치 기종은 대부분이 전문가에 의해 조합된 멀티시스템이어서 소리의 질적 우수성도 단연 압도적이다.

관음 문화원은 녹음사업부를 통해 각종 오디오 테잎 제작사업도 펼치고 있다. 스님들의 법문과 각종 행사 내용을 첨단 장비로 선명하게 녹음 최고의 오디오를 제작하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

현장의 소리는 물론 완본 편집작업도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며 녹음시설이 없는 곳에는 직접 기기를 동원해 녹음을 하기 때문에 소리의 완성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문화원에 설치된 스튜디오에서 직접 녹음을 하기도 한다. 그간 녹음사업부는 향곡스님 법어집(테잎20개) 구산스님법어집(16개) 탄허스님 화엄경강의(72개)를 비롯 다수의 법어집과 강의집을 제작해 왔다.

이같은 음향관련 사업에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축적한 관음 문화원은 불교관련 각종 이벤트 사업의 기획과 진행도 맡고 있다. 문화 행사나 특별법회 강좌 강연 수련회등을 기획 진행하는 관음 문화원의 이벤트 사업은 불교 행사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각종사업 문의 863-5306, 863-9649, 863-7573)

관음문화원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482-1
전화 (02)863-7573,9649 FAX864-1066



관음포교원 부설문화원 법회와 강좌

'천명보탑' 건립불사…신행도량 '우뚝'

주부클래식·고전음악·찬불가교실 등 다양

최첨단의 음향기기와 금강석같은 원력으로 포교의 마당을 넓혀 가는 관음포교원이 각종 사업과 강좌 천명보탑 불사 등으로 새로운 신행도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완벽한 음향설비를 바탕으로 관음문화원이 열고 있는 음악관련 강좌는 청소년음악강좌(매주 토요일 오후3시30분) 주부클래식 강좌(목 오후2시) 고전음악강좌(금 오후1시) 찬불가교실(월 오후2시)등이며 전문가를 위한 음향비교 시청음악 강좌도 열 계획이다.

일반 문화강좌는 다도(목 오후 3시) 사진(화 오전 10시) 꽃꽂이(목 오전 11시) 요가(목 오후2시 8시) 메이크업(수 오전 10시) 등산 (매월 네째주 일요일) 등이 관음 문화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법회는 음력 초하루 10시30분에 봉행되는 초하루법회와 지장 및 관음재일 법회가 해당일에 열리며 매월 세째주 일요일의 가족법회는 화목한 불자가정 만들기의 구심체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참회정진법회와 전동차법우회 서울 구치소 법우회 성불회 동문법회가 관음포교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어린이 법회(토 오후 2시)와 중고등청소년법회(토 오후5시)도 뜨거운 열기 속에 매주 열리고 있다.

무엇보다 관음포교원 대중들의 원력이 집중된 곳은 포교원 옥상에 건립할 '천명보탑'불사다. 이 탑은 '천수다라니의 보배로운 탑'이란 뜻을 지닌 것으로 일명스님이 손가락 3개를 소지(燒指)공양하며 발원한 불사란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구로일대는 물론 한국불교의 새로운 기도도량이 될 천명보탑 불사는 현재 동참자를 접수 받고 있다.

선망부모와 모든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한

천도대법회

천도재란 고인이 생전에 지은 모든 악업이나 원한관계 등을 해소하고 부처님의 자비로 극락세계에 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천도재를 지낼 때는 법이 높은 큰스님을 모시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행사특징

1. **영가 보살계 수계식:** 영가들에게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도록 영가 수계식을 거행하여 불명을 지어줌으로써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큰스님 초청법회:** 영가천도는 법이 높으신 큰스님을 모시고 성대하고 구족하게 치루어야 영가들을 올바로 천도할 수 있습니다.
3. **독경대회:** 천도재에 참가하시는 신도님들이 영가들에게 부처님 법을 들려주기 위해 천도재가 열리는 동안 24시간 조를 편성하여 쉬지 않고 법화경을 독송합니다.
4. **공연:** 천도재를 성대하게 치루어 영가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풀이 춤과 명창들을 초청하여 예술제로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5. **전통작업:** 불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으로 영가를 위로하여 좋은 곳으로 천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6. **법공양:** 법흥스님 저 〈선의 세계〉, 서암 큰스님 법문 카세트 테잎 「선사상의 진수」, 카세트 테잎 「염불의 바른 길」 「천수경 강의」 (일명 스님 강의)

행사일정

■ **일시 :** 3월 1일 ~ 3월 (음 1월 12일 ~ 14일)

■ **장소 :** 관음포교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82-1 / 전화 **863-9649**)

■ **내용 :**

3월 1일	10시	입재 및 전통작업에 의한 천도의식
	11시	서암 큰스님 법문
3월 2일	10시 30분	서암 큰스님 법문
	14시	혜정 큰스님 초청 법문
	15시	공연 (한풀이 춤, 박초선 씨와 국악 악단들)
3월 3일		범패의식, 혜정 큰스님 법문 및 영가 보살계 수계식, 회향

"청와대에 법공양을 합시다"

불교계와 청와대 사이에 담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佛法에는 원래 담이 없으므로 '현대불교'는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불교

이렇게 들었다

"종교편향 이대로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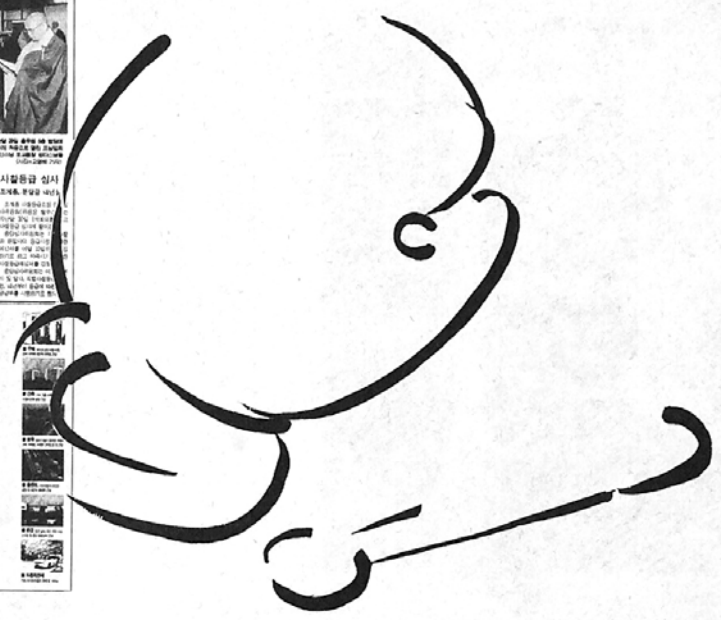
조계종 대책위 구성 · 피해사례 창구개설 — 'YS 사과' 촉구 성명 잇따라

남북 불교지도자 회담 추진

"경주고속철 대물림 절단 필요"

시철등급 심사

KISAN 생명중심의 종합건설회사 기산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청와대에 법공양 합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 불교계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대불교신문을 청와대로 보내 불교를 제대로 알립시다.

본사가 직접 보내지 않고 법공양을 제안하는 것은 많은 불자들이 '불교 바로 알리기' 뜻을 담아 보내는 '현대불교' 야말로 가슴을 열고 눈여겨 봐야 할 귀중한 공양물임을 인식 시킬 수 있고 그간에 높아진 담을 허물어 낼 수 있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관공서에도 법공양 합시다

불교를 바르게 알려야 할 곳은 청와대뿐만 아닙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 할 때 더이상의 종교편향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군법당에서 부처님을 몰아 낸다거나 부처님오신날이 국가고시를 치르는 일은 바로 행정일선의 공직자들이 불교를 모르는데서 비롯된 웃지 못할 사례였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는 물론 도청, 시청, 군청, 읍 · 면사무소에까지 현대불교신문이 불자들의 마음과 함께 배달된다면 작은 일로 스님들이 관공서를 수차례씩 찾아다니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입니다.

불자님 자녀의 학교에 법공양을

현대불교를 법공양 해야 할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아닌 교육현장입니다. 본지 조사에 의하면 45명이 공부하는 국민학교 교실에서 7~10명이 불교신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23~25명 이상이 타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중 · 고등학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였습니다. 〈본지 96년 신년호, 60호 1면 보도〉

새싹불자가 줄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새싹 불자를 이끌어 줄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무실과 도서관 연구실에 '현대불교'를 보내고 불자님들의 모교 후배들과 은사님께 '현대불교'를 보내는 일은 지금의 내가 불자라는 자긍심을 내일의 나에게 확인시켜 주는 분명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법공양 동참방법

- **보내고 싶은 곳** : 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사가 지정.
- **동참범위** : 1구좌당 1만원이며 3개월간 유효(동참구좌 수는 제한없음)
- **입금방법** :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계좌번호 010041-0255243
  입금자 이름옆에 '법보시'라고 표기
- **문의** : (02)737-8881 본사 총무국
  (02)722-4162 본사 편집국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이웃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 *현대불교의 독자 한분 한분이 곧 진리의 수레바퀴입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2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2천만 불자의 자랑스런 대변인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있는 곳, 그곳이 곧 법당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면 가득 신행의 지침이 될 부처님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곁에 두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좌절을 희망으로, 고통을 수행의 거름으로 바꿔 놓을 지혜와 용기야말로 현대불교의 변치 않은 메시지입니다.

이웃에 현대불교를 권하는 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께 현대불교를 권해 주신 독자분께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 단 1명이라도 권유하신 분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1명 권유시 : 본지 3개월 무료 구독권
  2명 권유시 : 본지 6개월 무료 구독권
  3명 권유시 : 본지 9개월 무료 구독권
  4명 권유시 : 본지 12개월 무료 구독권
- 구독 기간은 6개월, 1년 단위이며 1명을 기준으로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께는 해당 기간만큼 구독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신문 받으실 분

성명		전화		연령	
주소					
성명		전화		연령	
주소					
성명		전화		연령	
주소					
성명		전화		연령	
주소					

권유하신 분

성명		전화		현대불교 구독여부	이미 구독 · 구독하지 않음
주소			전화번호		

자르는 선

*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그밖의 사항은 본사 영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